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0월 15일(음력 8월 24일) 일요일 (주간) 제 599 호

스스로의 믿음 · 원력에 '낮은 점수' 줘

본지, 불교대 재학생 600명 대상 설문조사

관련기사 A10면

불교대학 재학생 중 절반이 상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확신치 못하고 있었으며, 10명중 6명은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불자들이 비교적 불교공부에 열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불자들의 믿음과 원력 정도는 이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본지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전국 25곳의 불교대학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은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이라는 질문에 '40~50점(37.3%, 224명)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평가는 믿음과 신행 일치도에도 그대로 확인됐다. '자신의 믿음과 신행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일치하지 않은 편이다(40.5%, 243명)'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 34.0%(204명)는 '본래 부처'를 '믿지 않는 편'이었다. 아예 '안 믿는다'라는 대답도 12.0%(72명)나 나왔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교리적 수행적 교육 방법이 모색돼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35.8%(215명)에 불과했다.

설문 교차분석 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0~30대' 젊은층 '남자'들의 믿음이 약했다. 이들은 믿음과 신행 일치도 또한 낮았다.

한편 불교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부처님 가피력'과 '인과 및 윤회'를 믿는 지수가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남동우 기자

재가신행 새 길 찾자

교리 · 수행 중심에서 '사회화'로 초점 이동 돼야

우리는선우 공개토론… "실천하는 삶 교육 필요"

"'이뭣고'만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 언제까지 공안참구에만 빠져있을 것인가. 가족문제, 직장문제, 사회문제가 화두가 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수행의 의미는 8만4천 모든 번뇌를 화두로 삼는데 있다."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변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자기반성'이다.

10월 11일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주최로 열린 '재가불자 신행의 과거 · 현재 · 미래' 공개토론회는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신행 변화'를 외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 재가단체의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현재의 재가불자 위상이나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비춰볼 때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은 '신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의 신행이 기복에 치우쳐 있었고, 현재의 신행이 교리와 수행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미래의 신행은 '사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윤세원 길벗아카데미 설립준비위원장, 이영철 NGO 미래경영연구소장 등 재가단체 리더들은 이구동성으로 "재가불자들은 이제 스스로의 신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자기 수행'을 넘어선 '사회 참여'를 제시했다. 이는 곧 신행 패러다임이 '자기'에서 '사회'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한다.

김재영 법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팎의 수행'을 제기했다. 참선과 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안으로의 수행'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의미하는 '밖으로의 수행'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용 이사장도 '사회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자유 평등 생명 환경 평화 환경 등 우리사회의 공통가치를 지키는 불자로 거듭나야 하며, 연기적이고 사회적인 삶이 불자다운 삶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선우의 '재가불자 신행의 과거 · 현재 · 미래'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신행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연기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과 생활이 일치돼야 한다. 문제는 수행과 생활을 어떻게 일치시키는가이다. 이는 앞으로 재가불자들이 풀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일례로, 욕심을 버리라는 법문을 듣는 불자들은 보통 '욕심을 버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고 살면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원론만을 강조한 법문을 들으면 고개는 끄떡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와 닿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늘 같은 얘기만 듣는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의문에 대해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교리나 수행)과 현실과의 괴리가 그만큼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세원 길벗아카데미 설립준비위원장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원칙을 현실로 옮기는 힘(노력)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짚었고,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실천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얘기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가 양성돼야 한다. 그 인재들이 불자들의 의식을 바꿔놓아야 한다"며 재가불자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주부로서, 상인(商人)으로서의 불교적 삶을 배워본 사람이 있느냐"고 청중에게 반문한 성태용 이사장은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절에서만 생각하고 깨끗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중성을 벗어나야 하며, 이것이 바람직한 신행이요 사회화다"라고 역설했다.

재가불자들의 삶은 현실이다. 현실의 궁극은 행복이고, 재가불자들이 신행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 더 있는 사족(蛇足)같은 교육이 아닌 완성을 향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재가불자 신행은 사회화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을 나누고, 무엇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복(作福)의 신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미관리 사설사암 말소

조계종, 244곳 대상

1962년 통합종단 이후 등록된 조계종 사설사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종단 관리가 미치지 않은 244개 사찰에 대해 등록 말소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등록만 된 채 90년 이전까지 주지 임명이나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찰, 종단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사찰 등을 통합종단 이후 처음으로 일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총무부는 등록말소 대상 사찰의 재산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최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교구본사 주지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해당 사찰에 세 차례 통보 우편물 발송한 뒤, 이의 신청이 없으면 11월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등록말소를 최종 확정한다. (02)2011-1701 **조용수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현대불교를 읽는다'. '현대불교'는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기다려지는 도반같은 신문이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오른쪽 두번째)이 10월 12일 '현대불교'에 실린 한국불교소식을 현지 독일불자들에게 번역해 읽어주고 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독일지원

A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지상중계 4면
'봉사제일' 심귀남 보살의 하루 7면

특집 '믿음과 원력'
성열 스님이 말하는 믿음과 원력 9면
나의 '믿음 · 원력' 몇 점? 10면
믿음이 있는 삶 원력이 있는 삶 11면
내가 개종한 이유 12면
개종-포교보다 급한 숙제 13면
역사속 원력보살-균여 스님 15면

특집 사찰경제 '위기시대' 왔다
사찰경제 양극화 실태와 극복 방안 17면
좌담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 18~19면

B

열두살 '현대불교'가 스님께 띄우는 편지 1면

특집 도심 속 불교문화
도심공간에 불교문화 심기 3면
도심문화 이끄는 스님들 4면
'한눈에 쏙' 조계사 불교문화클러스터 5면
지하철역 주변의 불교문화 6면

기획 칭짱열차 타고 티베트 가다 10~11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찰 음식 16면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혜남 스님의 '화엄경' 12~13면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지안 스님
열반경/10월 21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조(佛祖)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빛으로 온 누리를 밝히면서
언제나 국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종 정 법전
총무원장 지관

원로회의 의장 종산
중앙종회 의장 법등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직무대행 일관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청정선거 이번엔 꼭 …

‘교단자정센터’ ‘대중공사’ 등 단체 감시활동 나서

10월 26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정선거를 촉구하는 출 · 재가 불교계 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가칭 · 준비위원장 만초)’를 비롯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등은 종단의 선거풍토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계종 소장파 스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중공사는 9월부터 13대 종회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월중 설문 결과를 통해 선거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종회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초 스님은 “마곡사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선거감시활동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재가단체들과 공조해 14대 중앙종회선거가 청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무원장에게 강력한 청정선거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와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 김희욱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재가단체장들은 10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비공개면담을 갖고, ‘청정하고 바른 선거를 위한 재가불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합이 예상되는 몇몇 교구를 중심으로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총무원장스님이 청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종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점 등을 직접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단자정센터는 △입후보자의 엄정한 자격심사 △취지에 부합한 직능직 의원의 선출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단자정센터는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스님에 대한 출마저지, 엄격한 자격심사 감시, 후보자 청렴서약 운동, 부적격 자격 원칙 제시 등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18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단부패근절 시국토론회’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키로 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 조용수 기자

태고종 선암사사태 장기화 전망

8일 물리적 충돌 … 합동득도수계산림은 진행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선암사 문제가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이후 별다른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월 8일 오전 선암사 새 주지 승조 스님측이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를 ‘접수’하면서 경비업체 직원과 선암사 前 주지측 금용 스님 측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승조 스님은 “이번 사태는 ‘접수’ 차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임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말했다.

前 주지 경담 스님은 “현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 · 현직 주지 및 소임자들이 일괄적으로 물러난 뒤 올해 말까지 방장 스님 체제로 임시 운영하며, 12월중으로 선암사 재적승 전산대회(총회)를 열어 새주지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 전임 주지측과의 갈등으로 연기됐던 ‘태고종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제식’이 9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돼 4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11일에는 선암사 경내에서 대치중이던 전 · 현직 주지 스님측과 총무원 및 전남 종무원 등은 선암사 무우전에서 7인 대책위원회를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선암사 운영위원회법 개정과, 재산권 문제, 전임 주지 퇴진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양측이 16일 ‘제 1차 선암사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방장 추대 될까’ 관심 통도사 내달 2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직무대행 지은)가 수차례 무산됐던 ‘영축총림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1월 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방장후보 선출 무산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통도사가 최근 주지 직무대행에 임명된 지은 스님 취임 후 열리는 첫 산중총회 성사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용수기자

조계종 호법국장에 관행 스님

조계종 호법국장에 관행(觀行) 스님이 10월 10일자로 임명됐다. 관행 스님은 법용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학인들의 축제’ 열린다 전승련, 19일 불국사서

전국승가학인연합(의장 법여)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 불국사 선열당에서 제18회 전국승가학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첫째 날은 1부 개회식 및 기조법어에 이어 2부 역경대회 및 불교 의식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 때 학인들은 역경 서도 창불 법문 외국어 부문에서 그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3부는 불교문화마당 및 어울림마당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불교문화경연 및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대회 둘째날은 축구 및 족구를 비롯한 체육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남동우 기자

포교사 자격 복권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격정지 당한 포교사들의 복권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응시원서 1부, 자격 미 갱신 사유서 1부, 포교사 의무서약서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해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11월 15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16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합격자가 공고된다. 합격자들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열리는 2차 연수를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 처리된다. 발표는 21일.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군포교 위해 종단 초월한 ‘한마음’

자비실천운동본부, 전방부대와 결연 … 12일 합동위령대재

종단을 초월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스님들의 모임이 전방 부대와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해 화제다.

(사)자비실천운동본부(이하 실천본부 총재 법열 법황사 주지)는 10월 12일 연천군 전곡에 위치한 최전방 6527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전쟁 57주년 호국영령 합동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천본부 총재 법열, 상임 부총재 청원(대한불교홍인문도회장), 부총재 만오(한국불교법인종 총무원장), 만주(한국불교문화진흥원부총재), 회장 해광(성덕사 주지), 부회장 탄봉(호국사 주지), 사무총장 보연(경운사 주지) 스님 등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군포교 의지를 천명했다.

2000년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자고 설립된 실천본부는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스님 30여명이 동참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다양한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대전의료소년원, 안산예술소년원, 7317부대, 1991부대 등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등 재소자, 불우이웃, 군장병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자비실천운동본부는 6527부대와 결연을 맺고 군법당 건립 서원을 세웠다. 사진은 10월 12일 열린 한국전쟁 57주년 호국영령 합동위령대재 모습.

이번에 6527부대와 결연을 맺은 것은 여단급 부대임에도 군법당이 없어 장병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천본부에서는 향후 군법당 건립과 함께 연 2회 정기 위문과 함께 호국영령 합동위령재를 매년 봉행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300명분의 과자, 음료, 떡을 비롯해 육군본부군종실에서 발행한 <마음 닦는법> 700권을 구매해 보시했다.

실천본부회장 해광 스님은 “장병들이 군생활 하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부대 위문시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법당이라도 건립해 장병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건강하고 웃으며 군생활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527부대장 김해수 대령은 “저희 부대는 6 · 25 당시 전장의 용맹을 떨친 부대로 이번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되어 많은 스님들게 감사 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군이 상호 협력하여 군장병들의 정신교육 함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연천=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 : 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大韓佛教 法相宗

宗正 鶴岩 元老委員 法輪 鶴山 泰岩 慈峰

諮問委員
遠晏山景峰山峯 清志忍法雪性德 智泉

譯經委員
菴光武瑄光月天雲 芝天正道大江景聖

山邱宗務院長 釜山宗務院長
北原宗務院長 大蔚山宗務院長
北南宗務院長 慶江山宗務院長
北南宗務院長 忠原州宗務院長

憙宇常炅瑄雄 敎智圓修道天

院長 敎育院長
院長 敎究院長
院長 報禪院長
院長 副院長

總務院長 海道茂景慧
宗會議長 副議長
司正院長 總務院長

月一晟天命

總務局長 法空 財務局長 法進 弘報局長 法性
敎務局長 禪潭 社會局長 江明
護法局長 奉文 文化局長 仁明

護法部長 性華 文化部長 大寶月 研究部長
敎務部長 靜峰 社會部長 珏雪岩 布敎部長
總務部長 明光 財務部長 海大明 敎育部長 月聖雲 弘報部長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9-8 전화 031)653-1250.1 팩스 031)653-125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독실한 불자'

어머니 불심 代이어

신현순 보살 50년간
충주 성덕사서 신심 다져



10월 6일 반기문 장관이 어머니 신현순 보살과 함께 선친 묘소를 성묘하기 위해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 윗행치 마을을 찾았을 때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뒤에는 매일 새벽 당선 기원 불공을 드린 어머니 신현순(85 · 충주시 문화동) 보살의 불심이 있었다.

반 장관은 10월 9일 유엔 사무총장 단독 후보로 지명됐으며, 14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신현순 보살은 충주 성덕사(주지 지광)를 50여년 다니며 불심을 다져왔다. 신 보살은 성덕사 중창불사 때에도 가장 많은 시주를 해 중창불사를 기념하는 공덕비에 반기문 장관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을 정도다.

성덕사 주지 지광 스님은 "반기문 장관 아버지 위패도 성덕사에 모셔져 있고, 지난 추석 때에 신현순 보살과 반 장관이 성덕사에 들르기도 했다"며 반기문 장관 모자의 불심을 전했다.

신현순 보살의 불심은 반기문 장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5남매 중 유일한 불자로 알려진 반 장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웃으며 하심이 생활화돼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출입문을 열어주는 친절은 다반사라고 한다.

반 장관의 이 같은 겸손과 남을 위한 배려는 어머니 신현순 보살의 가르침 덕분이다.

반 장관은 어머니로부터 절대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덕을 베풀고 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한다.

현재 성덕사 주위에는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재가불교 1번지' 대원정사 재도약 준비끝!

남산에 100평 규모 법당 신축
22일 점안식 · 23일 무차법회



재가신행 도량으로서 새롭게 도약을 시도한 서울 대원정사. 10월 22일 신축법당 낙성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재가불교 근본도량' '불교교양대학 모태도량' 등의 별칭을 가진 서울 남산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가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대원정사는 '불교중흥과 대중화'라는 故 대원(大圓)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고 과거 '재가불교 1번지'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법당 중창 불사 △무차법회 개최 △도량 정비사업 △장학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대원정사는 기존 법당 맞은편에 100여평 규모의 법당을 조성하고 재가신행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신축법당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조합시켜 불자들의 신심을 자아내게 한다. 신축 법당에 봉안된 삼존불과 관음, 지장보살 점안법회는 10월 22일 열린다.

특히 재가불교 근본 도량 대원정사의 중창 불사 회향을 맞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무차법회를 연다.

무차법회에는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범어사 조실 지유,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前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 7명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설할 예정이다.

대원정사는 또 도량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원정사 경내는 남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길이 가파르고 폭이 좁아 신도들이 불편했던 게 사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량 정비사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말끔히 해소할 계획이다.

김범준 상임법사는 "중창 불사와 무차법회, 도량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재가 불자들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원정사는 법회를 알차게 꾸며 나가고 신행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법사 2명을 모집 하고 있다. (02)754-1613

글 · 사진=노병철 기자

낙산사 동종 1년만에 복원

실측자료 토대 밀랍주조공법으로 …24일 타종식

지난해 4월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이 1년여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첫 법음을 울린다.

낙산사와 문화재청은 10월 11일 "새로 복원된 낙산사 동종은 10월 16일 낙산사로 이운돼 10월 24일 낙산사 원통보전 기공식과 함께 타종식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낙산사 동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원래 동종의 탁본과 실측자료, 성분분석 등을 토대로 동종 복원의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밀랍작업과 주물성형 등 동종 복원의 본 작업은 원광식 주철장이 맡았다.

또 낙산사 동종 복원 작업에는 1억 200만원의 예산과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됐으며, 제작기간은 성분분석 등을 포함해 약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이날 타종식과 원통보전 기공식에는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진호 양양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서울외고, 학생들에게 예배 강요

선교집회 개최 … 홈페이지 항의글 삭제 물의

서울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희진)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 실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하 종교자유시민연합)은 서울시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지난 9월 16일 전일제 계발활동(CA) 시간에 1, 2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소집해 서울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종교집회를 가졌다.

또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사탄' '미신' '무교' 등의 문구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시범이 진행되는 동안 "원죄의 결과는 죽음 뿐"이라는 내레이션까지 나왔다. 숭의교회 집사로 알려진 김희진 교장은 "이 강연은 서울외고가 미션스쿨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교육을 이용한 특정종교 선교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학교측은 9월 20일 게시판글을 전부 삭제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측에 미션스쿨 전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불교인사 초청 강연을 동등하게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보를 접수한 종자연과 종교자유시민연합은 10월 10일 서울외고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봉영 기자

핵실험 이후 신계사 복원 · 지원사업 등

"남북 불교교류 변함없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년 넘게 진행돼 온 남북불교교류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불교계 남북교류 단체들은 중단없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부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17일 예비접촉을 갖고 11월 19일 열리는 극락전 낙성식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어린이와 농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한국JTS와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건립하는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도 정세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에 앞서 조계종(10월 9일)과 종단협(10월 12일)은 논평을 내고 북 핵실험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사태와 상관없이 민간종교교류가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봉영 기자

여성개발원, 지도자 워크숍
'리더의 사명과 비전찾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0월 20~21일 코모도호텔 경주조선에서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21세기 불교의 희망, 여성리더의 사명과 비전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1 · 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들과 개발원 및 지원임원, 지역 불교여성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서일농원 견학을 시작으로 '2010 비전' 발표, 한국종교변동 현황 분석 보고, 박광서 교수(서강대 ·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의 강의, 그룹토론, 불국사 참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10 비전'은 △여성불자 지도자 양성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불교여성연구소 개소 등 2010년까지 실천할 불교여성개발원의 중점 사업을 담고 있다.

여성불자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불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0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á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á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BRASIL(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CEP01127-000-Sáo Paulo-Brasil
TEL : (55-11) 3337-5291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1강 : 도솔래의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 10월 11일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내마음 돌아보기

선혜보살, 중생의 고통을 살피다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팔상전(八相殿)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상'이란 글자는 '서로 상(相)'자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가지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모시는 법당을 팔상전이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팔상도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입니다.

도솔천은 삼계 중생세계에 속합니다. 중생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욕계에 육천이 있는데 육천중의 하나가 도솔천입니다. 그곳은 중생세계이지만 모두가 자비심을 가지고 공덕을 닦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공덕을 닦으셨습니다. 선행에 따라 선혜보살, 호명보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보살행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인간세계에 하생하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도솔래의라고 합니다.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만족을 알고 자비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선행을 닦으셔서 보살도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워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에서 '석가'는 '능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모니'는 '적묵'으로 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하는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침묵하지 못하는가하면 마음속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공덕을 다 지었고, 만족하여 스스로 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구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구하는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구하는 행위입니다. 평생을 구해도 또 구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구하는 게 감옥이고, 구하는 게 바로 지옥이며, 구하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구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고통은 형상과 시간에서 옵니다. 형상과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성불입니다. 생각해보면 즐거웠고 괴로웠던 일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이 지금 있느냐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연못을 보면 달 그림자 해 그림자가 있는데 연못 속에는 달과 해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지만 거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형상을 모르고, 또 시간이 없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길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상이라 하고 참선이라고도 하는데, 원리는 반조(返照)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미워 죽겠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돌이켜 보는 것이 약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깊어지면 점점 줄어듭니다. 아주 깊으면 허공과 같이 다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며느리를 보아도 밉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방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열린 광주 KT센터 대강당은 지역 스님과 불자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의 인사말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종범 스님의 강의로 막을 올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이어진다.

>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
> 만족함 모르면 삶은 끝없는 고통뿐
> 수행 통해 허망한 생각 줄여 나가야"

통도사 경봉 노스님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임종을 앞두고 죽겠다고 고함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병문안 갔습니다. 노스님이 가까이 오자 그 사람이 스님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야야, 참선해라. 참선!"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에게 참선하라고 하시다니….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참선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노스님이 너무 시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노스님이 옳았습니다. 참선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이 참선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보는 공부, 반조공부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을 돌아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생각 하나가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집니다. 기도를 잘하면 잘못된 생각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속느냐 하면 자기생각한테 평생 속습니다.

생각을 허공처럼 비우는 것을 도(道)닦는다고 합니다. 생각이 비워지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무한한 공덕을 무한히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면 하나도 많은 것이고, 억만 개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할 줄 알면서 구함없이 선행하는 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기만 했지 만족은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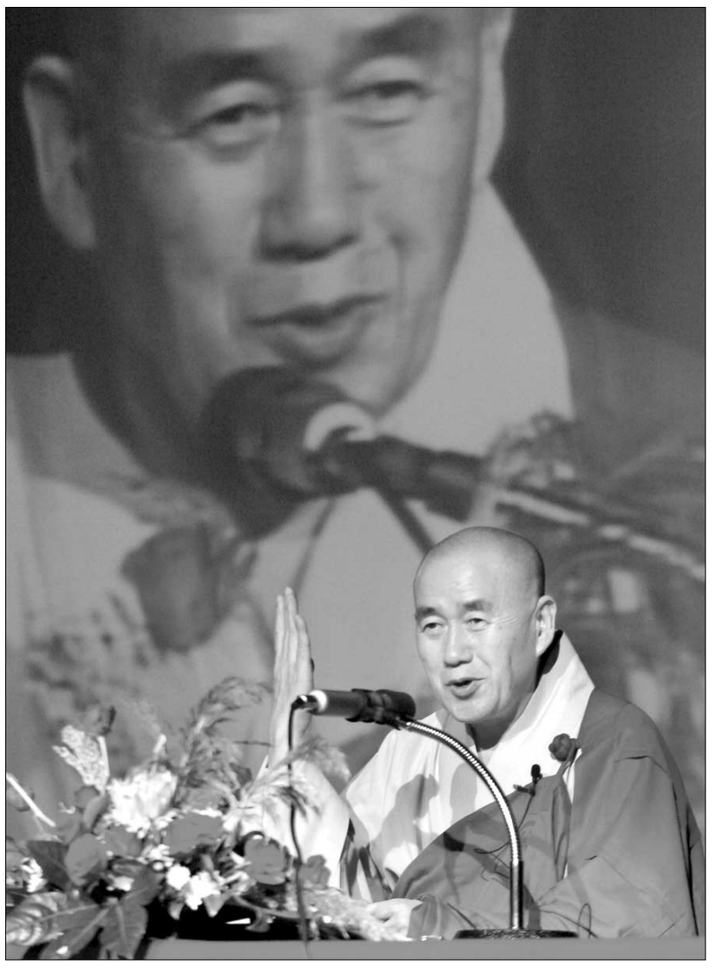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만족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면 고통이지만 죽음에 만족하면 고통이 아니라 열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느냐 만족하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이야기가 경전에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심과 발심입니다. 신심과 발심이 되어야 우리 생각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보세요. 다만 우리 스스로 허망된 생각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 참선, 독경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허망된 생각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늘 만족하며 공덕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공덕이 넓어져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종범 스님은 만족할 줄 알고 구하기만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삶이 성불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문 부처님의 원력을 받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 신심입니다. '고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통도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면 반드시 내가 이루고 내가 받는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인데 그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나 여러 가지에 원망을 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닦고 또 닦고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잘 닦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신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다. 여기에 신심을 계속 키워가는 정진이 중요합니다.

고통도 내가 만들었기에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어

제2강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10월 18일 광주 KT센터 (062)234-0090

통도사 창건 제1361주년 개산대재



646년 신라 대국통이자 겨레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건된 통도사는 천년의 佛香을 머금은 불보종찰로서 면면히 불지종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통도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역대조사의 외호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 9일 중양지절을 맞이하여 자장스님의 연고재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창사정신을 길이 전승하고 역대 큰스님들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의식과 다채로운 법회로 짜여진 개산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저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재식 : 2006년 10월 29일(일) 10:00

법요식 : 2006년 10월 30일(월) 10:30

문의처 - 만장, 만등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종무소 전 화 (055)382-7182

* 차량운행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앞 오전 08시~09시

개산대재 봉행 및 문화행사 일정

2006년 10월 29일(음력 9. 8)일요일

10 : 00 - 개산대재 및 영축사생대회 입재식 / 설법전
13 : 00 - 개산 1361주년 기념 제7회 부도헌다제 / 부도전
19 : 00 - 개산대재 기념 및 만등불사 점등 / 대웅전 앞

2006년 10월 30일(음력 9. 9)월요일

08 : 00 - 괘불헌괘 · 헌공 / 대웅전 앞 괘불대
09 : 00 - 불공의식 / 설법전
10 : 30 - 개산대재 법요식 / 설법전
11 : 00 -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 대웅전
11 : 30 - 재롱잔치 / 설법전
13 : 30 - 개산대재 기념 합창제 / 설법전
15 : 00 - 제16회 청원 안심사 괘불탱특별전 / 박물관



자장율사영정(해장보각봉안)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산옹지은 합장

"사불산 보호에 모든 방법 동원"

신현국 문경시장, 채석장 반대 투쟁위 · 주민에 약속

개발 땐 묘적암 등 피해 우려 … 철산 스님 등 단식 계속

신라고찰 윤필암 묘적암 등이 위치해 있는 경북 문경 사불산의 채석장 개발계획에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현국 문경시장이 주민들에게 "모든 법적수단과 행정조치를 동원해 사불산을 채석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구미 복우산 채석장 개발이 지난 9월 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어 문경 사불산 묘적암 500m 옆에 채석장 허가를 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결성된 소백산 사불산 채석장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철산)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은 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 그리고 주민의 참뜻이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10월 9일 문경시청을 방문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채석장 개발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12일에는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을 비롯한 문경불교계 스님과 신도, 사불산 인근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점촌역 앞 광장에 집결해 궐기대회를 갖고 시청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채석장개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뜨거운 가을 볕 아래서 2시간 30여분 동안 이어진 삼보일배 도중 묘적암 감원 일초 스님과 윤필암 비구니스님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본 신현국 문경시장은 주민들에게 "사불산 보호"를 약속했다. 철산 스님으로부터 사불산 채석장 개발 결사반대의 뜻이 담긴 성명서와 결의서, 진정서 및 서명자료 등을 건네받은 신 시장은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지역행정에 관심 가져준 지역민들의 귀한 말씀을 받아 아름다운 문경과 사불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채석장개발에 대한 모든 서류와 조건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책을 간구한 후 조만간 불허방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불교계 스님들과 대중이 10월 12일 사불산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며 점촌역에서 문경시청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채석장 개발로부터 불교성지를 지키기 위해 10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은 "신현국 시장의 약속을 믿는다"며 "문경시의 불허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단행하기로 결정했던 시청 앞 단식농성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 사불산 자락(호암리 산 142외 5필지)의 채석장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는 문경산업이 지난해 9월 문경시에 채석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문경산업은 주민들의 반대와 진정에 부딪쳐 신청서를 자진 반려했으나 이후 일부 주민들을 회유해 동의서를 얻은 후 2006년 2월 다시 문경시에 채석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문경시는 주민들과 스님 등의 반대진정과 자연경관의 보존 등을 위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문경산업은 문경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06년 4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8월 9일 문경시가 패소했다. 현재 문경산업측은 행정심판의 승소를 근거로 9월 19일 채석허가신청을 문경시에 접수하고, 허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철산 스님은 "현재도 금이 가 있는 고려시대 마애불이 채석장 발파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석산 개발을 위한 발파 때 일어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국보급 문화재의 손상 △소음 분진으로 인한 수행도량환경 훼손 △분진으로 인한 인근 잣나무와 소나무 고사 △지역주민들 건강에 유해 △국가의 자연보호정책에 위배되는 생태계 파괴와 사불산 지각변동 △묘적암 건축물의 손상위험 등을 이유로 사불산주변의 석산개발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시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벌이고 있다.

글 · 사진/문경=배지선 기자

선운사 범종 고별 타종 후 박물관에

범종각 · 범종 새로 조성, 9월 30일 타종법회 봉행

고창 도솔산에서 188년간 중생제도의 원력을 법계에 메아리쳐 온 선운사 범종(전북유형문화재 제31호)이 세월에 밀려 마지막 고별인사를 했다.

선운사(주지 범여)는 9월 30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몽산(대흥사 주지), 두백(백양사 주지), 도후(불교방송 이사장), 일면(군종교구 주지), 현각(연꽃마을 이사장) 스님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장세영 고창군의장 등 지역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사천왕문 2층에서 법음을 울리던 선운사 종은 5회에 걸친 고별타종과 함께 선운사 성보박물관으로 물러났다.

새로 조성한 범종 타종에 앞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마지막 종소리는 제행무상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며 "참 살림살이를 위해 항상 마음의 종도 함께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새롭게 18평 규모의 범종각을 마련하고 1500관 크기의 대종과 사물을 봉안하게 됐다"며 "모든 중생이 범종 소리를 듣고 불성을 깨우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준엽 기자

원목가공에서 책이 되기까지 …

해인사 27일부터 팔만대장경 축제 … 다양한 체험 가능

우리의 전통목판인쇄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06 합천 팔만대장경 축제'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팔만대장경축제는 국내 유일의 목판인쇄문화축제로 조선 초기(1398년) 대장경이 강화도에서 서울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옮겨진 역사적 사건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벽히 재현하는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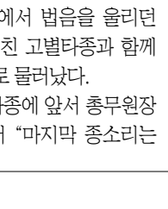
올해의 축제를 주최하는 합천 팔만대장경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현응, 심의조)는 "원목가공에서부터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재현한 목판인쇄문화체험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판화교실, 스텐프 판화찍기 등의 체험형 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유일의 목판문화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 최고의 판화작가 1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야외 판화전시회 '해인삼매'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청소년판각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새 본부장에 현지 스님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 생명나눔실천)는 10월 10일 광주아시아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현지 스님(사진 · 원효사 주지)을 제4대 본부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본부장으로 추대된 현지 스님은 "광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 특성을 살려 복지, 환경, 포교가 함께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지 스님은 1971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 원각사 주지, 광주불교 승보회장, 광주불교사암연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효사 주지,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광주 원각사 20일 가을음악회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20~21일 양일간 가수 이용 씨를 초청해 '원각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이용 씨를 비롯해 재즈악단, 황토제(국악실내악단) 등이 출연해 가을밤을 국악과 양악으로 수놓는다.

원각사는 또 음악회에 앞서 사찰 경내에서 '소설가 정찬주와의 만남'과 '장영일 서양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부산 금강선원 삼존불 점안

범어사포교원 금강선원(주지 성중)은 10월 11일 삼존불 점안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을 증명 법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지유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불교의 전부이며 이 마음은 찬 것을 차다고 알고, 뜨거운 것을 뜨거운 아는 바로 그 자리"라며 "그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금강선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100일째 되는 날마다 교계 대덕 스님을 초청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일요 가족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토요 참선법회를 열고 내년 3월에는 불교대학도 개설한다. (051)334-8113 천미희 기자

호국사 순직 병사 천도재

육군종합정비창 호국사(주지법사 서찬영)는 10월 11일 호국사신도회 주체로 지난 8월 교대 근무를 이동 중 순직한 병사 5명에 대한 천도재 및 호국 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육군종합정비창장인 이창권 준장을 비롯 송광사 부산분원 주지 지현 스님 등 군장병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사보 '혜원' 200호 발간

22일부터 백일장 등 축제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혜원정사 사보 <혜원> 200호 발간을 기념하며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혜원축제를 개최한다.

22일 오전 오후 1시 입재식을 갖고 축제의 막을 여는 혜원축제에서는 그동안 <혜원>지를 장식해온 표지 사진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혜원백일장도 개최된다.

10월 28일 토요일 열리는 혜원백일장은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홈페이지(www.bokhyewon.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051)868-0138 천미희 기자

대림선원 · 죽장사 군부대 위문

옥천 대림선원(주지 지원)과 죽장사(주지 명효)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37사단 호국충용사를 찾아 위문법회를 열고, 새로 입대한 훈련장병 100여명에게 수계했다. 법회 후에는 장병들에게 떡과 음료, 단주 등을 보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옥천경찰서 경승회는 옥천대대와 옥천경찰서 등에 떡을 전달하고 전의경들을 위문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타종교지도자 만나 재발방지 모색"

부산불교련, 기독청년부흥회 적극 대응 … 확대위 구성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 여여선원 법당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한 기독청년부흥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를 꾸리기 위해 긴급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상임부회장 혜총 스님을 비롯 60여명의 스님과 60여 명의 신행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범불교적 차원에서 이성적이되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뜻을 결집했다. 또 보다 확대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대책위원장으로 여여선원 주지 정여 스님을 추대했다.

정여 스님은 "기독교, 천주교의 지도자들과도 만나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도량

조계사 창건 기념 주간 안내 창건일 10월 24일[음력 9월 3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식 펼쳐지는 일곱색깔 음악회
일주일간의 음악여행(七日七音)

10월 22일 ~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

10월 22일 일요일	국악	오후1시
10월 23일 월요일	타악	오후 12시 20분
10월 24일 화요일	창작판소리	오후 1시
10월 25일 수요일	클래식	오후 12시 20분
10월 26일 목요일	해금	오후 12시 20분
10월 27일 금요일	재즈	오후 12시 20분
10월 28일 토요일	회화나무음악회	저녁 6시

늦은 가을 저녁 조계사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춤의 무대
회화나무 음악회

10월 28일(토) 저녁6시,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
출연 : 청소년 힙합 댄스 동아리, 조계사 합창단, 초청가수 등

조계사 시민선방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범주스님 초청 선묵화전

10월 13일 ~ 23일 (10월 13일 오후 1시 개막 퍼포먼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시장

조계사 불교대학 학생회 3000배 용맹정진

10월 21일 저녁 7시부터 10월 22일 새벽4시

가을걷이 대동한마당

10월 29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주변
조계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원도 양구의 다섯고개 마을지역민들과 함께 흥겨운 **축제**의 마당, **먹거리** 마당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매**가 진행됩니다.

문화체험마당

10월 22일 ~ 10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주변
불화작품전시 및 사불체험/서예 작품전시 및 경구 써주기
다도 시연 및 체험/요가 시연 및 생활동작 배우기
꽃꽂이 시연 및 꽃포장 배우기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호
부주지 성직

기획국장 성호
교무국장 성무
재무국장 응진
포교국장 덕본
호법국장 영선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 곡 사



주지 진각

대중일동

http://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전화 041)841-6221, 수련원 041)841-6226 / 팩스 041)841-6227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주 성타
주지 종상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부주지 무획
총무서기 교육
교재사 화보
포교문 기형
신도회장 변영우



– 부설기관 –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

금 산 사

회주 태공 월주
주지 벽산 원행
부주지 원광

총무 원혜
기획 덕산
교무 대명
재무 도안
사회 석문
호법 원성
포교 덕림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E-mail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실 월운 해룡
회주 밀운 부림
주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무 혜종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현봉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초격 포교국장 지학 사무장 이희준(법운)
교무 도암 호법국장 연흠 회계 권정태(묘성화)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산
총무 서덕재

신도회장 김정길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11월 3일 / 대구 오페라 하우스
사랑과 효, 그리고 절대감동!!
공연문의 및 예약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봉사경력 15년 등록시간 4800시간

“누굴 위한 일 아니라 나를 찾는 일”

‘봉사 보살’ 심귀남 씨의 하루



무르익은 사랑이 그의 손끝에서 나온다.

10월 12일 오전 시립동부병원 물품정리실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연화회와 함께 환자복을 정리하고 있는 심귀남(사진 왼쪽)씨. 예순을 넘긴 나이지만 누구보다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0월 10일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회관에서 쑥뜸봉사를 하는 심귀남씨. “다년간 하다보니 이제는 어디에 뜸을 떠야 하는지 훤히 안다”고 말한다.



목요일 오후마다 하는 노숙인 쉼터 서계 보현의 집 급식봉사. 부엌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자원봉사 스케줄로 꽉찬 일주일

병원으로 복지관으로 양로원으로

월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심귀남(65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씨는 서울 경희의료원으로 향한다. 매주 월요일 이곳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보조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이다. 안내데스크는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몰려든 환자들로 벌써부터 북적거린다. 외래환자들의 진료카드와 보험처리업무 등을 돕고 나니 순식간에 반나절이 지나간다.

화 화요일 오전 10시. 오늘 심씨가 찾은 곳은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회관이다. 4명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곳 주간보호센터에 몸을 위탁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뜸 · 부황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중계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것도 어느새 5년. 벌써 물리치료실 입구에는 심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팬(?)들이 몰려있다. “어여 와. 그동안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었더니 여기저기 얼마나 아프던지. 심선생 생각이 많이 났지.”

심씨는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연휴동안 잘 계셨어요?”라고 물으며 능숙하게 쑥뜸을 뜰 준비를 한다. 곧 향긋한 쑥 향기가 물리치료실 안에 진동한다.

매주 만나는 얼굴이다 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몸 상태까지 훤히 꿰고 있다. 이 할아버지는 팔 관절이 결리고, 저 할머니는 머리가 아프고….

중풍을 앓는 김성태(71) 할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처음 심씨를 만났을 때는 중풍 때문에 손가락 한 마디도 못 움직이던 김 할아버지는, 몇 차례 뜸봉사를 받은 뒤 기적같이 손가락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혼자 힘으로 숟가락을 쥐게 된 할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받은 이는 물론 심씨였다.

목 목요일. 심귀남씨는 아침이 밝기 무섭게 집을 나선다. 오늘 향하는 곳은 시립동부병원이다. 200여 개의 병상에서 나오는 환자복과 시트, 이불을 정리하고 깨끗이 다려진 환자복을 병실로 배달하는 일을 오전 내내 한다. 물론 무급봉사다. 잠깐 숨을 돌리며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잠시, 오후 2시에는 다시 용산구 서계동으로 향한다. 노숙인 쉼터인 서계 보현의 집으로 가 노숙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다.

토 봉사는 주말에도 계속된다.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고스란히 급식봉사로 보낸다. 뿐만 아니다. 한 달에 한 차례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따로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 양로원에서 청소와 목욕봉사를 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는 불교여성개발원 회지발송 작업을 무보수로 돕는다.

재해현장 전국 어디든 달려간다

자원봉사팀의 영원한 맏언니

심귀남씨는 틈날 때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행사도 지원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방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재해대책기구를 파견했을 때도 함께 갔고,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에 산불이 나자 그 현장으로도 급히 달려갔다.

올해 월정사 인근지역에 수해피해가 나자 긴급재난구호 봉사단원으로 참여해 이틀을 평창에서 보냈다.

죽음문턱에서 세운 봉사 원력

봉사의 참맛은 사람 만나는 기쁨

그야말로 전방위 봉사다.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본인이 예순을 넘겼으니 쉬 피곤할 만도 하고 도리어 봉사를 받을 나이이건만, 심씨는 ‘힘들기는커녕 봉사로 삶의 활력을 느낀다’며 “봉사의 참맛은 사람 만나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도와드릴 분이 있다는 것이 더없이 고맙죠. 그간 만난 분들의 삶이 바뀔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쉬고 싶지 않냐구요? 천만에요. 아직 이렇게 몸이 튼튼한 걸요. 몇 년이고 더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경력만 15년. 199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이 창립된 이후로는 재단에 등록해 현재까지 자원봉사단 소속 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다.

재단에 등록된 봉사활동 시간만도 4천8백시간에 이른다. 공식적인 봉사활동 기록은 다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식사보조, 목욕수발, 청소, 세탁, 간병, 이미용, 경락, 뜸, 부황, 발반사요법 봉사 등 안 해본 봉사가 없다.

5년째 심씨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단 연화회 팀장 윤문자씨는 “보살님은 자원봉사팀의 맏언니”라며 “젊은 봉사자들에게는 없는 여유와 배려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고, 항상 ‘아우님들, 우리 함께 봉사가야지’라며 이끄는 우리 팀의 ‘꽃’”이라고 자랑했다.

봉사의 참맛은 사람 만나는 기쁨

심씨의 열정적인 봉사활동은 불교신행과 연륜을 같이 한다. 무교였던 심씨는 15년 전 불교에 귀의하면서 서울 조계사 신도로 등록했고, 이후 조계사 만발식당봉사, 초파일 인등접수봉사 등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익히기 시작했다. 관심조차 없던 봉사활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6년 심씨는 돌연 병상에 눕게 됐다. 참기 힘든 복통을 느끼고 쓰러진 심씨에게 병원측은 ‘비장이 파열됐다’며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정을 내렸다.

죽음 앞에서 심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심씨는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불구덩이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꿈을 꿨다. ‘나는 아직 안 죽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심씨가 빠르게 병세를 회복하자 남편도 ‘부처님이 구해주셨다’고 기뻐하며 그 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심씨를 조계사로 데려다주며 같이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

이 일로 심씨는 봉사에 ‘원력’을 세우게 됐다. 병상에서 회복하자마자 아픈 몸을 부여잡고 바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부처님이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설한 이유를 알았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일입니다. 15년 봉사하며 느낀 게 있다면, 절을 하건 불사를 하건 자원봉사활동을 하건 결국은 똑같이 공덕을 짓고 선업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심씨는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했던 내가 봉사를 하면서 10년이 넘게 살아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봉사가 바로 신행이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믿는 심귀남씨는 오늘도 이웃을 돕기 위해 집을 나선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응품 안전 인정 : HH07236-5004A호
• 전자파 장해실험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닥터사입니다.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山家교수 발표기사) 발췌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 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열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를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온역할 밖에는 안되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 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이 들어간다.(췌장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常溫(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뺏기게 된다.	常溫(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음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넣는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각 사찰에 모든 행사 장엄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집전위주교육 6개월
위치: 부산 온천동
051)516-5691
017-556-5691

천연고불마애석불 (문 화 재)
현재 사용중인 사유지
2천평에서 불교문화를
꽃피울 법연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세요 -선학원-
011-829-9153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 24기 풍수지리 사주학교육생모집
● 강사: 임창열(배재대, 서라벌대출강)
● 풍수지리: 매주 화, 금(10시, 14시 ,19 시)
● 사주학: 매주 월, 목 (10시, 14시 ,19시)
http://www.kpse.co.kr
042)255-8482
011-437-8807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

명리 6개월 무료강의
2기생 모집
현재 1기생 15명이
용맹정진하고 있음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조상 천도재 무료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단 준비물만 해오십시오)
건강상담 및 팔상체질감별 무료
031)834-3207,833-6803
017-288-6863/010-4860-6863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
010-7747-5222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사찰운영중
010-9443-7881

오쇼라즈니쉬명상
다이나믹 춤 명상 등
다양한 오쇼 라즈니쉬 명상
특강: 위빠사나 명상
지도강사 지천스님
053)638-9290

경 전 공 부
과목: 전수, 반야, 미타, 금강, 법화 .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041) 662-9489
011-9937-7667
반 야 암 주 합 장

법화경 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 교 해 동 대 학 원

변비,숙변,잔변,아랫배
이제 걱정마세요(설사제 절대아님)
절에서 내려오는 비법 스님께 전수 받음
1주일(1만) 체험후 결정하여 드십시오
지독한 천식(가래, 기침) 해결방법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명고보살합장
011-9562-1235

행 자 모 집
● 입산수행하여 정법을 받아 포교생활에 뜻있는 남 행자를 구합니다.
● 신심있는 처사님을 모십니다
011-324-5103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 용맹 정진할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보살님
(58세이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80만원
지역: 부산 /60세 이하
010-7387-7733

구합니다
처사님 00명
보살님 00명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사찰-강원도 지역
011-9571-6479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대둔산 깊은 골짜기 조용한 토굴 구입하실 분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281
017-410-1678

천하 명필 천자문
태양 시집
사군자 -매화, 난초,국화, 대나무
한글 판매 , 할부 가능
붓글씨
016-478-5545

대구 도심 불교 대학에서 부전 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재적승려)
010-2800-4962

비구 부전스님 구합니다
▷원주시 백운산 운계사
033)763-6355, 635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1-9778-0408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여직원 구합니다
나이제한 없음/숙식가능
054)371-0101
011-378-22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울산시내
052)275-0829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노년을 서로 의지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남은 여생 건강하고 즐거운 실버생활을 활력있게 살 수 있는 분. 생활능력은 기본 이 세상다할때까지 동반자의 배필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당사자 女 60여세 자녀 無 위선과 사기성 전화는 사절
010-4789-898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비구 부전 스님 모십니다
051)635-3744

참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한 평생 좋은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실 분
공양주 우대함,
인심좋은 경주
닭띠 환영, 연락주세요
054)775-8880

서울 산사 영험있는 암자에서 기도하실 비구, 비구니 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11-306-35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1-9469-6625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28숙과 방위술
● 방위술과 28숙을 정확하게 쓰는방법을 1:1로 쉽게 일러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비구니 스님
부전스님
구합니다
042)2721-6249
011-591-8228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입구
02)387-3216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음력 9월 9일 영가천도기도
횡사액난으로 죽은 영가천도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을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철야용맹정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대 행 : 각 암 대종사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 정 원 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특별기획

‘믿음과 원력’

A10 나의 ‘믿음 · 원력’ 몇점?
A11 믿음이 있는 삶 원력이 있는 삶
A12 내가 개종한 이유
A13 개종-포교보다 급한 숙제
A15 역사 속 원력 보살-균여 스님

번뇌 벗고 지혜 얻는 삶의 동력



세상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다. 각각의 종교는 문화와 역사가 다른 환경에서 발생했고, 종교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종교의 정의란 없다. 다만 각기의 종교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종교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사문제를 다룬다. 생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요, 회피할 방법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에 따른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다시 말해 불교는 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몸소 해결하고 니르바나(涅槃)의 평화롭고 걸림 없는 삶을 사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자는 부처님이 누렸던 그 니르바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체험하고자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다.

따라서 모든 불자들에게 최상의 목표는 니르바나의 체험이다. 불교공부는 궁극적으로 니르바나의 체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거기에는 바른 믿음과 투철한 원력이 요구된다.

어찌하여 바른 믿음인가?

의심할 건 의심해보고 바른 인식을

믿음에는 미신(迷信)이 있고, 정신(正信)이 있으며, 맹신(盲信)이나 광신(狂信)도 있으며, 신앙(信仰)이 있는가 하면 신해(信解)가 있다. 불교의 바른 믿음은 신해(信解)이다. 이 믿음을 원효 스님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라 했다.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자면 먼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납득도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신앙일 뿐 신해가 아니다.

신앙은 계시종교의 믿음으로, 거기에는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인간이성이 개입할 여지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오로지 복종하는 것만이 있을 뿐 인간의 이성으로 의심하고 따져보는 일 따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의 믿음은 계시종교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 불교에서는 전혀 의심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자세를 어리석음이라 하며, 우리의 밝고 순수한 본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삼독(三毒) 가운데 하나요, 악의 뿌리라고 본다. 조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일 뿐 깨달음의 길도 아니고 니르바나로 인도하지도 않는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니르바나는 신해를 통해 증득되는 것이지 신앙이나 맹신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나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보고나서 옳다고 생각되거든 받아들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유행경>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다섯 가지 보배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의 설법을 신해(信解)하는 사람을 들었고, <대반열반경>에서는 신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명(無明)이 증장하고, 지혜는 있으나 신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사견(邪見)만 증장한다고 했다. 대소승 경전이 모두 신해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믿음은 의심할 것은 의심해보고 더 이상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서 확실히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인식(認識)이다. 조금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으므로 바른 인식으로써 바른 믿음은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행이다.

의심스러운 점들을 충분히 의심해 보고 난 믿음이므로 불교에는 맹신이 있을 수 없고 광신도 있을 수 없다. 무명으로 전락하지도 않고, 사견으로 치닫지도 않는 바른 믿음이기에 믿음은 바른 인식이어야 하고, 믿음은 신념에 가득 찬 행동을 이끌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신행정진(信行精進)이요 여법신행(如法信行)이다.

그런데 이따금 불교의 믿음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전들이 하나같이 신학적 입장에서 종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불교이어야지 불교의 신학화(神學化)는 있을 수 없다. 불교의 신학화야말로 불교왜곡의 극치요, 오늘 이 땅의 불교가 극복해야 할 위기이기도 하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고 니르바나를 체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처럼 무량한 공덕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불교의 바른 믿음이다. 불교의 바른 믿음은 결국 자신에 대한 신뢰이지 나 밖의 어떤 대상을 절대화하고 의탁하거나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굳건한 원력이란 어떤 것인가?

실천하지 않는 원(願)은 허망할 뿐

원(願)이란 말의 범어는 ‘쁘라니다나’인데, 여기에는 목표를 향해 온 정신을 쏟는 집중력으로 마치 대지가 새싹을 밀어내고, 나뭇가지가 새잎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주체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가는 굳은 의지인 이 힘은 불자에게 있어서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이상을 현실화하는 내적 원동력이다.

이 힘은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를 체험하는 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분출되어야 하므로 비장한 각오이기에 비원(悲願)이며, 자칫 나태해지거나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향해 스스로 채찍을 가하게 되므로 서원(誓願)이다. 불자가 세우는 원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이웃과 사회 나아가 모든 생명을 품안에 안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깊고 넓다고 하여 대원해(大願海)라 한다.

<덕광태자경>에 “말로만 원을 세운다고 보살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천태대사는 “보살의 길은 원행상부(願行相扶)”라고 했다. 원은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행동은 원을 떠받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천되지 않는 원은 몽상에 지나지 않으니 결국 허망할 뿐이요, 원이 없는 실천은 자칫 방황이기 쉬우니 갈등을 불러온다.

그가 얼마나 성숙한 불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의 원력이 얼마나 사회적이며, 자신이 세운 원력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불자의 원이 아름다울 수 있고, 불자의 삶이 돋보일 수 있는 길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원을 넘어서 사회와 온 생명을 나의 따뜻한 가슴으로 안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

불자가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향상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고, 원력이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불자에게 믿음은 밝은 이성이 전제된 인식이고, 원력은 실천이 전제되어 있는 밝은 꿈이요 희망이다. 이성이 병든 믿음은 맹목이 되어 미신이나 맹신 나아가 광신을 초래할 뿐이고,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꿈은 망상일 뿐이다.

불교는 믿음만의 종교가 아니다. 또한 깨달음이 없는 불교는 불교학에 지나지 않는다. 니르바나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탐구하는 불교학은 생명력이 없는 지식의 축적일 뿐이다.

생사를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그가 생사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심리현상을 이론적으로 잘 분석하고 이해했다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생명의 약동이며, 온갖 희로애락이 함께 어우러져 흘러가는 세찬 물결과도 같다.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는 이 역동적인 생의 실상을 깊이 통찰하고 매순간 맞부딪치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주눅이 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며 유유자적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바로 불교다, 이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바른 믿음과 원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열 스님(강남포교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순국선열 및 유주무주 고혼 천도제
◆ 일 시 : 200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립현충원 ◆ 문 의 : 실상선원 02)745-8503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무탁 혜일 원행
총 무 곽동훈

대중일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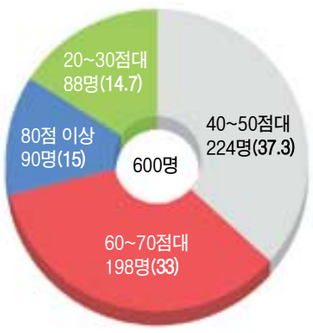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64%

"전법하겠다" 60% … "가피 믿는다" 노년층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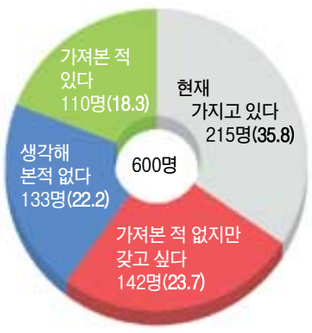
교리·수행 등 체계적인 지도 필요성 보여줘

불자의 삶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원력'.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니, 길이 일체 선법(善法)을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믿음이 확고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이 없다면 엔진 없는 배처럼 망망대해를 떠다닐 수도 있다. 전국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600명이 스스로 점검한 '믿음과 원력 지수'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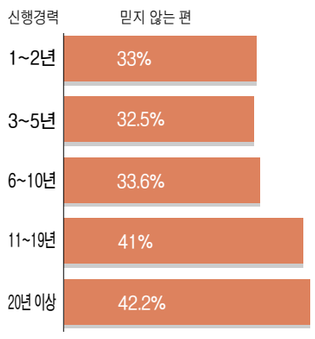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단위:%)



원력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단위:%)



인과 및 윤회를 믿습니까?



응답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엄격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40~50점(37.3%, 224명)대'를 꼽았다. '20~30점대'에도 14.7%(88명)가 답했다. '60~70점대'에 점수를 준 사람은 33.3%(198명), '80점 이상'의 점수를 준 사람은 15.0%(90명)였다.

이 같은 평가는 믿음과 신행 일치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자신의 믿음과 신행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일치 하지 않은 편이다(40.5%, 243명)'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치하지 않는다'란 응답도 7.8%(47명)나 됐다. '일치하는 편이다'와 '일치한다'는 각각 38.2%(229명)와 13.5%(81명)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편'이 35.7%(214명)였다. '확신한다'는 대답도 18.3%(110명)나 됐다. 하지만 '믿지 않는 편'도 34.0%(204명)나 됐다. 아예 '안 믿는다'라는 대답도 12.0%(72명)나 나왔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교리적 수행적 교육 방법이 모색돼야 함을 시사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처님 가피력을 믿고 있었고, 10명 중 8명은 수행을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44.3%(266명)가 부처님 가피력을 '믿는다'라고 대답했고, '믿는 편'이라는 사람도 18.7%(112명) 정도 있었다. '믿지 않는 편'과 '안 믿는다'는 대답은 각각 11.3%(68명)와 25.7%(154명)였다.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3.7%(262명)였으며, '믿는 편'이라는 대답도 20.3%(122명)로 나왔다. 하지만 수행을 열심히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람도 26.0%(156명)나 됐다. '믿지 않는 편' 또한 10.0%(60명).

인과와 윤회를 믿는 질문에 41.8%(251명)가 '믿는다'라고 대답했고, '믿는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1.2%(127명)로 나왔다.

하지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인과와 윤회를 믿지 않았다. '안 믿는다'는 25.2%(151명), '믿지 않는 편'은 11.8%(71명).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타인에게 믿음을 권유(전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33.2%(199명).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도 26.8%(161명). 이에 비해 21.5%(129명)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으며, 18.5%(111명)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불자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원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교적 불교공부에 열심인 불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염려스러운 수치다. '현재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은 35.8%(215명)에 불과했다. '가져본 적 있다'는 18.3%(110명), '가져본 적 없지만 갖고 싶다'는 23.7%(142명).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는 대답도 22.2%(133명)나 됐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절반 이상은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11%(67명)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었고, 45%(270명)는 '노력하는 편'이었다. 이에 비해 34%(205명)는 '노력하지 않는 편'이었고, 10.0%(58명)는 거의 노력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원력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믿는다'는 39%(234명), '믿는 편이다'는 23.8%(143명). '믿지 않는 편'은 14.3%(86명), '안 믿는다'는 22.8%(137명)였다.

설문 교차분석 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0~30대' 젊은층 '남자'들의 믿음이 약했다. 이들은 믿음과 신행 일치도 또한 낮았다.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졸과 고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각각 58.4%와 59.1%가 '확신한다' 또는 '믿는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49.6%와 3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처님 가피력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는 각각 29.4%와 40.0%가 '믿는다' 또는 '믿는 편이다'라고 답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4.8%와 68.7%의 수치를 보였다.

남자의 57.9%가 인과 및 윤회를 믿었지만, 같은 항목에서 여자는 65%의 믿음 지수를 나타냈다.

한편 불교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부처님 가피력'과 '인과 및 윤회'를 믿는 지수가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신행경력 1~2년은 32.3%가 부처님 가피력을 '믿지 않는 편이다' 또는 '안 믿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3~5년은 33.3%, 6~10년은 34.4%, 11~19년은 42.0%%, 20년 이상은 42.9% 등 신행경력이 많을수록 부처님 가피력을 믿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과 및 윤회를 믿는 질문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신행경력 1~2년은 33.0%가 '믿지 않는 편이다' 또는 '안 믿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3~5년은 32.5%, 6~10년은 33.6%, 11~19년은 41.0%, 20년 이상은 42.2%가 같은 대답을 했다.

이와 관련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발심자의 경우 보다 열정적인 구도의 마음으로 불교에 접근하는 반면, 신행경력 오래된 불자일수록 경험적인 근거에서 이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팀장은 "신행경력이 오래된 불자는 불교를 신앙이나 신행의 관점보다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명우·남동우·김철우·이은비 기자

'본래 부처' 믿는가? '믿지 않는다' 46%

인과 윤회에 대한 믿음은 여성이 높아

20~30대 남자, 믿음·신행 일치도 낮아

'믿음과 원력' 자가 점검표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2주년 특집으로 불자의 삶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원력'에 대해 자가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수치는 전국의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불자 600명의 응답을 종합한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이 표를 참조해 믿음과 원력 지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①남 164명(27.3%) ②여 436명(72.7%)

2. 나이는?
①20대 17명(2.8%) ②30대 60명(10.0%) ③40대 233명(38.8%) ④50대 207명(34.5%) ⑤60대 이상 83명(13.8%)

3. 학력은?
①중졸 65명(10.8%) ②고졸 247명(41.2%) ③대졸 260명(43.3%) ④대학원 재학 이상 28명(4.7%)

4. 불교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①1~2년 127명(21.2%) ②3~5년 114명(19.0%) ③6~10년 119명(19.8%) ④11~19년 100명(16.7%) ⑤20년 이상 140명(23.3%)

점검 사항	4점	3점	2점	1점
원력(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마음의 힘)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다 215명(35.8%)	가져본 적 있다 110명(18.3%)	가져본 적 없지만 갖고 싶다 142명(23.7%)	생각해 본적 없다 133명(22.2%)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우 노력한다 67명(11%)	노력하는 편이다 270명(45%)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205명(34%)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58명(10.0%)
원력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 234명(39.0%)	믿는 편이다 143명(23.8%)	믿지 않는 편이다 86명(14.3%)	안 믿는다 137명(22.8%)
내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한다 110명(18.3%)	믿는 편이다 214명(35.7%)	믿지 않는 편이다 204명(34.0%)	안 믿는다 72명(12.0%)
부처님 가피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는다 266명(44.3%)	믿는 편이다 112명(18.7%)	믿지 않는 편이다 68명(11.3%)	안 믿는다 154명(25.7%)
수행을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는다 262명(43.7%)	믿는 편이다 122명(20.3%)	믿지 않는 편이다 60명(10.0%)	안 믿는다 156명(26.0%)
인과 및 윤회를 믿습니까?	믿는다 251명(41.8%)	믿는 편이다 127명(21.2%)	믿지 않는 편이다 71명(11.8%)	안 믿는다 151명(25.2%)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타인에게 믿음을 권유(전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199명(33.2%)	할 수 있을 것 같다 161명(26.8%)	할 수 없을 것 같다 129명(21.5%)	할 수 없다 111명(18.5%)
자신의 믿음과 신행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치한다 81명(13.5%)	일치 하는 편이다 229명(38.2%)	일치 하지 않는 편이다 243명(40.5%)	일치하지 않는다 47명(7.8%)
스스로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	80점 이상 90명(15.0%)	60점 이상 198명(33.0%)	40점 이상 224명(37.3%)	20점 이상 88명(14.7%)
소 계				

*30점 이상이면 '우수', 29~20점이면 '보통', 20점 미만이면 '분발'입니다.

도움말 주신 분 : 허운 스님(대구 동화사 주지), 종호 스님(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김성철(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박수호(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대산 적멸보궁 중대 사자암에 5백 문수동자와 5백 문수보살을 모시는 불사를 하였습니다.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신 불보살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불사내내 마음을 주신 월정사의 원로대덕스님들,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모 허길량 합장

암 선고 받고 불교환경운동 더 매진

'불교 · 생태 · 방송'을 평생 화두로
'1천 사찰' 원력 … 현재 602곳 참배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현재 2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의 얼굴에는 늘 생동감이 가득하기만 하다.

1990년대초 '생태'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불교계에서 '나홀로 환경운동'을 벌여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57). 이 땅의 사찰과 산으로 강과 바다로, 털털거리는 고물차도 없이 두 발로 그렇게 자연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가 지금 아프다. 2002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도 완쾌를 위해 도전했던 그였지만, 병이 다시 도졌다. 2차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 버렸다. 암이 재발할 정도로 몸이 상한 까닭은 뭘까?

9월 22일, 서울 가회동 사단법인 보리 사무실. 스무 해 넘게 이끈 방송모니터팀 정기토론에서 그는 가쁜 숨을 가누며 3시간 내내 부지런히 말품을 팔았다. "제발, 쉬엄쉬엄하시라"며 모니터팀 간사가 간곡하게 말려도 소용없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남의 잘못을 짚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수행과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아플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은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운동가다. 20여년 넘게 사찰생태 보존활동과 방송모니터 모임을 이끌어오다 병에 걸렸지만, 그는 여전히 '불교' '생태' '방송'이란 삶의 3가지 화두를 움켜쥐고 있었다.

"은사였던 광덕 스님은 제게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한 보현행원은 단연 원왕(願王)'이라 하셨죠.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행원을 세우란 그 말씀이 지금 제 믿음의 밑천이 됐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서도 10년을 기약하는 '108사찰 자연생태기행' 원력을 세우고 본지 32면에 격주연재하고 있다. 4대 종교 가운데 처음으로 언론감시 법인체인 사단법인 보리도 출범시켰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역설적으로 다시 출가하는 기분이었지요. 아예 새롭게 '부처님과 은사스님에게 보은을 제대로 해봐야 겠다'는 서원이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제 삶의 화두들을 머리로 짐작해 알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발과 몸으로 걷고 부딪치면서 믿음과 원력을 키워갔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폐암 선고, 그럼에도 그는 보름에 한 번씩 찾아 간 사찰에서 이틀 밤을 보냈다. '108사찰생태기행' 대상 산사 가운데, 현재 62곳의 탐사를 마쳤고, 그간 써온 기행보고서는 200자 원고지로 무려 4200매가 넘는다. 또 사찰 곳곳을 담은 현장자료사진은 3천여 컷이나 된다. 또 방송감시활동에서도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냈다. MBC의 불법 선교프로그램인 '행복으로의 초대'를 중단시킨 일부터 '주일(主日)'이란 종교용어의 방송광고 사용 금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바른 방송을 통한 호법활동을 펼쳐왔다.

하나의 길도 가기 힘든 법인데 세 갈래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재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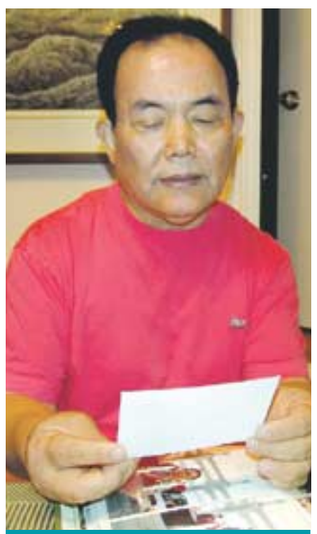
김 소장은 요즘 필생의 원력을 회향하고자 아픈 몸을 지독하게 다잡고 있다. 그것은 '전국 1천 사찰 참배하기'. 1998년부터 시작한 이 원력은 마음속에 1천분의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602곳의 사찰을 발품 팔아 찾아갔다.

"앞으로 마음에 모실 부처님이 많습니다. 못 생긴 나무가 끝내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처럼 우직하게 원력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글 · 사진=김철우 기자

"부대 내 폐사지 복원·통일탑 건립" 願

군포교 40년, 장병들에 늘 '기도하라' 권유
JSA내 유일한 군법당 '영수사' 개원



이재성 거사

군포교에 평생을 바친 이재성 거사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장병들의 이름과 소속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올해 나이 일흔 둘. 불자 군인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성 거사는 여전히 '현역'이다.

20대에 이미 군복무를 마쳤지만, 오늘도 전국 곳곳의 군법당을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40여년간 얼마나 많은 군법당을 다녔는지 그 자신조차 헤어리지 못할 정도로 군포교 열정은 뜨겁다.

국군의 날을 앞둔 9월 29일 만났을 때도, 이 거사는 부지런히 다음 위문계획을 잡고 있었다. 전국의 각 부대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어느 부대 먼저 찾을까' 고민하는 그의 얼굴에서 군포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장병들은 맛있는 간식거리가 먹고 싶어지면 한 번씩 저한테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옵니다. 그렇게 인연 맺은 청년들이 불자가 되어 저를 따를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처음은 소박했다. 음식을 싸들고 찾아가기만 했다. 하지만 군위문 횟수가 늘어갈수록 장병들이 고민상담을 해올 때마다 부처님 법을 들려줬고, 군법당으로 이끌며 '절하고 기도하라'고 다독거렸다. 또 군법당이 없는 부대에는 도량을 만들도록 설득하고 주머니를 털어 불사기금을 마련했다.

특히 이 거사가 정성을 쏟은 것은 최전방의 군법당들. 지난 2004년 12월 18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JSA경비대대(캠프 보니파스) 내에 개원한 군법당 '영수사'도 이렇게 탄생했다. 미군이 주둔한 까닭에 교회만 있던 JSA경비대대 내에 비로소 군법당이 생긴 것.

이 거사는 경비대대가 2004년 국군에 이양된다는 정보를 듣고 2002년부터 국방부와 군종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끝에 '50여평의 막사를 군법당으로 사용하라'는 허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작지만 큰 결실이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사찰이 전쟁으로 불에 타고, 동포와 총부리를 겨누며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때 부처님을 만났고 매달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에 기대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나니, 이제는 제 뒤에 남을 젊은이들이 생각나더군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어도 법당이 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부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때부터 '군법당을 많이 세우는 일'을 평생의 원력으로 세웠습니다."

JSA 내에 영수사가 자리잡으면서 그 원력도 이제 한시름 놓을만하건만 이 거사는 다시 새로운 원력을 세웠다. 폐사지를 군법당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 거사는 "전란에 소실돼 폐사지로 남은 파주 도라산 영수암(永守菴)을 복원하는 일이 여생의 원력"이라며 "최전방 군부대 내의 폐사지를 복원불사해 통일기원 대탑을 세우고 싶다"고 굳게 말했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사각지대'서 포교원력 실천하는 단체들

ㅇ…"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산철교 보수 공사 당시 을지로3가에서 홍대입구까지 한동안 지하철을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하철에 걸린 '자비의 말씀'을 읽고 저의 업을 알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 무임승차비를 포함한 얼마간의 돈을 보냅니다…."

지난 2002년, 한 시민의 참회편지가 서울지하철 을지로3가 역장에게 배달됐다. 편지봉투 안에는 그동안 무임승차한 비용을 내고 남을 돈도 들어있었다. "여분의 돈은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더 붙이는데 써 달라"는 말과 함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 일반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도 재미있게 전하려고 지난 1999년 창립했다.

풍경소리 | 원심회 | 동국역경원



전국 지하철역사에 '자비의 말씀' 설치 | 수화교육 · 점자 도서 발간 등에 앞장 | 한글대장경 이어 인터넷 불사 '비지땀'

풍경소리는 초창기에 서울지하철공사 115개 역사를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전국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게시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지금은 전국 639개의 지하철과 철도역에서 1915개에 이르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지하철 포교'를 회향한 풍경소리. 하지만 그간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자비의 말씀' 사업을 시작한 지 수 개월만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 게시판이 늘어나자 게시판 운영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한 개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비용은 다달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관리비를 후원하겠다는 사찰이 없어 매달 400여만원의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후 포교기금 마련 모금행사와 전시회 등으로 어렵게 위기를 넘긴 풍경소리는 2001년 세계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운행하고 매년 소아암환우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영역을 넓혀가며 군부대 · 학교 · 병원 등으로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서울 조계사 교육관 지하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봉행한다. 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공간이지만, 장애인불자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소중한 법당이다.

1988년 수화교육을 받던 불자들이 모여 '장애인에게도 불법을 널리 알리자'는 원력으로 자원봉사단체를 발족한 원심회. 당시 이웃 종교계는 장애인 선교에 열심이었으나 불교계에는 장애인 포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한 원심회는 연중 내내 수화교육을 지도하고 수화강사를 파견하면서 불교계의 유일무이한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1997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불교자막 비디오테이프 600개를 제작해 무료보급했으며 1998년에는 <법화경>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도 발간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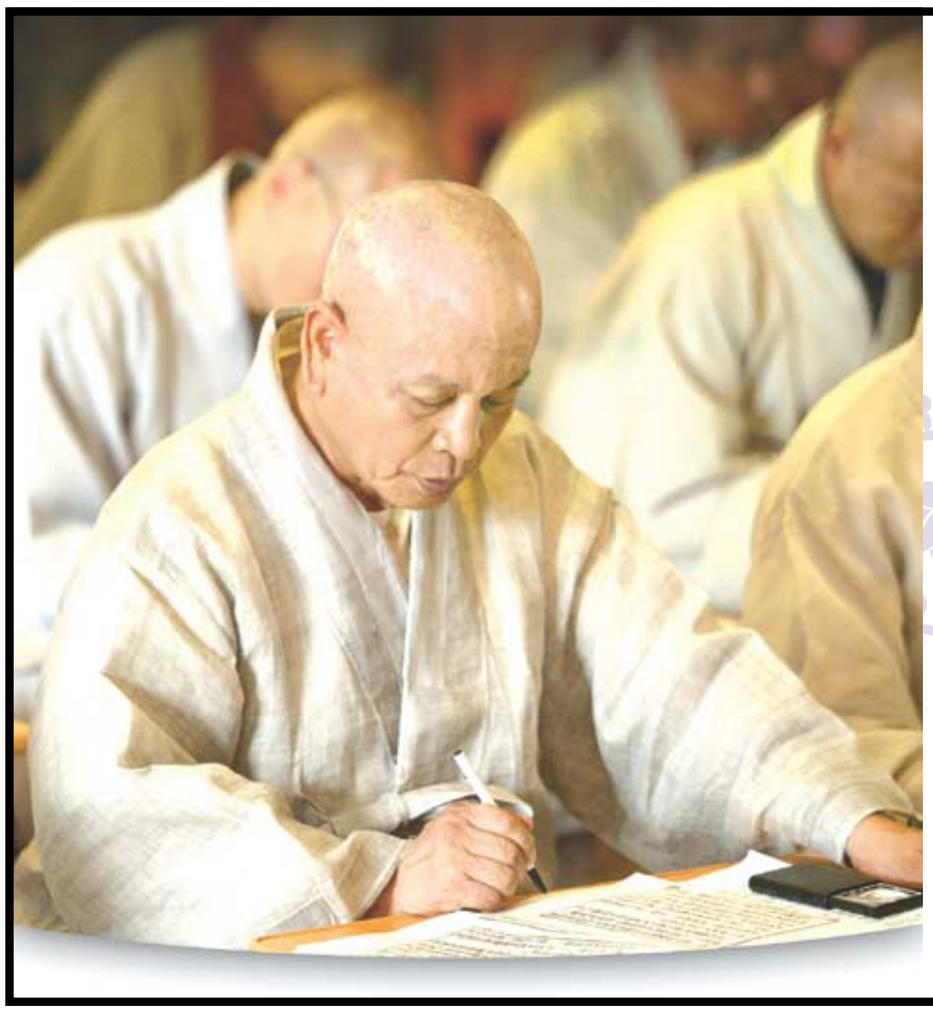
그간 배출한 수강생만 1천여명이 넘는다. 또 최근 수화찬불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점자부 경전번역을 계속하는 등 수화포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ㅇ…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사업에만 꼬박 42년 한 길을 걸어온 동국역경원(원장 월운)도 포교원력을 실천해 온 단체. 그야말로 우리시대의 구마라집이라 부를 만하다. 1964년 운허 스님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후 2001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대장경 318권을 책으로 완역해냈다. 이는 100여명의 역경위원과 후원회원들의 원력이 맺은 결실이다.

한권의 한글대장경 제작에 3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사업이었다. 전체 경비 가운데 60%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며 힘겹게 역경사업을 마친 동국역경원 사람들은 오는 2009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정판 작업과 인터넷 대장경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최철환 편찬부장은 "많은 사람들의 원력과 믿음 덕택에 대사업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 ·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관 스님 금강경 | 의룡 스님 육조단경 | 혜남 스님 화엄경 | 응각 스님 아함경 | 지안 스님 열반경 | 각성 스님 해심밀경 | 백운 스님 법화경 |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 | 통광 스님 원각경 | 월운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25일 보살계수계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작은 '감동'에 흔들리는 '믿음'

종교(宗敎)는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과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를 말한다. 종교인들은 초월적인 대상의 존재 및 세계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 종교는 이런 이상적인 존재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믿는 것이다보니 때론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이익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한다. 특히 불교에서 개신교나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중 많은 이들이 개종 이유로, 외로운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 문화를 이해하는 개방적인 정서, 무료인권 · 법률 상담 등을 꼽았다. 이러한 개종 사례들은 앞으로 불교 포교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독실한 불자였다가 개종한 4인의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장영모(드라마 PD, 69 · 가명)

촬영협조 요청에 사찰측 냉담한 반응



SBS와 KBS 인기드라마를 연출하며 방송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장영모 PD(69 · 가명). 장씨는 82년까지만 해도 '이차돈' '원효대사' 등 한국고승들을 TV드라마로 제작할만큼 불심이 돈독한 불자였다.

"할머니때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시절부터 충북 괴산인 고향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사찰을 드나들었으며, 20살때 서울로 올라와서는 조계사에 열심히 다니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장씨가 개신교로 개종 결심을 한 것은 1982년경이다. TV문학관 촬영을 위해 전라도의 모 사찰을 찾았는데 촬영 협조가 전혀 안돼 불교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갖게 됐다.

"불교를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촬영 협조를 부탁했더니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굳이 애써 알릴 필요가 없다며 사찰측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더군다나 사찰 전각들이 훼손된다며 일체 촬영을 허락 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는 제작비까지 지원

예정된 제작 마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차례 부탁해 절 마당에서의 부분 촬영을 간신히 허락받았지만 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정작 장 PD가 필요한 것은 1백여 스님들의 수행 장면이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주민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해 가까스로 촬영을 마쳤어요. 이때 저는 스님들과 불교에 대한 원망감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곧바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며 현재는 장로교 집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교에 대한 애정은 많이 남아 있어요. 개신교쪽에서는 오히려 제작비까지 지원해 주며 선교 드라마를 찍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 환경이 많이 좋아진걸로 압니다만 불교도 영상 포교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선(前 초등학교 교장 · 72)

무료 노인시설 · 상조회 등 혜택 많아



"40여년간 교직에 머물며 독실하진 않지만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사찰을 찾아다니며 신행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6년전 퇴직을 했고 그 이듬해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 외로움에 전전긍긍하다가 이웃에 쳐지가 비슷한 노인을 따라 집근처 성당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나가게 됐습니다."

노년에 들어 개종하게 된 박상선씨(72 · 前 초등학교 교장). 서울 구로동 모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씨는 개종한 가장 큰 이유를 외로움이라고 거론했다.

"가톨릭쪽에는 무료 노인시설을 갖춰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대부분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라 시설에서 여러 방법으로 종교를 강요할 경우 개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씨는 하루종일 복지관에서 오전에는 서예를, 오후에는 또래의 노인들과 탁구를 치며 소일한다.

가톨릭은 특히 불교와 정서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점이 많아 개종하는데 큰 망설임이 없었다는 박씨는 "수녀님들이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딸처럼 친근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외로움을 떨쳐버리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이 성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중 또하나는 박씨처럼 혼자사는 노인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까지 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종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성당 상조회팀까지 연결해줘 장례 서비스도 해주기 때문에 성당 복지관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돼 굳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

"성당 복지관들은 복지사 뿐만 아니라 신부 · 수녀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종교적인 교리도 틈틈히 들려줘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심한 관심과 편안한 시설이 많은 노인들을 성당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관심 · 편한 시설 '호응'

생일 등 챙겨주며 형제처럼 대해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새터민(탈북자) 템플스테이에도 참가했던 김성권씨(26 · 가명).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3년간 머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단동의 한 사찰에 다녔다. 이 사찰에는 불교 교리를 설명해 주거나 지도해 주는 스님은 별도로 없었지만, 집근처고 마음이 편안해 자주 나갔다. 독실하진 않았지만 거의 불자나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해 큰 호감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탈북에 성공, 한국에 와서는 성남의 한 교회에 나가고 있다.

"문화나 환경이 전혀 다른 남한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네다. 저도 한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 못해 직장도 걷어치우고 술로만 지낸 적이 있었습네다. 그때 동료 탈북자 소개로 알게된 교회에 나가면서 차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네다."

교회 목사는 집요하리만치 김씨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었다.

혼자사는 김씨에게 김치 등 밑반찬을 집까지 배달해주는가 하면 명절때나 김씨의 생일날이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 형제처럼 대해주었다.

또한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한 김씨에게 같은 교회 신자가 사장으로 있는 무역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 주었다.

"탈북자들은 항상 북에 두고온 가족을 마음속에 그리며 삽네다. 그러다보니 식당에서 가족들까리 오순도순 식사하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날때가 많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 관계자들은 이런 나에게 가족 이상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에게 나도 함께 의지하고 살게 됐습네다."

이제 김씨도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신자가 취직도 시켜줘

일하다 부상 … 수술비 마련, 자주 위문



네팔서 군인이었던 구릉씨(34 · 네팔인)는 불교국가 출신답게 삶 자체가 불교인 독실한 불자였다. 이런 그가 한국에 정착한지 4년만인 지난해 개종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았다. 구릉씨의 개종은 자의적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강했다. 구릉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세개가 잘라져 나간 큰부상을 입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돈을 벌면 네팔에서 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에게 거의 다 부쳐드렸기 때문에 입원비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계속하며 치료조차 시켜주질 않았어요."

이런 딱한 사정은 필리핀 출신 회사 동료 다니엘씨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다음날 구릉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은 목사는 모금활동을 통해 구릉씨의 수술비 전액을 마련해 주었고, 2개월여의 투병기간 동안 교회신자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또한 구릉씨가 퇴원한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단체를 통해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여 위자료를 받아내 주기도 했다.

"목사님은 수렁에 빠졌던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정말 살길이 막막했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안산지역 교회에는 자신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한글교육을 해주는 곳이 많아 좋다는 구릉씨는 내년에 네팔로 돌아가서도 계속 교회에 나갈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법률상담 · 한글교육 받게 해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제6회 삼랑성문화축제

민족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천년고찰 강화 정족산 전등사에서 화해와 평화가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2006년 가을을 강화 정족산 전등사에서 시작하십시오.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일정 : 2006년 10월 20일(금) ~ 22일(일)
- 상설전시
  서예 동양화 서양화 도자기
  특별사진전 - '천년고찰 전등사의 발자취를 따라'
  '전등사, 강화군 100년' 사진전
  장 터 - 강화 특산물 장터

10월 21일(토) 산사음악회[佛協和音]
장소 : 중앙무대 오후 6시 30분
출연 : 이용, 주현미, 정태춘, 박은옥, 한영애, 야단법석 등 다수

10월 22일(일) 영산회상 (중앙무대 오전 11시)
문의 :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사적 130호 삼랑성 종해루

개인의 문제? 방치하면 교단 무너질 일



신병이나 개인적 어려움, 외로움에 처했을 때 믿음과 원력이 약한 불자들은 개종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의 불자들을 위해 복지 · 사회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보훈병원법당 관음정사에서 부산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이 불자 환자들을 위해 법문하는 모습.

불교, 호감도에 비해 개종 비율 높아
간병 등 어려운 처지에 손 내밀면
믿음 부족한 불자들은 마음 흔들려
바른 신행 이끄는 시스템 · 지도력 절실

▷개종 왜 하나?

'개종(Conversion)'은 기독교신학상의 개념이다.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에서 다른 종파로 전향하거나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근래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개종'이라는 공격적 개념을 들여오면서 흔히 한국 전통종교인 불교를 위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종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대안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자발적 개종과 다른 종교의 적극적 권유에 따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개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교계는 개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자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와 불교의 내부 모순으로 발생하는 개종도 문제지만, 일부 폐쇄적 기독교 기득권층은 '신앙간증' 등의 형태를 빌어 전략적 차원에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자들의 개종 사례를 과대포장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 · 신앙적 문제를 편향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지만 '믿음과 원력'이 부족한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 한다는 측면에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박사는"최근 각종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종교인의 신규 유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기존 종교인구의 유동 현상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해 불교계가 더 이상 개종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

한국갤럽이 2005년 5월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설문조사에서 현재 자신이 가진 종교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종교인 중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가운데 개종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한번 입문하면 가장 오랫동안 신행생활을 계속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톨릭의 경우 최근 폭발적 증가세에 힘입어 신앙기간이 5년 미만인 신도가 17.6%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불교는 81.9%의 신도가 10년 이상 신행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불교인구도 32.3%로 다른 종교(개신교 21.3%, 가톨릭 15.2%)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교별로 보면 가톨릭으로의 개종 경험이 28.1%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14.5%, 불교 13.2% 순이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타종교를 믿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낮았다. 이는 비종교인을 조사대상을 상대로 한 호감도에서 불교가 37.4%로 가장 앞섰던 것과 비교할 때 의외의 결과다.

호감도 조사에서 가톨릭은 17.0%, 개신교는 12.3% 였다.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도 33.0%를 차지했다.

개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교인들에게 현재의 종교를 믿기 이전에 무슨 종교를 믿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개신교가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교가 34.4%, 가톨릭이 14.9%, 기타 5.1% 순이었다.

종교인별로 개종 이전에 믿었던 종교를 보면 △현재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는 개신교 78.9%, 가톨릭 18.0%. △현재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는 불교 70%, 가톨릭 22.9%. △현재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는 불교 34.4%, 개신교 59.2%였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2005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개신교로 유입된 개종사례 가운데 18.9%는 가톨릭 신도의 개종이고, 77.9%는 불교 신도의 개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설문조사 결과 모두를 놓고 볼 때 다른 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사례는 적은 반면,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인의 개종을 더 이상 방관만 하다가는 교단이 무너질 수도 있는, 작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개종 유혹에 취약한 불교인

개종문제에서 불교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국인의 종교성향을 들 수 있다.

기독교는 19세기부터 시작된 집요한 선교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 스리랑카 부탄 등의 나라에서 단 1% 밖에 개종시키지 못했다. 이들 나라에서 불교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삶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 때문이다.

반면,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한국 홍콩 대만 등은 역사적으로 유교 도교 불교 무속 등 복합적 · 다중적 종교성향이 강해 기독교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종교적 성향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개종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불교인 10명중 8명(81.7%)은 "여러 종교의 교리는 얼핏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거나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응답, 불자들은 종교 간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교회 밖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53.1%)들과는 상당한 차이 나는 결과다. 이런 결과가 불자들의 타종교에 대한 관용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불자면서도 올바른 신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면 자칫 개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또 유일신을 믿으면서 매주 1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교류하는 등 생활방식 자체가 종교적인 기독교 신도들이 상당수인데 반해, 1년에 한두 번 사찰을 찾으면서도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하는 불교인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믿음과 원력 없이 막연히 심정적 불자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각종 간병 · 복지 · 사회활동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개종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들이 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개인적 불행과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때 타 종교인이 손을 내밀어 올 경우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책은?

불교적 성향을 가진 불교인을 포함한 불자들의 개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승용 박사는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불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개인적 삶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이상적 종교가 불교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무분별한 개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참다운 불자'가 개종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바른 신행을 이끄는 시스템과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불자들의 개종을 막기 위해 확고한 교육체계와 불교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조계종 화엄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사찰경영연구소 '살림'의 김관태 대표는 종교인구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불교가 이 시대 한국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고 사회적 지도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스님뿐만 아니라 사회지도급 인사 가운데 모범적이고 존경 받는 불자들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일부 스님들이 일탈이나 폭력사태 같은 언론 보도는 불자들이 신심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친다.

조계종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개종은 지극히 개인적 성향의 문제"라면서도 "종교외적인(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즉, 생활고나 친분관계 그리고 직업선택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개종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자들의 신행 행태의 개선도 절실하다. 조계종 포교연구팀 고상현씨는 "절대자에 의지하려는 기복신앙의 형태로 불교를 믿거나, 특정 스님을 추종, 단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등 외형적 종교 활동에 매몰되는 경우도 불자들의 개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며 올바른 신도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개종경험자 가운데 현재 종교 이전의 종교
불교 34.4% 개신교 45.5% 가톨릭 14.9% 기타 5.2%

현재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
개신교 78.9% 천주교 18.0% 기타 3.1%

현재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
불교 70% 천주교 22.9% 기타 7.1%

현재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
불교 34.4% 개신교 59.2% 기타 6.4%



元 · 氣 · 回 · 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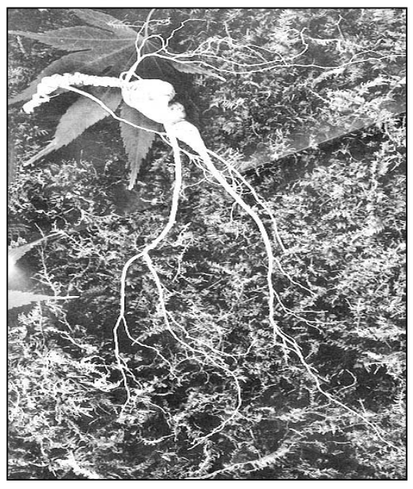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과거, 현재, 미래로 조명하는 봉은사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묵묵히 자리 잡은 대사찰 봉은사

도심 속 포교도량으로 우뚝 선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창건 1212년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봉은사의 과거 · 현재 · 미래로' 라는 주제로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1천2백여년에 이르는 봉은사의 역사를 돌아보며, '강남제일도량' 으로 널리 알려진 봉은사의 면면을 조명해 본다.



봉은사는 지금으로부터 1212년 전, 신라 원성왕 10년 794년 연회국사에 의해 창건됐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고찰(古刹) 봉은사'란 표현은 봉은사의 오랜 역사를 가늠케 해준다.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하고 있던 봉은사는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시인 묵객들의 붓끝을 멈추게 만들었다. 서산대사는 전국을 유람하다가 봉은사에 이르러 "전각에 오르면 시원한 기운을 맛볼 수 있고 푸른 못에 다다르면 더위를 잊을 만하다. 연꽃을 구경하면 향기가 닿고, 매화를 바라보면 달이 창에 떠오른다"고 했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21세이던 해 가장 다정했던 형인 정약전과 함께 이곳 봉은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면서 봉은사를 이렇게 노래했다.

"…울창한 숲과 나무 우거져 벌려 있어 둘러보며 답답한 마음 풀어버리네…."

이러한 시들은 이제는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봉은사의 옛 정취를 짐작하게 해준다.

봉은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조선 연산군 때에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을 수호하는 능침사찰(陵寢寺刹)로써 봉은사를 지명한 때부터다. 당시까지 견성사(見性寺) 였던 사명(寺名)은 이후 봉은사(奉恩寺)로 개칭됐다.

이후 금강산 등지에서 20여년 넘게 수행 정진한 보우 대사가 문정대비의 요청을 받아들여 봉은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일대 변혁이 시작됐다. 주지로 부임한 보우대사는 먼저 선교 양종과 승과 고시를 부활해 서산, 사명대사와 같은 걸출한 승려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또 호패와 같은 성격을 가진 도첩제를 실시해 당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던 스님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회암사를 중창하는 무차대회를 여는 등 조선불교 중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봉은사는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 또는 선종갑찰(禪宗甲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사명대사는 이를 두고 "지금의 학자가 그를 힘입어 돌아갈 곳을 얻어 불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보우대사가 아니었으면 불교가 거의 없어질 뻔하였다"라고 찬탄하기도 했다.

조선불교 중흥도량에서 한국불교 중흥도량으로 ….

봉은사는 지리적으로 한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뒤로는 명문 경기고가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는 세계로 향하는 무역센터와 아셈센터를 두고 있으며 무역센터 앞으로는 미래 재벌을 준비하는 벤쳐 사업의 거리가 있다.

강남 지역은 또한 경제적, 문화적 자긍심을 가진 시민들이 항상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지역적 특성이 배어있는 곳. 이 생활의 중심에 봉은사가 있는 것이다.

주지 원혜 스님은 "봉은사 신도는 단위 사찰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한다"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사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불교중흥도량' 의 역사를 이어 '한국불교 중흥도량' 으로 거듭나려는 봉은사의 행보가 눈부시다.



한국불교와 함께한 봉은사 미래로.. 세계로..

"한국불교의 중흥도량으로 거듭나자"

◇선종수사찰로 자리한 봉은사 한국불교 고비마다 중심사찰로 자리잡아

1911년 일제는 사찰령을 발표해 30본산제를 실시하고 봉은사를 30본사 중의 하나로 지정했다. 당시 봉은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80여 사암을 관할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펼쳐졌던 나청호 스님의 수해구제 원력은 현재까지도 유명하다. 나청호 스님이 봉은사에 주석하던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자, 청호 스님과 봉은사 사중은 물에 떠내려가는 양민 700여명을 구제해 주민들로부터 활불(活佛)의 칭호를 받았다.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 100인이 칭송하여 받드는 불교비첩 공덕비와 책자가 발간되기도 했다. 해방이후 새롭게 전국사찰이 정비되면서 봉은사는 인재양성의 산실로 다시 태어났다. 당시 주석하던 운허 스님이 동국역경원 역장이 되어 불교의 한글화와 도제양성을 꾀했다. 초대 종정 한암 큰 스님을 비롯해 2년 전 입적한 석주 큰스님까지 역대의 많은 총무원장 스님들이 봉은사에 주석했던 면면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연이어 치르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봉은사는 또 한 번 한국불교의 중심사찰로 거듭났다. 1990년대는 중앙승가대 등 젊은 청년 승가활동에 앞장섰던 스님들이 봉은사에서 활동하면서 승가 전통인 '산중공의제도' 를 부활시켰다. 사중의 대소사를 대중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종무회의 제도' 를 실시했고 재가종무원 제도를 실시해 유능한 재가 불자들을 사찰행정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포교활동과 대사회활동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찰운영 체질 개선의 영향으로 1994년 종단개혁 후 많은 유능한 재가 불자들이 종단에 포진돼 지금은 명실 공히 사부대중 공동체가 종단을 함께 운영하는 건강한 종무행정의 틀을 이루었다.

◇앞서가는 종무행정 시스템, 신도조직으로 현대화

1998년 11월 18일 21대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원혜 스님은 1989년부터 봉은사에 포교실장과 총무부장, 부주지를 두루 거치면서 1995년에는 개혁종단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다가 봉은사 주지로 임명됐다. 오늘날 봉은사 신도회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기초는 이 때 마련된 것. 또한 총무부장 시절에는 종무행정 양식의 틀을 만드는데 전념해 현재 봉은사의 행정양식을 통일하는데 앞장섰다. 신도수 1만, 신도임원만 200여명에 이르는 봉은사 신도회는 서울지역 최고 · 최대의 포교 발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은사 신도회는 1990년 서울에 대홍수가 일어나 한강이 범람하여 송파구에 물난리가 났을 때 지금의 송파구 풍납동 지역에서 수재민 구호활동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생겨났다. 신도조직의 필요성을 동감한 신도들이 합심하여 구역법회를 조직하였고 꾸준한 발전 속에서 사찰 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의 범위는 점점 군법당, 교도소 등지로 확대됐다. 이들은 해마다 일어나는 태풍이나 홍수로 재난이 발생하면 구역 법회가 앞장서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호활동 전 기간에 걸쳐 구호활동에 몰두하는 소방대원과 군인들에게 매일 국밥 1000인분을 지원하며 대중공양을 펼치기도 했으며, 올해 7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해지역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발벗고 참여하여 19일-23일간 매일 1000인분의 대중공양과 공사인력을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봉은사 신도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현재 증명과 조실 스님과 총재 주지 스님, 지도법사 부주지 스님의 지도 아래 회장단을 구성하고 봉사와 실무기구로 총괄본부 하에 총무본부, 포교본부, 교육본부, 사회본부, 봉사본부 하에 28개의 부장을 두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대두된 문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불자들의 필요성이었다. 1990년부터 봉은사는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강좌를 통합하여 하나로 통합했다. 입문, 기초학당, 불교대학, 경전학교, 지도자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여러 학자들이 한 경전을 놓고 토론하는 논강 등을 마련해 불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또한, 올해의 주요역점교육 사업으로 "참살림, 행복, 명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아버지 학교, 부부교실, 웰다잉 체험교실, 예비부부교실 등 현대 개인 및 가족문제의 근간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제일도량, 도심포교의 장으로 거듭나다

신도조직과 교육사업이 진행되면서 봉은사는 포교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여 어린이불교학교, 중고등학생들 포교를 위한 파라미타 법회가 이루어지고 대학생법회와 청년회 법회가 매주 말에 진행되는 중이다. 봉은사는 특히 청소년 포교에 진력한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파라미타 서울지부를 봉은사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신도단체들의 포교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사불자연합회,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불교레크레이션 포교회 등 수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교사불자회 소속 교사가 각급 학교에서 불교반을 창립할 경우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염불소리는 그치지 않고 수행은 멈추지 않는다

봉은사의 중심법회는 일요법회와 수요 야간법회다. 봉은사는 일요법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17년간 수없이 많은 방안을 강구했다. 그 결과 봉은사 일요법회는 주제가 있는 기획법회로 거듭나게 됐고 현재 600~700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동참하고 있다.

금년 일요기획법회에는 원로위원 스님 초청 법회, 선원장 스님 초청법회를 상반기에 열었으며 하안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각성 큰스님의 <대승기신론> 강론을 봉행했다. 현재는 도심 포교활동에 진력하는 13 명의 포교당 주지 스님을 초청해 '정토세계를 여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매주 듣고 있다. 내년 초에는 '선지식에게 법을 듣는다' 란 주제로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법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법왕루에서 열린다. 선종수사찰의 풍모는 재가불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센터 3층 봉은선방에는 선수행에 정진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사철 끊이지 않는다. 2006년 6월부터는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명상 수행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심자들을 위해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강남제일도량 봉은사

'이웃와 함께 하는 봉은사' 의 면모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사회적 참여에 열심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은사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산하 시설인 강북장애인복지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논현동과 도곡동에 연화어린이집과 선우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등 지역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강북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지정운영사찰로 선정돼 꾸준히 운영해 2004년 서울시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6월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와 함께 전국 유수의 청소년 단체인 흥사단, 청소년보호협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열린사회복지재단 등과 경합한 끝에 '청소년포교에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은사가 위탁사찰로 선정됐다. 2004년 3월 개관식을 가진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불자청소년들의 이상을 펼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봉은사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펼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시설 수탁을 준비하고 있다. 봉은사는 또 '작은보시큰자비실천회' 와 '서산 · 사명장학회' 등을 통해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보시큰자비실천회' 는 처음 봉은사 신도들이 연꽃저금통으로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의 장학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매월 통장에 회비를 입금하고 법왕루에 보시함을 마련해 현재는 그 기금으로 밑반찬 배달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금은 강남구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과 영등포 교도소 지원, 군법당 지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2003년 발족한 '서산 · 사명장학회' 는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부속남녀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학교 장학금지원, 지역 소년소녀 가장 장학사업 등을 통해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매월 경로당을 찾아가 위문 봉사하는 '전법봉사연등' , 불자가정을 위한 상조회인 '지장연화회' 외에도 군법당 지원, 교도소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체도 발족했다. 올해 처음 구성된 '봉은사 사회복지 포교위원회' 는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해 매년 상하반기에 사회복지활동별 예산을 수립하여 분배하는 일을 할 계획이다.



몸이 부서질지라도 가르침 찰나도 놓치지 않으리

용모가 괴이한 아이

"수좌의 속성은 변씨(邊氏)이며, 휘(諱)는 균여(均如)이다. 아버지는 환성인데, 뜻을 고상하게 가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점명(占命)인데, 일찍이 천우 14년(917) 4월 7일 밤에 꿈속에서 자웅 한 쌍의 봉황을 보았는데, 모두 누런색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두 자기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천우 20년에 이르러 점명의 나이 이미 60이었는데 아기를 배었다. 그리하여 21순(旬)만인 그 해 8월 8일에 황주(黃州) 북쪽의 형악(荊岳) 남쪽 기슭에 있는 자택에서 스님을 낳았다."

진사 혁련정(赫連挺)이 1074년 가을에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완성한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의 강탄영험분(降誕靈驗分)의 첫머리이다. 흔히 보이는 영웅, 성인의 전기와 다를 바 없는 영험스러운 일들이 균여의 탄생을 즈음해서도 일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이어지는 구절로 어려서부터 재지가 뛰어났느니 하는 문장을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은 전혀 반대의 것이다.

처음 탄생했을 때 용모가 비길 데 없이 추하여서 부모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에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마리의 까마귀가 버려진 아이의 몸을 날개로 덮어 보호하므로 아버지는 후회하고 어머니는 한스럽게 여겨서 다시 거두어 길렀다고 한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당히 내어놓고 자랑하며 기른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쉽사리 볼 수 없도록 상자 속에 넣어두고 길렀다고 하니 그 용모의 괴이함이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

까마귀가 날개로 보호하여 아이를 다시 데려다 길렀다거나, 한 쌍의 봉황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 역시 스님이 어렸을 때 용모로 인해 고생했던 사실을 후인들이 오히려 미화시킨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이다.

더욱이 21순(旬)만에 태어났다 했으니 흔히 말하는 칠삭둥이로 신체 역시 강건하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스님의 용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기에 전한다. 국사가 된 후에 향찰로 보현십종원왕가를 지었는데, 최행귀가 이를 한시로 번역하였다. 그것을 중국 사람이 다투어 베껴서 전하였고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들어갔다.

황제의 신하들이 이 노래를 지은 이는 부처가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주청하여 사신을 보내어 스님에게 공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사신을 맞은 고려 조정에서는 사신이 스님의 용모를 보고 깔볼 것을 염려하여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스님 또한 그 사정을 알아채고는 통역관을 보내어 직접 뵙기를 청하는 사신을 만나지 않고 몸을 감추어 버렸다. 이 역시 스님의 용모가 평범하지 않음을 넘어서 괴이하기까지 했음을 알려 준다.

왜 뜬금없이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연 상관없는 외모 이야기만 풀어놓는지 의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모로 인하여 바깥출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형도 그런 천형이 없었을 것이다.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마저 외면하여 버려졌으며, 승과에서 스님의 뜻으로 정통을 삼고 왕의 존경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용모의 괴이함 때문에 중국에서 이역만리 찾아온 사신마저 만나지 않았을 정도이니 용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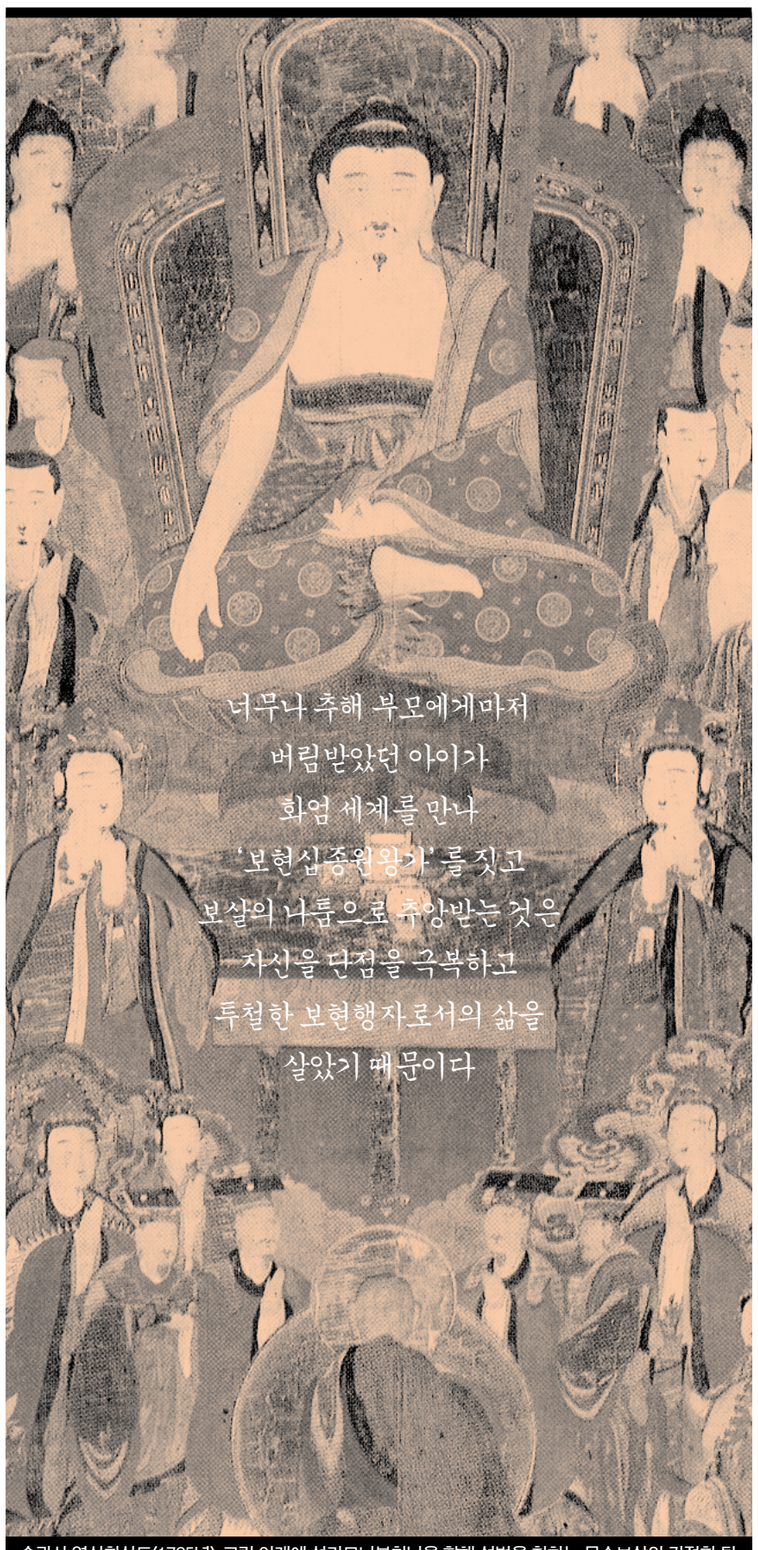
화엄석학이 된 균여

출가 후에 의순 화상을 좇아 영통사(靈通寺)로 옮긴 후 26년간을 주석했는데, 왕의 초빙을 받아 귀법사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줄곧 이곳에 머물면서 화엄 연구와 수행에 전념하였다.

이때 스님은 화엄사상의 여러 갈래들을 모아 융합시킨 저술들을 지어 세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스님이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던 화엄경의 사상은 보살이 어떻게 믿음의 대지에서 서원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 서원의 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내용들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보현보살의 원과 행은 그 모든 것들 중의 으뜸이라 하여 원왕(願王)으로까지 불리는 것이다.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늘 따라 배우고(常隨佛學願),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수순하여 이익되게 하며(恒順衆生願), 일체 공적을 모두 중생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普皆廻向願) 보살의 무량한 서원을 접했을 때 균여에게 그것은 또 다른 세상으로 펼쳐졌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글로 옮긴 것이 바로 <법계도원통기> <교분기원통초>였을 것이다.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년). 그림 아래에 석가모니부처님을 향해 설법을 청하는 문수보살의 간절한 뒷모습이 균여 스님의 원력을 연상케 한다.

보현십종원왕가를 짓다

이제 균여는 더 이상 칠삭둥이 못난 아이로 태어나 버림받았던 아이가 아니었다. 해동 화엄의 초조였던 의상의 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하였으며, 의상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원효와 법장의 화엄사상을 융회시킨 대학장(大學匠)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뛰어난 화엄의 대석학이기만 했던 것 또한 아니다. 화엄석학 균여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보살의 진면목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른 승려들처럼 한문으로 저술을 집필하지 않고 향찰로 글을 썼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향찰로 저술을 남긴 덕분에 스님은 후대의 대각국사 의천으로부터 강력히 비난받기까지 했다. 당시의 지성인들이 한문이 아닌 향찰로 글을 쓰는 것을 천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광종의 초빙을 받아 귀법사에 머물면서 한창 세간의 우러름을 받던 시절에도 균여는 왕공대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향찰로 글을 쓰고 있다. 균여가 지어서 세상에 널리 퍼뜨린 <보현십종원왕가>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균여는 향찰로 쓴 이유에 대해 스스로 "통속적인 말을 따르지 않고서는 크고 넓은 인연을 나타낼 길이 없어 11수의 거친 노래를 짓는다. 이는 여러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부끄럽지만 여러 부처님의 마음에는 부합될 것이다. 글을 맞추고 글귀를 지어서 범속(凡俗)의 선근(善根)을 낳기 바란다."

글을 몰라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일체 중생 모두를 수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씀씀이를 조금이나마 닮아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혹 어렸을 때 외모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라도 남아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아니 더 극진하게 마음을 쓰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 해서 고려의 몽매한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고려의 말로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어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균여 스님 스스로가 화엄세상의 보살을 만나 힘든 삶을 보살의 원력으로 바꾸어내었듯이, 세상 사람들 또한 자신의 원왕가를 듣고 불러서 고통받는 중생이 아니라 보살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그런 진정을 담았기에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하다못해 담과 벽에까지 쓰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부처님
지나간 세상을 닦으려 하신
난행(難行)과 고행(苦行)의 원(願)을
나는 돈연히 좇으리.
몸이 부서져 티끌이 되어 가매
목숨을 버릴 사이에도
그렇게 함을 보이리.
모든 부처님도 그러한 분일지니
아아, 불도(佛道)를 향한 마음이
다른 길 아니 비껴갈지어다.

균여 스님이 지은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王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노래(常隨佛學歌)'의 한 수이다. 몸이 부서져 티끌이 될지라도, 목숨을 버릴 지경에 처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찰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염원이 절로 드러난다.

서민 위해 향찰로 글 써

균여의 한 낱의 중생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백년 뒤의 진사 혁련정에게도 전해졌던 것일까. 혁련정은 스님의 시적(示寂)을 상세히 전하기보다는 입적할 즈음(973년)에 벌어졌던 김해부사의 상주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올해 모일에 어떤 이승한 승려가 종려나무 갓을 쓰고 바닷가에 왔는데, 이름과 거처를 물었더니 스스로 비바시(과거칠불 중의 첫 번째 부처님)라고 하면서 '일찍이 나는 500겁 전에 이 나라를 지나다 인연을 맺었는데, 지금 삼한이 일통되었음에도 불교가 흥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세의 인연을 갚고자 잠시 송악산 밑에 와서 여자(如字, 균여)로서 불법을 널리 펴고, 지금 일본으로 가려한다' 고 말하고는 곧 숨어버렸습니다."

균여의 입적을 놓고 단순히 입적이 아니라 중생이 다할 때까지 수순함을 멈추지 않는 보살의 변역생사(變易生死), 곧 다른 원행을 위한 보살의 나툼으로 기술하고 있다. 칠삭둥이, 부모조차 놀라서 버릴 정도로 괴이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 그 아이가 화엄 무진보살의 세계를 만나 백 년 뒤의 후인에게조차 보살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균여가 자신의 단점에 얽매이지 않고 보살의 원행을 실천하는 데 투철했던 보현행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석길암 (동국대 강사)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로 지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가는 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 통 편:
[승용차] 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7㎞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표 구입
–1번홈에서 내촌 혹은 현리行 버스 승차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전 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혜거 합장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HISM EXPO 2007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신도 없다고 문 닫나? … '찾아가는 불교'가 미래다

집중점검 사찰경제 양극화 실태와 극복방안

사찰 운영 방식에 따라 포교효과 '천차만별'
산중 사찰도 체계적 관리·특화된 법회로 '호응'

농어촌 사찰 '생계형 공동체' 성공 사례 늘어
"불사·이벤트는 단기처방…거시적 연구 필요"

"하루 종일 사찰을 찾는 신도가 단 한 명도 없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정기법회에 나오는 신도가 줄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신도 감소는 시주금 감소로 이어져 사찰존립까지 위태롭게 만든다. 서울보다는 지역, 도시 보다는 농어촌에 위치한 사찰일수록 심각하다. 더 이상 우려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다가온 사찰의 위기, 그 현주소를 짚어본다.

도시-농어촌 사찰 양극화 심화

올해 정부가 핵심과제로 꼽은 양극화 해소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범위를 좁혀 불교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아도 도시와 농어촌 사찰간에는 양극화 현상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사찰경제가 '위기'라고까지 느끼는 사찰도 적지 않다.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불광사, 구룡사, 능인선원, 부산 삼광사, 안국선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안양 한마음선원, 일산 여래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규모 사찰은 전부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반면 농어촌, 특히 산중이나 오지에 위치한 사찰은 점점 사세가 약화돼 독살이 또는 토굴로 전락하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또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름이 알려진 큰스님이 주석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신도관리체계를 갖춘 사찰로 사람들의 발길이 쏠리는 현상을 보인다. 원찰을 갖지 않거나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잠재적 불자들이 마음에 드는 곳을 정서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 사찰간 양극화가 대체적으로 입지에 따른 현상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북 봉화지역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봉화는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최근 축서사와 각화사로 신도가 집중되고 있다. 반면 읍내에 위치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기존 사찰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화사와 축서사가 선지식으로 널리 알려진 고우 스님, 무여 스님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어촌·소규모 사찰일수록 취약한 재정구조와 인력·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

신도 감소…시주금으론 못 산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 가운데 불교신자의 구성비는 22.8%로 10년전에 비해 0.4% 감소했다. 74.4%의 성장률을 보인 가톨릭에 비교할 경우 불교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여기에는 불교에 우호적 성향을 보이는 잠재불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제 불자수는 22.8%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계종 사찰의 경우 전체 2368곳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찰들의 신도수는 평균 100명 안팎인 것으로 사찰경영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1년에 1~2회 정도 사찰에 가는 '명목불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불교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소규모 사찰들의 신도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깊은 산중이나 오지의 일부 사찰들은 법회 참석인원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불교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경북 영양의 한 사찰은 산간오지의 입지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도 제로'에 직면해 있다. 법회 때에는 3~5명이 고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지스님을 뒷바라지하던 공양주마저 사찰을 떠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회조차 열지 못하는 사찰이 속출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대규모 사찰 중에도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타종교 또는 인근 사찰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곳이 생길 정도다.

신도수 감소는 시주금 감소로 이어져 사찰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마다 연등수입이 줄었다는 사찰현장의 소리도 이런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주금 감소는 사찰의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이는 사찰의 포교·신행 활동 저하로 연결돼 악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마저 없는 상황이다. 사찰경제가 '위기시대'를 맞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산사음악회나 사찰축제와 같은 이벤트의 배경에는 지역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는 계산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도가 없는 농어촌사찰의 주지 소임을 기피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으니 사찰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시대변화 수용 못해 위기 자초

신도수 감소로 인한 시주금 감소, 이로 인해 사찰의 활동 제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은 국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의식 성장 등의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들은 민주화의 거센 물결을 거치며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진화했지만, 사찰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사찰의 경우 인구 격감, 수입 감소, 고령화 등 주변환경의 변화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도 초하루법회를 고집하는 등 변화하지 않음에 따라 신도수가 줄어들고, 이는 사찰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사찰의 운영실태를 연구해 온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사찰운영 전략의 부재에서 빚어진 투명성의 결여, 독단적 운영, 사회공헌도 미약 등에서 사찰경제 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점점 투명성 있는 운영과 대중 합의에 의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찰은 불투명하고 신도를 외면하는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폭력사태, 공금횡령과 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가 불교 이미지 실추, 신도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지역적 특성과 사찰의 여건에 맞추어 활로를 모색하려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 생산불교,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는 일부 사찰들의 시도는 눈여겨볼만하다.

공주 영평사, 강화 선원사, 김제 청운사, 합평 용천사 등은 지역민들의 일손으로 구절초, 죽염, 연꽃, 상사화 등을 재배해 호평을 얻고 있다. 축구대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을 사찰로 끌어들이면서 호감을 사고 있는 평창 월정사와 구례 화엄사, 해남 미황사, 합천 해인사 등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사찰경영 연구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활동은 사찰경영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일본·대만의 선진사찰 견학, 사찰경영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바람직한 사찰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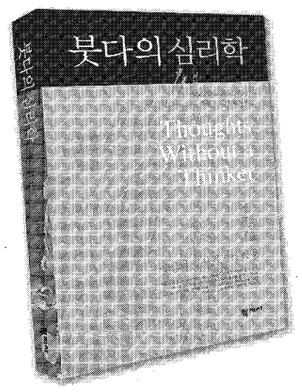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사로 시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수 감소현상을 모면해 보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며 "사찰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경영기법 연구,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종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도시와 농어촌 사찰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신도와 시주금이 감소하면서 사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사찰들은 생산불교, 지역경제공동체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 D. 저 | 전현수·김성철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길잡이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소얄 보리센노 외 공저 · 장현갑 외 공역

272면 | 신국판 | 반양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산드라 엔더슨 외 공저 · 조옥경 외 공역

26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좌담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주지스님은 CEO 신도는 고객

'문 닫는 사찰이 늘어난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신도가 없거나 시주금이 격감해 운영이 힘든 사찰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번쯤 사찰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찰운영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혁신적인 사찰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스님들과 경영인이 9월 21일 본사 법당에서 좌담회를 열고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했다.

참/가/자

- 일문 스님 | 파주 보광사 주지
- 도원 스님 | 김제 청운사 주지
- 구병진 박사 | 서울대 경영학
- 최재동 대표 | VA컨설팅 대표이사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사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기법에 의한 사찰운영이 필요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찰경영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좌담 참석자들. 왼쪽부터 구병진 박사, 일문 스님, 도원 스님, 최재동 대표.

신도·시주·관람료 등 줄면서 '위기' 현실로… 경영마인드·기법 도입을

올바른 불교경제관 교육·신행 관련 서비스 정착이 관건, 목표설정은 '기본'

다양한 수익원 활용 못해… '생활 떠난 종교 있을 수 없다' 인식전환 필요

일문 오늘날 사찰이 '경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발길이 줄어들면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산중사찰과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지역의 사찰들의 걱정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찰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사찰경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재동 사찰도 경영의 시대를 맞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찰운영은 기업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지스님은 CEO와 같고 신도는 고객입니다. 이미 사찰은 경영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지만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시주금에 의존하는 사찰의 재정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기독교의 십일조와 같은 시주체계가 없는 사찰로서는 이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영·경쟁력'이라는 화두

구병진 사찰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올바른 경영은 올바른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찰은 비경제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퇴출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이고, 종교라고해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도원 현재 한국불교는 소위 '생산불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데 공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불교 전반에 깔린 선중심의 풍토입니다. 개개 사찰들은 통불교적인 의식진행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르침은 선불교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생각과 실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불교에 경제·경영을 접목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문 사찰경영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찰의 경제행위를 단지 필요성만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부처님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계율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사후 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핵심에 승단의 경제행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또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계율에 비추어보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재동 요즘 시대를 사는 재가불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스님들은 자꾸 '마음을 비워라'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소유하지 마라'고 하는데, 가족을 책임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가르침대로 할 수 없으니 마음 참 불편해집니다. 절 밖에만 나오면 불교는 온데간데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경제이론이 확립되지 않는 한 재가불자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병진 생활현장에 있는 재가불자들에게 돈은 매우 절실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재가불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교리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함경>을 비롯한 경전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가치 있게 쓰는데 목적을 두도록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원 경제와 경영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스님들은 경전해석에 있어 '버려야 한다'고 선(禪)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있어도 좋다'는 이해는 부족합니다. <천수경>을 보더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15구절 이상 나옵니다. 버려야 한다고만 바라봤기 때문에 불교경제관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나마 이뤄지는 교육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전문가 양성 더 미뤄선 안돼

최재동 '불교경제' '불교경영'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종립대학에도 불교경제·경영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없어요. 시중 서점에서 책을 구하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역경원처럼 불교경제·경영학을 교리와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종립대학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출·재가자들에게 경제·경영 마인드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문 전국 사찰에서 건축 불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사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웅전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당을 짓습니다. 지금 사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객인 불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지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살 사람들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합니다. 신도들이 어느 공간을 많이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불사를 해야 합니다.

구병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사찰에서는 '신도' 또는 '잠재신도'가 되겠지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사찰의 경우, 내로라하는 사찰은 신도회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도회관은 커피숍, 공연장, 특산품 매장,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어요. 우리 사찰이 배워야할 점입니다.

최재동 일본 사찰의 또다른 특징은 각 사찰마다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점입니다. 똑같은 상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사람들을 절로 불러들일 수 없거니와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사찰에서 수익을 낼만한 상품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봉은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봉은사 주변의 직장인들이 잠시 들러 참선이나 수면을 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에 주차·휴식·사찰음식 등 생활편의 시설을 만들어 코엑스와 연결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도원 그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목표설정이 없는 사찰운영이에요. 신도가 100명이라면 내년에는 신도를 150명으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포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경제의 실현도 목표설정에 버금가는 과제입니다. 인등비, 기도비, 연등비 등 한해 수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지역민과 경제공동체' 효과만점

일문 목표설정이 없다는 도원 스님의 지적에 정말 공감합니다. 교회 100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전도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 해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버립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4년 임기제나 원칙 없이 소임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엄격한 주지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불교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도원 우리 사찰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만 보더라도 장류와 차류가 고작입니다.

약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국에 약수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찰이 수백개에 달합니다. 전부 물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찰들에서 나오는 물을 약수로 개발해 판매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러니 고민을 전혀 안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일문 활로를 모색하는 사찰 중에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함평 용천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천사는 지역농민과 함께 꽃문화축제를 열고, 서울의 사찰과 연계해 용천사에서 만든 장류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실험인데, 지역민의 경제에 기여하면서 사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각 사찰의 고객은 5천만 국민입니다. 지역배분이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 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노쳐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제액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촉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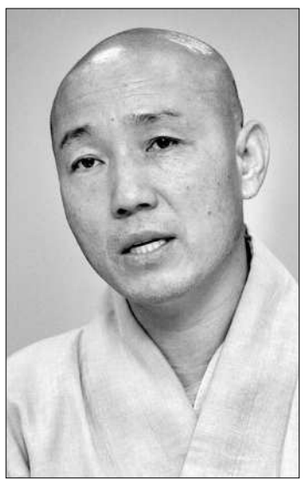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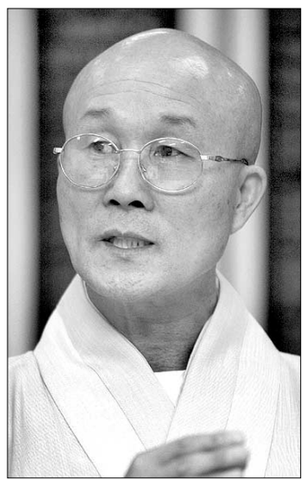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

'하던 대로' 더이상 안 통한다

좌담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일문 스님


도원 스님


구병진 박사


최재동 대표

일문 스님 종교의 사회 기여 중요, '기부제도' 활용할 때

도원 스님 종단 유휴 부지 활용, 생산성 키우는 '경영' 시급

구병진 박사 중장기적 계획 수립후 사부대중 원력 집중, 실천

최재동 대표 사회적 환경 잘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 개발을

없기 때문에 김제에 있는 사찰에 전국 각지의 신도가 있습니다. 각 종단별로 신도들의 지역연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신도가 부족한 사찰은 더 열심히 포교하면서 도시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병진 사찰이 개별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종단 차원에서 사찰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일문 사찰의 경제활동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금융이나 구휼에 나섰는데, 나중에 양조업이나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어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활동 참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춘다면 '생산불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활동 참여의 폭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익금을 공공사업에 회향토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도원 불교계에는 유휴 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산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적 ·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 자산을 활용하여 불교의 생산성을 키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군산의 모 교회가 시내에 있던 교회건물을 팔아 외곽지역으로 옮기면서 4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교단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서 예전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유휴부지를 매각하거나 활용한다면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잇을 것입니다.

일문 유휴 부지는 사실 종단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입니다. 사찰에서 유휴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종단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하는 형식이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 종단에서는 유휴 부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보정재를 팔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전부는 아니다

도원 사찰이 생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교육, 출판, 의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관념을 깨야 해요. 사찰은 휴식, 업무, 기도, 교육, 외식, 봉사 등 모든 것이 이뤄지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최재동 변화의 힘은 불교를 구성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불교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도가 1000만명인데 정말로 쓸만한 인재가 없는 것일까요? 월급 100만원도 안 주는 사찰에 좋은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인데, 사찰은 자본주의와 동떨어져 있어요. 종교가 사회와 함께 맞춰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사찰도 교리에 입각해 자본주의에 맞는 체질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문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최근 가톨릭이 뜨는 이유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의를 실천해왔고,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를 포용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불교도 사회참여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양적으로 기독교와 비교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구병진 불교가 회향을 잘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립경제의 목적도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의 정화에 있듯이 회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마인드,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것도 생각과 체질을 바꾸어 자립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합니다.

도원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도로 자립경제를 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자립경제 실현을 위한 방법은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찰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심어 이를 수익원으로 삼아봅시다. 큰 땅이 없어도 가능한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일문 지금 갖고 있는 자산으로 당장 사업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채식식당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 사회가 육식문화로 바뀌었는데, 폐해가 심각합니다. 음주문화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때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갖고 있는 사찰에서 채식식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개선될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원 사찰이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에 다니는 신도는 물론 종립학교와 같은 유관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동국대에 사찰 인테리어를 연구하는 학과를 개설한다면 사찰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찬불가를 연구하는 불교음악학과도 사찰의 변화, 크게는 불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일문 요즘 우리 기업들의 기부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도 불교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기부는 사회단체에 직접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단체의 활동의 폭을 좁힐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허브' 재단을 만들어 기부를 받는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모아진 기부금을 공익사업을 벌이는 단체에 분배하는 허브 역할이야말로 종교계가 해야할 일입니다.

또 각 사찰이 연대하여 '아름다운 가게'를 벤치마킹하여 신도들로부터 생활용품을 모아 사회에 회향하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병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찰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 사찰은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부대중의 원력을 집중시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정한 이야기이지만, 변화하는 사찰은 발전할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사찰은 퇴출될 것입니다.

최재동 지금 이렇게 사찰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공론화되어 불교와 사찰이 변화를 꾀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스님들만의 역할이랄수도 없고, 재가불자들의 역할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부대중이 모두 함께 해야할 일입니다.

도원 대승사상은 소승사상에 견주어 보면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승의 기준에서 봤을 때 대승은 불교가 아니지요. 신라는 원광, 원효 스님이 없었다면 삼국을 통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장율사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장율사의 가르침으로 보면 원광,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불교와 사찰에 가장 절실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발맞추는 안목 키워야

일문 어느 스님이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 전역의 수도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10년 후 다시 프랑스에 가서 수도원을 돌아보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 수도원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사회변화에 맞춰 변모한 수도원만 남아 있었다는 그 스님의 말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재동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주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찰이 포교활동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잘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 학생모집

Ⅰ. 모집학과 및 과정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전 공	취 득 학 위
불교학과	불 교 학	불교학 석 · 박사
	명 상 학	명상학 석 · 박사
상담심리학 과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 · 박사
	자아초월상담학	
	미술치료학	
심신통합 치유학과	요가치료학	심신통합치유학 석 · 박사
	심신치유교육학	

Ⅱ.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및 취득예정자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6. 10. 23(월)~ 11. 2(목)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6. 11. 4(토) 09:00
3.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고사
4. 합격발표 : 2006. 11. 10(금) 10:00

Ⅳ. 특전

1.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철학과와 연계 교육, 우수학생 전액 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90-2800(代) 02)890-2811~2(直) / Fax 02)890-2899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교 수 초 빙

1.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인원	취 득 학 위
상담심리학 과	자아초월상담학	1	비정년트렉전임교수
심신통합 치유학과	심신치유교육학	1	비정년트렉전임교수

2.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연구실적물(2002. 3. 1. 이후 발표물) 각 1부
마.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제출기한 : 2006. 10. 23 ~ 11. 2. 17:00

5. 제 출 처

우) 153-831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6.11.2.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 외부사진


보장사 영각당 내부사진.


보장사 전경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 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 · 고(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전덕해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수익금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1호선(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좌청룡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2)534-4444, (031)471-3322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종 정 : 법전 월하 ● 부 종 정 : 혜일
● 원로원장 : 법종,
● 원 로 원 : 월하, 성민, 혜일, 만공, 해공, 혜정, 백공, 천광, 해산, 정오, 일봉, 도일
● 율 원 장 : 성민 ● 유 나 : 봉선

■ 총 무 원

총무원장 : 혜인 종회의장 : 혜명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혜정

총무부장 : 동산 국장 : 자명 재무부장 : 법정 국장 : 대도
감찰부장 : 상산 국장 : 지호 사회부장 : 정덕 국장 : 용산
호법부장 : 보성 국장 : 도현,다정 규정부장 : 지오 국장 : 월성
교무부장 : 월곡 국장 : 한산 포교부장 : 정산 국장 : 효천
문화부장 : 원산 국장 : 법장 비구니회장 : 중비, 일경, 법련,덕산
자산관리부 : 성인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강원교구종무원장 : 동각
서울서부교구종무원장 : 법선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서울동부교구종무원장 : 대도 충북교구종무원장 : 일봉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원 경남교구종무원장 : 혜명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 혜안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법정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경북교구종무원장 : 혜관
부산서부교구종무원장 : 성각 전남교구종무원장 : 대성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남산 대구교구종무원장 : 도월
울산동부교구종무원장 : 운산 울산남부교구종무원장 : 수덕
미국뉴저지주종무원장 : 심일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북동부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법성

●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허정석

● 삼화불교대학
학 장 : 법종
대학교수 : 법종, 혜정, 정산, 월곡, 봉선,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 삼화불교대학원
원 장 : 혜인
대학원교수 : 법종, 일봉, 정수
조 교 : 정금옥
과 장 : 조일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맨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 신병용
이 사 : 손정일
학생주임 : 이화목, 심원일
조 교 : 손정, 주소리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발 행 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부산지사장 : 최왕림
취 재 기 자 : 청산,법천,조백종,정호석, 김정길,배상근
편 집 기 자 : 김용갑

■ 총무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 2027, 2028 , 3445-7375, 7376 / FAX 02) 511-2028
인터넷주소 : 삼화불교대학 www. 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무원장 겸 종정권한대행 향 운 사서실장 혜 공
중앙종회부의장 인 담 지 상

종회의원
해담봉상운오영선광봉학관담
성인금지향운운법원도운명효

원로의원
혜봉송담
창해법선
범산지암
도선정향

규정원장 홍인
규정원부원장 불타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의전실장 태운
상벌위원장 운학
사무총장 도천
교육원장 운오
문화원장 석주
포교원장 원광

의전부장 대련운
규정부장 화해기
감찰부장 청상운
재무부장 명
총무부장

사회부장 범해우
회화부장 문안석
교육부장
포교부장

직할종무원장 혜담
부산직할종무원장 연운
서울종무원장 진산
부산종무원장 지성
대전종무원장 일륜
울산종무원장 금봉
경기종무원장 인담
강원종무원장 법선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남종무원장 마명
전북종무원장 운학

경북종무원장 도봉
경북남종무원장 법경
안동종무원장 명석
경남종무원장 광암
서부경남종무원장 범산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비구니북원장 자성
비구니남원장 인명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5층
전화 02)735-0501 팩스 02)736-3509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총본산 일광사

주 지 보 혜 부주지 혜 명 총무 대 덕

신도회장 김 청정심(김옥빈)
부 회 장 김 대정혜(김영애)
교 무 김 일진심(김영자)
재 무 김정필
기 획 박수일
포 교 김 법보화(김영희)
총 무 대덕스님

자비회 회장 고 무량화(고우정)
부 회 장 현 금강심(현란순)
관음회회장 박 보현심(박인순)
부 회 장 박 반야심(박미례)
봉사부장 어 자행심(어윤희)
일광회회장 김 일진심(김영자)
일광회총무 이정애 김미순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68-18호 총무원 02)2207-7198 / 종무소 02)438-3088 FAX 02)433-1666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위치: 경남합천 ● 위치: 충남
● 법당: 24평 ● 법당: 30(木) ● 법당: 30평
● 요사: 170평 ● 요사: 60평 ● 요사: 70평
● 부지: 5600평 ● 부지: 230평 ● 부지: 9000평
● 가액: 20억 ● 가액: 2억 5천 ● 가액: 1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최상의포교당안내
● 위치: 양산 도심에 있는 포교당 (단독주택, 암자처럼 해 놨음)
● 평수: 30평. 시설완벽 주변정원 2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포함 합계 2300만원 월 35만원
055)387-2777
010-6318-750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평수: 43평,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2771-7377
010-8622-12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 의정부 신곡2동 (경기 제2청사 앞)
● 평수: 83평
● 가액 :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9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31-853-0135
010-5698-8769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2300평 ● 부지: 360평
● 법당: 20평목조 ● 법당: 20평한옥
● 요사: 30평 ● 요사: 30평한옥
● 가액: 2억 7천 ● 가액: 절충가능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0평
● 시설 : 주지실, 종무소 1층 - 공양간, 창고 2층 - 요사채
● 특징 : 도심속의 기도와 포교도량
● 가액 : 급 양도 3억 3천만원
011-9853-3843

별장식토굴안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남 밀양
● 대지: 약 90평 ● 대지: 1100평
● 법당: 25평 ● 법당: 10평, 25평(2개)
● 요사: 30평 ● 요사: 22평, 21평(2개)
● 가액: 3억 8천 ● 가액: 2억 7천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0평, 대지 11평 요사채 1층 2층 20평
● 시설완벽,즉시 법회가능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능) 상의 후 좋은조건으로 해드려요
011-9957-950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건물 : 지하 1층 (요사채) 지상 2층(법당), 산신각
● 건평 100평, 대지 130평
● 가액: 3억 2천만원 즉시법회가능 (상의 후 좋은조건으로 해드리겠음)
011-9503-344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법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4억 6천만원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사 찰〉 〈토 굴〉 〈사 찰〉
● 위치:구미시청근처 ● 위치:부산 광안동 ● 위치: 부산시내
● 법당 및 요사 95평 ● 2층주택 ● 법당: 25평
● 어린이 법회 ● 깨끗하게 단장 ● 요사: 40평
● 불교대학 ● 가액: 8천 ● 부지: 1000평
● 가액: 2억 3천 ● 가액: 6억 5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암자 다량보유
※ 2억, 4억, 6억, 10억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011)560-8522 051)863-666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637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지
● 법당 :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 : 조립벽돌 30평
● 종교부지 300평, 시유지 550평
● 약사석불, 산신각, 면사무소 인접
● 절앞 마을, 뒤 소나무숲, 절충가함
● 양도가 : 1억 7천
011-677-8525

암자(급)안내
● 위치: 팔공산 뒤 갓바위 입구
● 대지: 224평
● 건평: 30평(법당,연단,서재) 요사채, 공양간, 방(15평정도)
● 교통이 편리함
형편이 어려우신 스님께는 싸게 양도함, 전세도 가능 (기한무한정)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하시기 바람
053)853-2464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팔공산하 마지막 대도량터
● 위치: 대구시내전역 30분거리
● 평수: 5300평
● 건평: 1, 2층 150평
● 신축불사중. 골조공사 전기완료. 암반수
● 큰뜻을 가지신 인연찾아 가액조정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앞
● 5층 건물 중 4층, 60평
● 가액: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 답사 후 가격 절충
● 즉시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1-9822-10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대지: 420평
● 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
● 가액: 1억 3천만원
011-511-0926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창원시내
● 평수: 100평
● 4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4877-5900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 2층 건물 2층, 시설 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0-8577-13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715-63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 실평수 65평, 법당 특 A시설 방大3, 공양간(특 A시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2000 만원 월 115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8-632-2009

사찰및포교당(연수원)안내
● 위치: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 평수: 746평(대지), 주변임야와 도로부지 1500평 사용가능
● 건물: 1층(60평), 2층(50평), 3층(47평) 펜션으로 사용중 (심야보일러,상수도)
● 가액 : 13억
● 특징: 충주호와 남한강 언덕의 소나무 숲속에 위치 절경임 시내와 10분거리(시청,경찰서,터미널,집앞시내버스정류장)
011-257-373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한림면
● 임법당 시설완비
● 텃밭 감나무밭 900평
● 가액: 전세 1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절가능)
011-9237-3079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대구 송현동
● 평수: 약 70평, 2층
● 삼존불, 비품 일체
● 주차 50대 가능
● 가액: 5백에 90만원
053)958-592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문막 IC 15분거리
● 토굴, 전통찻집 적당
● 350평 -9천만원
● 800평 - 2억원
011-716-2794

사 찰 안 내
● 위치:전라남도 장흥군
● 면적: 11,400평
● 법당(목조): 40평
● 요사채(1): 110평 창고 겸 요사채 45평
● 가액: 3억 7천만원
011-9457-7060
018-602-7761

곤지암 사찰터
● 전기, 도로, 얼음물 약수터되어 있음 5000평 - 평 18만원
●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300M 5166평(관리지역) - 평 15만원 허가득 즉시불사 됨
011-9109-3660
011-9004-3613

사찰터안내
● 위치: 부산
● 대지 200~1000평
● 법당 30~50평 (목조건물)다량확보
● 가액: 5억~20억
영규불사
010-9798-1091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10만원 시설비 : 답사후결정(집기일체)
019-656-276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상계동 소재
● 아담하고 수려한 경관 (계곡 옆) 사찰 팝니다
● 국유지 53평(밭도 있음)
● 가액: 3억
02)951-93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사 찰 안 내
● 위치:전라남도 장흥
● 법당: 20평, 대지: 350평
● 요사채, 선방, 삼성각, 공양실 총 5동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2억 (절충가능) 전세도 가능
016-9660-134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동구 불로동 대구은행 부근
● 65평, 4층 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일체 제공
011-9361-55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건물3동
● 총평수: 1,000평
● 가액 : 4억 8천만원
010-2728-195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운영같이하실분모심
● 위치: 언양(울산)근교
● 규모: 면적 약 5000평 건물 사찰 300평(현재 운영중)
● 참여하실분: 능력 또는 약간의 재력이 있는분 누구나 동참 바람
052)263-5143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500여평(무상임대)
● 법당: 20여평(건물만등기) 기타 : 방3개
● 특징: 물이 좋은 아담한 숲속 차진입, 약 70여년의 연혁
● 참고:납골당 또는 실버타운 최적지
● 5,000여평 불하 가능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 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 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략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평수: 2층 60평
● 주지실, 상담실, 공양실, 욕실, 삼존불과 후불 산신.신중.관음.지장탱화 소불 520불 집기일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83-50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온천시장 뒷길
● 2층건물 중 2층 , 60평
●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조성비): 3천만원
051) 554-2406
011-843-2403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3,650평 (남서향)해발 450M
● 부지내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
● 울산시내가 한눈에 뒤로는 동해 바다가 보임, 임도접, 등산로접 (유일한 등산코스, 등산객 많음) 신흥주택지. apt건설 중
● 가액: 평당가-5만원(조정불가)
017-848-2569

사 찰 (전 세)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경계지역 산과 마을이 인접 국도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사찰 경내에 승용차 20여대 주차 할 수 있음
● 대지 : 300평, 건물 50여평, (신도 300세대 이상)
● 조건 : 속랍 50세 전후 비구니 스님 또는 출가를 희망하는독신여성 위 사찰은 70세 된 노스님 개인 소유이며, 노스님은 또 다른 활동계획이 있어서 참신한 분에게 운영을 위임코자 합니다 (양도도 가능함)
● 가액: 상담 (상담 : 정실장)
011-376-3400/016-364-0390

일주문



금도문도회 신임 운영위원장에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10월 8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금오문도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운영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길상사 극락전에서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을 봉행한다. (02)3672-5945~6



지광 스님, 국제신문 대표이사에

서울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은 10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제신문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지광 스님은 지난 9월 국제신문 이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사회복지재단 보육교사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10월 21~22일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2006년 산하시설 보육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제3회 원주종교 산사음악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0월 22일 오후 1시 구룡사 은행나무 밑에서 3대 종교가 참여하는 제3회 원주종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732-4800



나눔기념법회 및 자선음악회

광진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경 스님은 11월 10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 공개홀에서 나눔기념법회 및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제2회 월봉사 문화 · 예술 축제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은 10월 14일 경내에서 소외된 노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제2회 월봉사 문화 · 예술 축제를 개최했다.



'생명과 선식' 주제 강연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10월 23일 오후 2시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리는 시민건강무료강좌에서 '생명과 선식'을 주제로 강연한다.



중국 중앙음악학원 객좌교수에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10월 11일 중국 중앙음악학원 객좌교수로 위촉됐다. 한국인이 객좌교수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 큰일꾼 화합한마당

한국불교기자협회 여태동 회장은 10월 2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종단협 회장배 '불교계 큰일꾼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

창간 12주년 '현대불교'의 특별한 독자 2인

"아내가 챙겨주는 일주일치 '영양소' 예요"

샅샅이 읽으며 불교공부 자료 삼는 한기창 씨

통계관련 공무원인 한기창(43 · 사진)씨는 집은 광주이고 근무처는 땅끝 해남이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광주로 달려오는 주말부부 생활이 2년째다. 그러다보니 한씨의 일상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

"매주 집을 나설 때면 '현대불교'부터 챙깁니다. 일간지는 하루 지나면 구문이 되지만 '현대불교'는 며칠을 두고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씨와 '현대불교'의 인연은 객지생활 하기 전부터 있었다. 신심 깊은 부인이 '현대불교'를 구독하게 됐고, 한기창씨는 어쩌다 한번 펼쳐 보곤 했다. 그때는 흔히 말하는 '무늬만 불자'였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가족들을 사찰까지 배웅하는 친절은 베풀지만, 법회에 함께 참석하기보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다가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외로움은 커져갔다. 객지생활은 생각보다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 '현대불교'가 다가왔다.

매주 부인이 일주일분의 반찬거리와 함께 건네준 신문이었다. 신문에 나와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스님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큰스님들의 법문과 생활을 엿보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의 고정 팬이 됐다. 원철 스님의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에서는 매번 감탄을 금치 못한다.



"잘 그려진 '그림'은 일주일 내내 감동을 줍니다. 원철 스님의 '할…방…'이나 '길을 묻는 이에게'에 나오는 삽화에서 촌철살인의 선기(禪機)까지 느낍니다."

신문은 집에서 부인이 먼저 받아본다.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 편인 부인이 주요단락마다 줄을 그어놓는다. 이제는 그가 부인이 밑줄 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곤 한다. 한씨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현대불교'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만난 '현대불교'를 통해 나름대로 '불교 통'이 되었다. 틈틈이 가족과 함께 신문에서 소개한 법회에도 참석하고, 좋은 기사는 동료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현대불교신문 읽는 재미를 나눌 생각이다. **광주=이준엽 기자**

"법문 · 수행 · 차 · 문화 기사 좋아합니다"

묵은 신문도 안버리고 '보고 또 보고' 이상호 씨



"정보 전달이라는 통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넘어, 불자들을 수행으로 이끌며 한국불교 발전을 선도하는 현대불교신문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창간 독자로서 본지와 12년을 함께 호흡해온 이상호(43 · 사진)씨. 위덕대 석사논문 '중국선종 수행법에 나타난 의정에 대한 연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이씨는 현재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 근무하며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에서 한국불교를 전공하고 있다.

본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대뜸 "고맙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씨는 "현대불교가 늦게 출발했지만 참신한 이미지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창간 초기를 회상하며 "수행 기사 비중이 높아 어느 신문보다도 '공부'에 도움 되는 신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불교언론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조계사 선원장 초청법회, 범어사 설선대법회,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봉선사 강설대법회 등 큼직한 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수행풍토를 진작시킨 원력은 놀라울 정도"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법문 · 수행면 못지않게 좋아하는 면으로 그는 차(茶)와 웰빙 · 문화면을 꼽았다. 이씨는 "'내 종교는 불교'라는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이들 기사는 불자다운 생활문화를 일구는 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직장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생활에도 "현대불교 읽기를 거른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에게 비결을 묻자 "모든 기사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유롭고 편하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느긋하게 읽다보면 흡수도 더 잘 된다는 것. 이씨는 신문을 몇달치씩 쌓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읽으며 곱씹어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대불교'는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불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포착하고,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익순 기자**



조계사 70년만에 현판 제막식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0월 9일 총무원장 지관, 원로의원 동춘, 총무부장 현문, 기획실장 승원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각부 · 국장급 스님들과 김충용 종로구청장, 정하건 한국서예가협회회장, 전각장 오옥진씨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일주문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현판이 걸린 것은 현재 견지동 터에 조계사가 자리 잡은 지 70여년만의 일이다.

지관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성역화 불사로 조계사가 뒤늦게나마 제 모습을 찾고 총본산의 이름에 맞는 현판을 걸게 된 것을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김상래 · 김재철 군법사 대령으로 진급





국방부는 9월 28일 국방부 군종실 김상래 법사(사진 왼쪽)와 공군 군종실 김재철 법사(오른쪽)가 대령 진급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상래 법사는 1980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82년 범어사 무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이후 육군본부 군종실, 교육사령부, 2군 사령부를 거쳐 현재 국방부 군종실에 근무하고 있다.

8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김재철 법사는 통도사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86년 공군 중위로 임관했다. 현재 공군본부 군종실에서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장학금' 전달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11일 불교환경장학생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혜자는 김용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사진 왼쪽)씨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홍원,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김영준씨다.

백련사 주민화합 제2회 산사음악회



서울 백련사(주지 설산)는 10월 11일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개그맨 이의환, 불교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씨의 사회로 주현미, 설운도, 김종환, 이수나, 리미티드, 임석범, 바라솔리스트앙상블(사진), 강태선(해바라기 객원싱어) 등이 출연해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 등을 선사했다.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스님 옮김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천만 불자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 줄
아주 특별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평생 동안 보고 듣고 기록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난존자의 일생의 기록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부처님 당시 사부대중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국판양장 | 각 702, 710쪽 | 각 28,000원



아난존자의 일기 ①② 전2권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926-8361, 팩스 926-8362 붓다북 www.buddhabook.co.kr

氣功지도사 과정 수련생모집
3박4일코-스(회비 53만원)

골반을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이 골반, 척추의 변형인데 근본을
놓아두고 어찌 병을 치료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골반,척추를 바로잡는 수련법이 있습니다.
※상기증에 시달리시는 스님, 숨 못 쉬는 스님들 꼭 오세요

수련내용

천심양기법 - 소주천속성법 - 천지관기법 - 복부진단법 - 좌골신경통소통법
기륙자동법 - 지기상달법 - 진동공(사기배출법) - 온냉교구법 - 견비통오십견대칭요법
임.독맥소통법 - 의념력수련법 - 불문진단법 - 혈해혈소통법 - 편두통해소법
순환계소통법 - 천기하달법 - 적취(만병의원인)해소법 - 남성학강좌 - 제신공
배설계소통법 - 전신개혈법 - 안면신경마비해소법 - 정맥류해소법

○ 현대인의 복부 돌처럼 굳어있다.
만병의 원인 복부비만, 변비, 뱃속에 쌓인 「적취」간단하게 푸는법.
남, 여, 노, 소 누구나 아주 쉽게 골반 바로잡는다.

죽어도 안 빠지는 내장지방 간단하게 녹이는 비법공개!
※음악(생기광CD)을 듣는것만으로도 손에서 氣가 나오고 사기가 배출되는 CD판매중

14년전통 천일氣문화센타 http://www.chgg.co.kr
소백산 수련원 : (054)637-9810 서울본회 : (02)3436-3206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불자 세상보기

박 찬
시인 ·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UN, 반기문 총장 시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 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공식회의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되었다. 유엔은 14일 새벽(뉴욕시간 13일 오후) 총회를 열어 반 장관을 다음 사무총장으로 인준할 예정이다. 총회의 추인을 받으면 반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5년의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은 반 장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경사로 크게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유엔의 행정 책임자로서 반 장관의 책임과 의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유엔의 3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저개발 국가의 개발과 빈곤타파, 인권보호 실현 등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단일후보로 추천되던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국제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그의 말대로 '기뻐해야 할 순간에 무거운 마음'이 앞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리즘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가 떠맡아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일부 선진 국가들의 '유엔무용론'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엔의 개혁도 그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반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 192개 회원국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대변하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 해결에 특히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헌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반 장관이 한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반 장관의 총장 추천은 아시아의 몫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반 장관 개인의 역량과 매력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중국이 아시아 지분을 강력히 주장한 때문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장차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이 지역의 구조적 불안정을 비롯해 빈곤과 저개발,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총장 선출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엔은 5대 상임이사국이 좌지우지 한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외교 수단으로서 유엔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대다수 회원국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특권 국가들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중간자로서 조정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엔 권력구조의 개편,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 유엔의 개혁을 통해 21세기 유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7년간 외교관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이 새로운 기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반 장관의 포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청정선거, 청정종단의 토대

사람이 스스로를 모독하지 않는데 남이 모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기에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야 하고, 스스로의 공동체를 화합된 모습으로 지켜 나가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말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불자들과 불자들의 공동체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정성과 화합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곳이 스님들과 스님들의 공동체인 출가승단이다.

그러한 기대와 여망이 집중되기에 스님들과 승단의 조그만 잘못도 일파만파 식의 큰 파장을 불러 오게 마련이다. 뜻있는 사부대중 모두가 이러한 파장에 가슴을 쳐 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직도 불법 자체의 수승함조차 도매금으로 조소와 의심의 대상이 됐던 수모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과 국민의 눈이 복잡한 빛을 띨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들이 과거 거대 종단의 큰 행사에서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죄경력자들이 종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종무원법 개악이 있었기에 한층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선원 강원 율원 등 직능 대표들의 종회진출 요구 등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면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번 종회선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큰 관심거리다. 이미 의혹이 깃든 눈초리들이 집중된 마당이기에 의혹의 대상이 될 만한 의원이 선출된다면 아무리 변명해도 의혹을 확증시키기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또 지켜지지 않는다면 청정승단에 대한 불자들과 국민의 존경심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절차와 제도들도 스님들이 운용하니 정말 싱싱한 초세간적인 맛이 난다는 찬탄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바람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문으로 비웃어지는 것이 오늘의 종단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습이 이번 종회의원 선거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오는 11월 이사회의 총장 선임을 앞두고 동국대 교수회와 노조가 9월 28일 총장 후보로 이황우 교수(경찰행정학과)와 보광 스님(선학과)을 선출했다. 이사장 영배 스님은 교수회와 노조가 선출하는 총장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 고조가 예견되고 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을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했다.

"동국대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돈독한 신심 △전문경영능력 △발전기금 유치능력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수위를 차지한 항목은 전문경영능력으로, 75명(34%)이 선택했다. 그 뒤를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61명, 28%)과 돈독한 신심(57명, 26%)이 이었다. 발전기금 유치능력(14명, 6%)이나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11명, 5%)을 꼽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정리=박익순 기자

(조사기간 9. 20~10. 10 참여자 218명)

동국대 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

돈독한 신심	57명(26%)
전문경영능력	75명(34%)
발전기금 유치능력	14명(6%)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61명(28%)
종단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11명(5%)

특별기고 한글창제 560돌을 보내며

우리말과 글 속 민족정신 바로알자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나갔다. 올해는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승격된 뒤 처음으로 맞는 한글날이라 그 의미가 컸다. 그래서 560돌을 맞은 한글날 기념식장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날은 그 의미에 비해 썰렁하게 지나갔다.

인터넷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은 급격하게 언어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채팅언어는 외국어를 방불케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고받는 문자들 역시 의사소통의 기본 기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질서는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채팅과 문자 메시지가 갖는 편리성 뒤에는 우리의 언어생활 자체를 왜곡시키는 무서운 '습관'들이 침략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시신앙 가운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족이었던 우리 선조는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의 '나'는 '라'가 변한 말이다. '라'는 태양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우리 선조는 자신을 태양과 동일시하는 높은 기상을 가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병식 선생은 우리말의 원시조어에서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드넓은 세계관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말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삶의 지향이었던 것이다.

BC 4천년전 쯤에 문자로 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남긴 수메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abba)'라 부르고 어머니를 '아마(ama)', 아내를 '마라(mara=여자)'라 불렀다. 오늘의 우리말과 흡사한 것은 우연일까?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자로 알려진 한자도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주장에 나는 공감한다. AD543년에 만들어진 한문사전 <옥편>에는 한자를 읽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4성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그것이다. 이 4성의 발음기호를 따라 읽어야 한자의 정확한 뜻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평성은 낮지도 높지도 않게 고르게 말하는 소리다. 상성은 강하게 높이 부르짖는 소리이고 거성은 분명하게 슬픈 듯이 멀게 말하는 소리다. 입성은 짧고 촉급하게 거두어 감추는 소리로 'ㄱ' 'ㄹ' 'ㅂ'으로 끝나는 소리가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입성은 계절로 치면 겨울에 해당하는 발음이다. 겨울이 없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 중국의 화화족(한족)들은 입성을 발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북녘 북(北)을 발음 할 때 입성의 발음기호대로는 '북'이라 일음절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음절로 발음하지 못하고 '베이'라 한다.

<옥편>의 30% 이상이 입성 발음인 것으로 볼 때 한자는 겨울이 있는 지금의 동북3성(길림 요녕 흑룡강)과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등의 옛 동이족의 활동무대에서 만들어진 문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일본어와 현대일본어를 연구하면 거기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언어가 상당히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의 시조가 우리 선조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민족은 한자와 한글의 모체라는 가림토문자, 이두문자, 한글 등 네 가지의 문자를 창제한 위대한 민족이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대한 말을 위대한 글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우리말에 담긴 우리민족의 정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내'가 '안에 있는 해'를 뜻한다는 것과 '아이'가 '작은 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아버지의 '아'는 '높다' '크다' '빛난다'는 뜻이고 '버'는 본래 '하'였는데 태양을 뜻하는 말이다. '지'는 소유격의 의미다. 즉 '아버지'의 원어는 '아하지'이며 '높은 태양인 사람'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는 높은 태양이며 그의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며 그 부부가 낳은 아이는 작은 태양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선진부족이 우리의 선조였고 그들의 말과 문자가 우리의 핏줄기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은 바로 태양과 같이 스스로 밝고 찬란한 인격에 대한 지향이었다. 언어질서는 사회질서이고 민족정신의 반영이다. 우리말과 글이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에 스민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저변부터 확대해야 한다.

강동민(한민족문화연구원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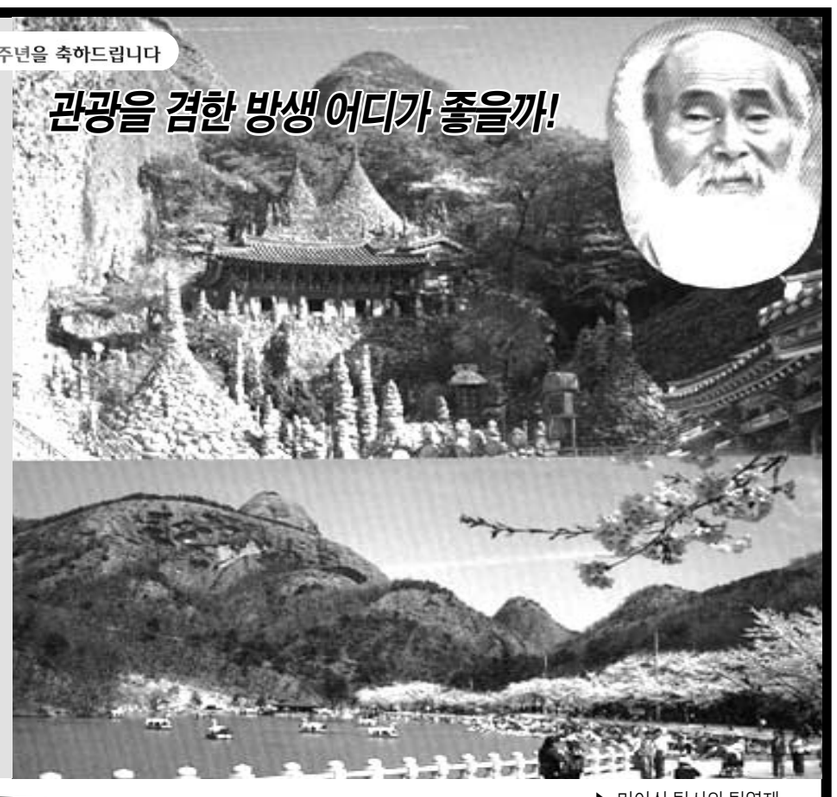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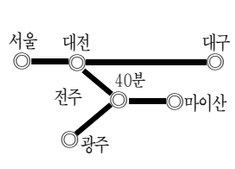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R304
순정용품
MOBIS
CaRFE
시선의 비밀은
모비스 카페에 있다.
SUV용품의 모든 것, 모비스카페로 오십시오!
당신만이 소유한 SUV용품 하나가 SUV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SUV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 모비스 카페입니다.
※모비스 카페에서 만나세요 ※문의 : (02) 2018-5832
MOBIS CaRFE
자동차용품 전문점

아·름·다·운 삶·사람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0월15일 일요일 (주간) 제 599 호

‘솔기 없는 옷’ 한 벌 지어 당신께 바치고 싶어라

열두 살 ‘현대불교’가 스님께 띄우는 편지

스님,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푸르고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단풍의 행렬은 만물의 본체를 드러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단풍을 열두 번 째 맞이하는 제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를 얼마나 견지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아 늘 고뇌했지만 막상 큰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하여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열두 살 생일 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아, 돈으로 따지는 값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하여 그 사람이 더 귀해지는 것이 아닌 줄이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요. 날마다 가식의 옷을 껴입으며 사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명품’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으신 스님, 그 옷의 진정한 값을 가르쳐 주시면 세간 사람들의 ‘명품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요? 가식의 옷을 한 겹씩 벗으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올해로 꼭 100세를 맞은 김필례(대전시 중구 원동) 보살님은 매일, 일흔 여섯 살 따님이 운영하는 승복점에 나가 하루 종일 승복 바느질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직접 꿰고 소침으로 한 땀 한 땀 떠 나가는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어느 날 그 보살님 바느질 하시는 것을 한참 구경했습니다. 처음엔 100세의 보살님이 승복 바느질을 하신다기에 신기한 마음으로 찾아 갔지만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무슨 물건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묻는 왕에게 혜충국사(?~775)는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다지요? 쌓은 흔적과 이음새가 없는 무봉탑이 세상에 있다 한들 그 형상을 볼 눈이 없으면 어찌 그것이 귀한 줄 알겠습니까. 100세의 김필례 보살님도 스님들의 법의를 지으며 ‘내가 지은 이 옷을 입은 스님이 부디 성불하여 중생제도 하시길…’ 하는 마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솔기 없는 옷 한 벌 지어 천하의 중생을 제도할 스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승복을 짓는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스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삼 서 근’으로 지은 동산(910~990) 스님의 옷은 청천벽력 같은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방의 운수들을 입히고도 넉넉하여 삼천대천세계를 덮고 있습니까? 부처를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하고 ‘장림산 밑에 있는 대나무 지팡이’라고 하던 옛 스님들의 견처는 지금도 여여하게 광채를 발하고 있는지요?

혹 빛나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빛이 깊은 산이나 바다 속으로 숨어 버리진 않았는지요? 자태가 고운 아씨 때의 바느질 솜씨를 아끼고 아껴 두었다가 승복 짓는 일로 세상을 마치고자 3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바느질을 한다는 노(老)보살님. 그 정성이라면 옛 스승들의 견처에 솔기 없는 법복 한 벌 공양 올릴 만 하지 않을까요?

스님,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후일 인적이 끊어진 곳에 암자를 세우고 한 톨의 쌀도 저축하지 않고 한 포기 채소도 심지 않고 항상 시방에 왕래하는 대선지식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본래면목을 얽어매는 못과 문설주를 모조리 뽑아주고 기름때에 절은 모자와 노린내 나는 적삼을 훌훌 벗어버려 그들 모두가 그지없이 청정한 경지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던 동산 스님의 외침을….

스님, 입을 줄만 알고 벗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식과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옷들을 훌훌 벗어 던지고 ‘무봉탑’과 ‘삼 서 근’의 휘황찬란한 깨우침을 입을 수 있도록….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재 100세 나이에도 매일 승복 짓는 바느질 삼매에 드는 대전의 김필례 보살.

> 지금 입고 계신 옷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승복 짓는 일로 세상을 마치고자 3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바느질 한다는 100세의 김필례 보살님. 그 정성이라면 옛 스승들의 견처에 솔기없는 법복 한 벌 공양 올릴 만 하지 않을까요? 스님, 입을 줄만 알고 벗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 향해 한 말씀 해 주세요. 가식과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무봉탑’과 ‘삼 서 근’의 깨우침을 입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부처님 성지 찾아 국태민안(國泰民安) 발원하며

108산사 찾아 108배로 108번뇌 소멸하고
108염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으십시오



금강산 신계사에서 한라산 관음사까지
한반도 곳곳에 새로운 신행문화의 법등(法燈)이 밝혀집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성지순례 기도법회의 새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세월을 머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물,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염불과 기도, 108참회, 축원,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발원문,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봉행할 것입니다.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가 찾아 갈 108산사
●각원사 ●갑 사 ●개심사 ●겨조암 ●견봉사 ●경국사 ●고란사 ●고산사 ●고운사 ●관음사 ●관음암 ●관촉사 ●광덕사 ●구룡사 ●금당사 ●금산사 ●기림사 ●김룡사 ●낙산사 ●내소사 ●내원사 ●내장사 ●대승사 ●대전사 ●대흥사 ●도갑사 ●도리사 ●도선사 ●도안사 ●동학사 ●동화사 ●마곡사 ●무량사 ●무위사 ●문수암 ●백담사 ●백련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경사 ●보광사 ●보덕사 ●보리암 ●보문사 ●봉녕사 ●봉선사 ●봉암사 ●봉은사 ●봉정사 ●봉정암 ●부석사 ●분황사 ●불국사 ●불암사 ●불영사 ●삼화사 ●상원사 ●석굴암 ●석남사 ●선본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수도사 ●신륵사 ●신원사 ●신흥사 ●쌍계사 ●안국사 ●연곡사 ●연주암 ●영국사 ●오어사 ●옥천사 ●완주 송광사 ●용덕사 ●용문사 ●용연사 ●용주사 ●운문사 ●운주사 ●월정사 ●은해사 ●자재암 ●장곡사 ●전등사 ●정암사 ●제주 관음사 ●조계사 ●직지사 ●천은사 ●청암사 ●청평사 ●칠장사 ●통도사 ●파계사 ●표충사 ●해운사 ●해인사 ●향일암 ●현등사 ●화계사 ●화엄사 ●흥국사 ●희방사

▶문의 및 접수 :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02-9000-193~4)

● 선묵 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出刊







선묵 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지음 _ 화남 펴냄 _ 정가 20,000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2> 맑고 깨끗한 지혜는 선정에서 생겨나

모든 수행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부처님의 계율(戒律)을 지녀야 좌선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禪定)이 생기고, 이 고요한 선정으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智慧)가 생긴다. 먼저 지혜가 있고 나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먼저 선정에 들어가고 나서 계율을 지닌다는 것은 옳은 이치가 아니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참다운 지혜가 아니고, 계율이 없는 선정은 참된 선정이 아니다. 계율이 아니면 선정은 완성되지 않고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선가귀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참선을 하는 수행자라면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해져서 선정의 힘이 길러지고, 이 선정의 힘에서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가 싹트는 것이다. <선가귀감> 42장에서는 말한다.

無碍淸淨慧 皆因禪定生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 지혜는 모두 선정에서 생겨나느니라.

맑고 깨끗한 부처님 지혜가 생겨나는 선정에 대해 이 게송의 출처인 <원각경> 변음보살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보살이 지녀야 할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 지혜'는 모두 선정에서 생겨난다. 이 선정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수행하는 법을 '단숨에 깨치는 법'과 '점차 닦아 나가는 법'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스물다섯 종류가 된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과거현재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도 이 법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없다"

선정에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니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사마타관(奢摩他觀)' '삼마발제관(三摩鉢提觀)' '선나관(禪那觀)'의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이 세 종류의 관법(觀法)에 모든 수행의 바탕이 들어있으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사마타 · 삼마발제 · 선나 등 관법수행의 바탕
선정의 힘 깊어지면 육신의 생사 자유로워져

첫째 '사마타관'이란 부처님의 세상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고요한 경계'를 취하여 점차 수행을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 수행을 하면 어지러운 생각들과 번거로운 알음알이들이 사라진다. 이 자리에 밝은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이 사라지니 그 안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수행하는 방편을 '사마타관'이라고 하며 '정관(靜觀)'이라 말하기도 한다. '사마타'는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적정(寂靜)'의 뜻을 갖고 있다.

둘째 '삼마발제관'이란 부처님의 세상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이 세상 모든 경계가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에 실체가 없는 허깨비와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연의 실체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허깨비와 같은 경계들을 제거하게 되면 수행자는 그 과정에서 편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 힘으로 중생계의 잘못된 흐름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면서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잃지 않는 이 방편을 '삼마발제관'이라고 하고, 환관(幻觀)이라 말하기도 하며 '위빠사나'라고 하기도 한다. '삼마발제'는 모든 법이란 인연이 모이면 허깨비처럼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허깨비처럼 사라진다는 '변화(變化)'의 뜻을 갖고 있다.

셋째 '선나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날 뿐, 실체가 없는 허깨비와 같은 줄 알아 집착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고요한 모습조차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고요한 경계를 취하는 '사마타관'이나 이 세상 모든 변화의 실체를 아는 '삼마발제관'의 경계를 뛰어넘고, 깨달음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경계조차 영원히 초월하는 것이다.

부처님 세상에서는 번뇌와 열반이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듯, 지금 존재하는 세계와 몸과 마음이 중생의 영역에 있더라도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적멸(寂滅)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깨달음으로서 '적멸'의 경계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곳이니 이 방편을 '선나관'이라고 하며, '적관(寂觀)'이라 말하기도 한다. '선나'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하다는 '적멸'의 뜻을 갖고 있다.

대충 정리해 보면 '사마타관'은 색(色)이 곧 공(空)임을 알고 허망한 것을 버리고 공성(空性)인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정이고, '삼마발제관'은 공(空)이 곧 색(色)임을 알고 법계(法界)에서 일어나는 연기법(緣起法)으로써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선정이다.

'선나관'은 이 두 가지 경계를 동시에 이루면서 이 두 가지 경계를 뛰어넘어 중생의 영역을 초월하려는 부처님의 선정이다. '선나'의 '적멸(寂滅)'에서 '적(寂)'이란 사마타 '적정(寂靜)'의 '적(寂)'과 같고, '멸(滅)'이란 삼마발제 '환멸(幻滅)'의 멸(滅)과 같으니, '선나관' 속에 '사마타관'과 '삼마발제관'이 녹아 있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런 선정의 힘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超凡入聖 坐脫立亡者 皆禪定之力也. 故云 欲求聖道 離此無路

범부가 성인이 되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기도 하는 것은 다 선정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러기에 "성스런 도를 찾으려면 선정을 떠나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한다.

선정을 잘 닦은 사람들은 '좌탈입망(坐脫立亡)'을 한다고 한다. '좌탈(坐脫)'은 앉아서 죽는 것이요 '입망(立亡)'은 서서 죽는 것이다. '좌탈입망'이란 선정의 힘이 깊어지면 육신의 생사에 자유자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앞서간 고승들이 고통 없이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다 선정의 힘 때문이다. 부처님의 온갖 지혜와 덕행도 모두 이 선정의 힘에서 나오니, 성스런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만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지심귀명례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삼성각(三聖閣)

어느 불교학과 노교수는 불교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보응성(相互普應性)'이라고. '조건 없이 서로를 넓게 비춰 끌어안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불교사상의 포용성과 수용성이 탁월하다는 뜻일 겁니다. 하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 한국, 미얀마, 태국 등 전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현지 전통문화와 큰 마찰이 생기지 않았잖습니까?

삼성각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전각입니다. 삼성각은 산신(山神)과 칠성(七星), 독성(獨聖)을 한데 모신 건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불교적으로 수용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과 칠성과 독성은 각각 독립된 전각에 봉안되기도 합니다. 산신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악인 점에 비추어 쉽사리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얀 수염의 산신할아버지는 호랑이와 콤비를 이루고 있지요. 호환(虎患)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이 만들어낸 상징이었을 겁니다.

칠성은 수명을 담당하는 북두칠성의 화신으로 신앙의 뿌리가 대단히 깊습니다. 북두각(北斗閣)이라고도 하지요. 독성은 나반존자(那畔尊者)라고 하며 홀로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깨달아 독성(獨聖)이라고 합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산신과 용왕과 독성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고려말의 삼대성승인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의 삼성(三聖)에 칠성과 독성을 봉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3강 유교, 노장, 불교, 법가, 그리고 시정의 사유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

동아시아에는 대략 다섯 개의 길이 있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이와 차이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내가 정리해 본 것이다. <금강경> 원고를 앞에 놓고 있다가 북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는 휘황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묵은 원고로 대신한다. 오늘, 법가의 길과 사마천의 현실주의가 가슴 속에 사무친다.

길이란 무엇인가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도 걷는다." 동물과 달리 본능이 길을 열어주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선택에 의해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길을 가리키는 도(道)라는 글자는 '천안삼거리 같은 갈림길(行)에서 머리(首)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형상으로 그려졌다. 이 주저를 접고 과감히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처음 길이 생겼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길이, 앞 사람의 흔적을 보고 다른 사람이 뒤따름으로써 길은 점점 넓혀져 큰 길이 되었다. 처음 사상이었던 길이 그렇게 해서 문화가 되고, 이윽고 전통이 되었다.

그 길을 의심한 사람들이, 가시덤불에 새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고, 어느덧 수많은 길이 생겼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이하여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길을 정했다. 별의 징조를 읽는 천문과 땅의 의미를 읽는 지리가 발달했던 바, 처음 사람들은 그 상징적 지시에 따라 의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었다.

공자가 걸은 길

공자의 유교는 천도(天道)의 상징적 역할과 결별하고, 인도의 독자성에 입각한 휴머니즘을 제창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각과 훈련을 통해 이룩해야할 인격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 자리잡을 사회적 질서를 꿈꾸었다. "그날이 온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朝聞道, 夕死可矣)"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시켜줄 뜻있는 권력은 없었다. 나이 오십에 천하를 철환(轍環)하던 동키호테는 허연 수염으로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옛 문화의 전적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가 그린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화하자면 제도보다는 인격, 형벌보다는 감화에 의해 추종되는 사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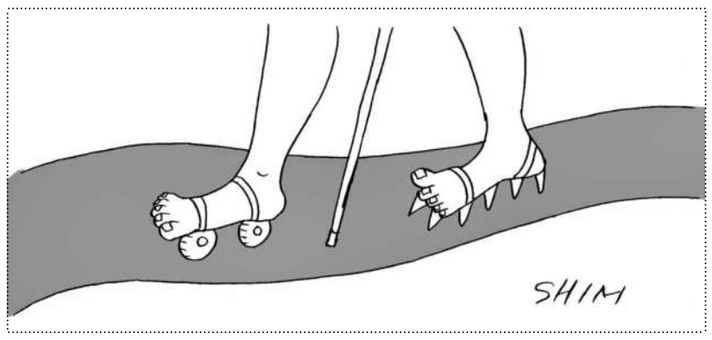
공자는 인간의 덕성이, 추상적 이념과 가치를 의식화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이라는 구체적 관계의 장에서 실천적으로, 이를테면 부모에 대한 효도, 연장자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육성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치의 관건은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이렇게 배양된 인격이었다. 그는 이 인식을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도를 넓힐 수 있다(人能弘道, 非道弘人)"라는 말로 요약했다.

당대의 권력과 후대의 비판자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건전한 인격에 건 이 순진한 이상주의자를 비웃는데 익숙하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관건은 지식보다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느냐가 그 일의 성패와 시비를 이미 가르는 것은 아닐까. 맹자의 말마따나 "어린애를 키우는 법을 배운 다음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아이를 향하는 염려와 관심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끌지 않겠는가. 그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법가가 시행한 길

법가는 공자의 길이 너무 더디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격과 교양을 믿지 않고 법과 제도를 말한다. "옛 전통과 고전은 변화된 시대에 의미가 없으며, 인격을 통한 감화는 적나라한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



법가는 "유교의 원리로는 자식 교육도 기약할 수 없다"고 혀를 찬다. 유가의 길은 이를테면, 수주대토(守株待兎). 우연히 나무 아래서 죽은 토끼 한 마리를 건진 농부가, 아예 농사를 작파하고 나무밑에서 토끼들이 받혀 죽기를 기다린 어리석음에 견주었다.

한비는 말한다.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합당하면 상을 주고, 그에 어긋나면 벌을 준다. 농사에 매진하고 국방에 기여할 때는 상을 주고,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거나 떼를 지어 건들거리면 벌을 준다. 법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효율을 보장한다. 군주가 이 두 자루를 쥐고 있다면 천하를 다스리기는 손바닥보다 쉽다."

근대 시민사회는 전형적으로 법가적 인식 위에 세워진 체계이다. 그렇지 않은가. 시민사회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그들 사이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일탈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장과 불교가 꿈꾼 길

<노자>의 첫머리는 이 모든 소란을 일거에 잠재운다. "너희들이 제시한 길은 진정 인간을 위한 길이 아니다(道可道非常道)" 노장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권위를 거부하여 법가와 맞섰고, 한편 사회와 절연된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고취하는 점에서 유가와도 결별했다.

그 은둔의 개인주의자들은 말한다. "인간은 우주적 과정의 협력자이다. 그 우주적 덕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만 잊혀졌고, 정치적 동원으로 하여 질식하고 있다." 불교 또한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 불교는 노장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 오랜 이기적 습관과 사회적 순치에 의해 가려지고 켜켜이 때가 덮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얼굴과 대면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바뀌는 영적 전환을 겪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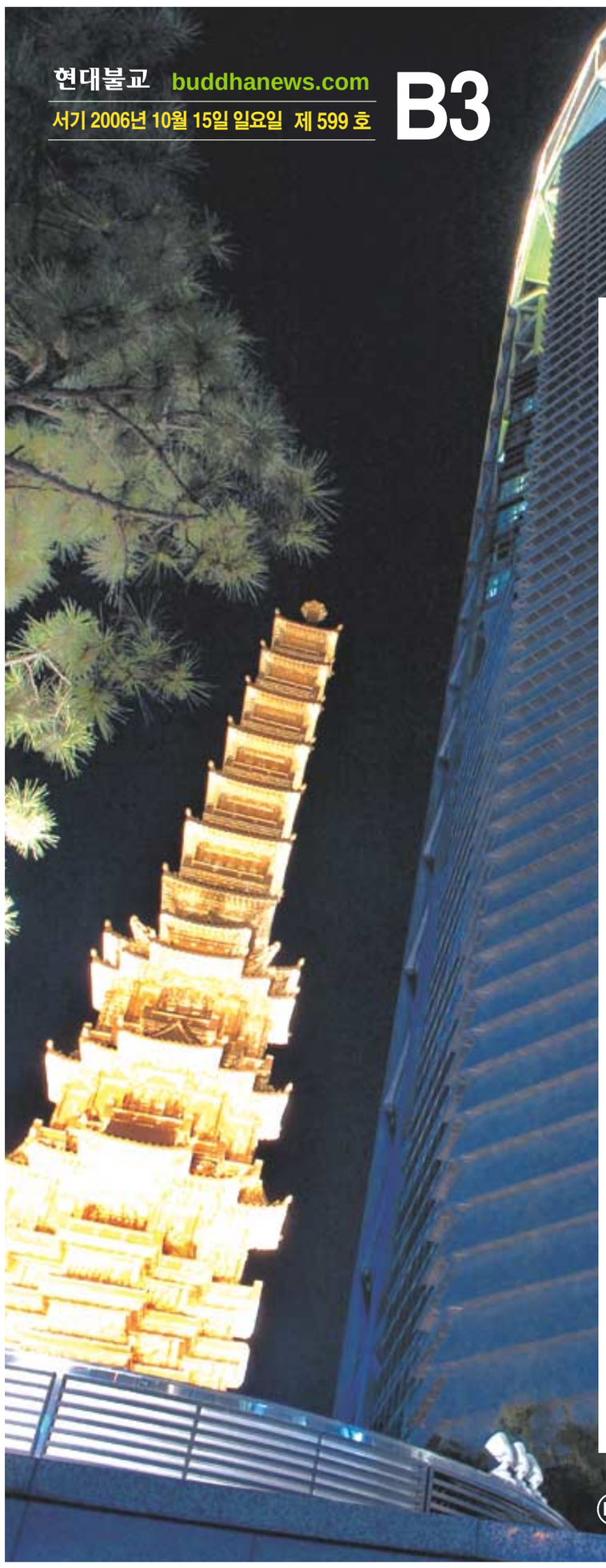
그 통찰 혹은 깨달음에서 세상은 투명하게 드러난다. 자연은 유기적 전체로서 항상하게 진행하며, 법계 또한 자신의 연기적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둥근 모습으로 드러난다. 거기 아무런 부족함도 넘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다. 지식(gnosis) 혹은 깨달음이란 바로 그 사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의 삶은 이 위대한 통찰과 영웅적 수용으로 완성된다. 그것이 자연과의 합일이고, 반야바라밀, 깨달음의 완성이다.

노장과 불교는 이 실존적 통찰이 삶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노장과 불교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 투쟁에 헛되이 기력을 소모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적 지위나 부 등에 신경을 덜 쏟기에 그의 삶은 자연스럽고 단순해진다. 그는 그렇게 남은 에너지를 회향하여 타인을 향해 쓸 수 있게 된다. 노장은 이 근검과 자비가, 불교는 무소유와 보살행이 세상을 건지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사마천과 혜강 최한기가 인정한 길

소시민들은 묻는다. "인간은 그다지 고상한 동물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물학적 삶에 충실하련다. 먹이를 찾고 짝을 찾는 이 욕망에 누가 침을 뱉는가." 이 원리는 널리 수용된 보편적 원리이면서, 기이하게도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천덕꾸러기이기도 하다.

사마천은 현대의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농부들은 곡물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포획물을 공급한다. 기술자는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이들을 널리 유통시킨다. 이런 일은 강제나 교화, 징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기능과 역량을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연적 질서로서의 도(道)가 아니겠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기획

도심속 불교문화

우리 곁에 부처님이 살고 있네

도심공간에 '불교문화 심기' 확산 … 생활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느껴야

고즈넉한 산사, 참선에 든 스님들…. 일반적으로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알고보면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도심에서도 의외로 불교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도심 곳곳에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늘고 있는 것.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 부근은 불교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 지역이다. 불교미술 전시관, 공연장을 비롯해 장례문화, 복지, 강좌 등 불교의 과거 ·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문화공연장, 불교중앙박물관, 법련사 불일미술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등 불교문화를 맛볼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또한 불교문화 콘텐츠 생산자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 1번지로 통하는 조계사는 그 자체가 바로 박물관이다. 대웅전만 보더라도 단청을 비롯한 건축 양식, 상단에 모셔진 삼존불과 탱화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끔씩 조계사를 찾는다는 곽성배(34 · 예금보험공사)씨는 "도심 한가운데 전통이 숨쉬고 신앙심을 키우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라며 "조계사에 오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심속 불교문화의 저변은 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도심 사찰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지만 많은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심 속의 불교문화는 낯설기만 하다.

성공회의 경우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수요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주먹밥 콘서트를 열고 있다. 명동성당 등에서도 짧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한다. 성당이나 교회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심속 사찰이나 포교당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거의 없다.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곧 포교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국내 처음으로 문화조례를 채택한 순천, 부천영화제, 전주 한옥마을, 대구 담 허물기 운동 등의 성공이 대표적인 마인드 변화에서 가져온 결과다. 참여정부는 2004년 이후 부산, 광주, 전주, 경주를 문화 거점 도시로 육성,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타종교의 경우 이같은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사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도심속 전통 · 불교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확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인프라 구축 통한
불교생활화 · 현대화에
집중적인 연구 · 투자 필요
정부시책 · 관련법규 활용해
'문화포교' 기회 더 늘려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홍정의 팀장은 "불교계에서도 문화마인드만 있다면 강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인드의 변화와 함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전시 · 연주 공간을 확보하고 그림이나 음악, 무용 등에 녹아든 불교문화를 일반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사상이 담긴 예술을 접하고 그 체험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불교문화 역시 불자 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불교문화 공간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매일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스님 법문 못지 않게 포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 조계사 인근, 부산 시청역 부산불교회관 인근, 대구 봉산문화거리 등을 불교문화 클러스터로 종단에서 지정해 집중적인 연구 · 투자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윤태석 불일미술관 큐레이터는 "불교 정신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 공연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종단이나 스님들이 훌륭한 작가 발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축된 전시 · 공연 공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 발굴과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 동국대를 비롯한 불교계 교육기관에서 불교문화기획 또는 불교문화콘텐츠 학과를 개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자 예술단체, 예술가 등이 만든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도 불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화, 공예, 조각 등 미술 장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법'이라 불리는 이 법을 근거로 최근 도심에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흥국생명 빌딩 로비에는 재미설치미술가 강익중씨의 '아름다운 강산'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아름다운 강산'은 가로 세로 3인치의 채색 목판 7500개를 배열해 완성한 대작. 조그마한 목판 위에 그려진 작품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 불교, 일상에서 뽑아낸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종각역에 위치한 종로타워 뒤에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모형이 세워져 일반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에는 불교 용어가 하나도 없지만 불교 정신과 상징성을 모두 드러내며 일반인에게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굳이 불교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불교정신을 담은 예술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힘쓸때"라고 말했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B4 도심문화 이끄는 스님들 B5 '한눈에 쏙' 조계사 불교문화 클러스터 B6 지하철역 주변의 불교문화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5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

문화가 포교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문화의 시대, 늘 하는 법회 만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없다. 뭔가 '신선한 충격'과 '은은한 향기'가 필요하다. 사찰을, 법회와 신행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바꾸어 포교효과를 얻는 사찰이 늘고 있다. '문화포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체험성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포교로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 대전 부산의 세 스님으로부터 독특한 문화포교 노하우와 그 효과를 들어봤다.



무구 스님

서울 수효사 주지

"수효사에서는 문화강좌가 매일 열립니다. 법당이 비는 날이 없어요."

서울 수효사 법당은 오전에는 예불과 기도로, 오후에는 문화강좌가 열리는 강의실로 변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는 시간이 없다. 문화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한 주지 무구 스님이 퀼트, 컴퓨터, 요가, 따주기, 찬불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17년전부터 스님 시인들을 초청해 계절마다 시낭송회를 하는 등 다양한 신도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창기 때는 기도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기도만으로는 신도들의 문화와 신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강좌를 개발해서 운영하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그들의 원하는바가 충족되더군요."

문화강좌를 듣고, 사찰에서 열리는 시낭송회에 참가하면서 신도들은 행복을 느꼈다. 행복하니까 절에 더 자주 왔다. 혼자 오다가 친구를, 가족을 동행하면서 절에 오기 시작했다.

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신도들은 문화강좌만 듣는 단순 수강생에서 봉사자로 변신을 시작했다. 수효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에서 반찬도 만들고, 독거어르신의 말벗도 되어줬다. 복지에 새롭게 눈을 뜨고 수효사에서 운영하는 복지대학으로 발길을 돌린 신도들도 생겼다.

"수효사 다니는게 너무 행복하다"는 신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무구 스님은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요즘처럼 포교당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수효사가 살아남은 이유는 오전에는 수행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무구 스님은 "문화적 측면을 겸하지 않고는 도심포교당의 가치는 없다"고 단언한다. "문화 교육적인 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들은 교통 편하고 가까운 포교당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교당에서는 불교와 문화를 항상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 신도들을 맞아야 한다"는 무구 스님.

문화포교, 복지포교를 다져온 무구 스님은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원력을 세운다. 강지연 기자

문화강좌 매일 "법당 비는 날 없어요"
17년전부터 시인 초청 시낭송회 계속



선오 스님

대전 만불선원 주지

"대전불교계가 취약한데 도심포교가 이렇게 가다가는 불교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불교포럼을 준비하게 됐어요. 도심포교의 문제점과 타개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대전 만불선원 주지 선오 스님은 오는 11월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학자, 신행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포럼을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심포교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 파급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1주년을 기념해 작은음악회도 준비한다. 6개월 전에 40~50대 신도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니르바나 합창단'이 찬불가 7곡을 선보인다. "합창단을 격려하고 신도들과 주변 시민들, 만불선원 식구들이 어울리는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고 싶다"는 스님은 "대금 거문고 장고 등 국악 연주자들과 한자이(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4호 '가곡' 보유자)씨 등이 와서 함께 흥을 돋울 것"이라고 음악회를 소개한다.

개원 초기 운영했던 '불화' '국선도' 등 문화학당을, 불교대학 커리큘럼으로 대폭 흡수해 불교문화적인 요소를 강화시킨 대전불교대학을 열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대전불교대학은 불교건축, 불교사, 교리, 불화의 세계, 포교방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선오 스님은 불교문화 강의를 맡아 '돈황불교미술'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건축' 등을 강의해 인기다. 10월 12일에는 한선학 고판화 박물관장을 초청해 '목판화의 세계' 강의를 들었고 11월 19일 고판화박물관을 찾아가 고판화 관람과 인경체험을 할 계획이다.

충남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만불선원은 위치 탓인지 근처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수시로 모이는 모임터로 변신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합동법회도 본다.

스님은 내년 초파일에 만불선원을 또다른 형태의 문화교육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불교상담관련 전문인 5~6명 이틀간 초빙해 불자들이 들을 수 있는 심층강좌를 제공하겠다는 것. 어린이 한자교실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불교계가 일차적으로 인드라망을 구성해 신도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 · 포교 · 교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정법불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원력이다. 강지연 기자

활동가들과 포럼구성 · 포교모델 개발
불교대학서 불교미술 등 직접강의 '인기'



수진 스님

부산 해인정사 주지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 어찌 부처님 가르침 뿐이겠습니까? 마음을 울리는 한곡의 노래가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람의 심성을 맑힐 수도 있는 것이죠."

10월 28일 불교전문밴드 '해조음' 정기 연주회와 해인문화회관 개원식을 앞두고 있는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문화포교는 21세기 포교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 문화 포교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대뜸 1980년도 초반 비진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려준다.

"안거를 해제하고 비진도에 갔다가 섬마을 아이들 5~6명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내가 동화처럼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어두운 얼굴이 펴지질 않는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아이에게 하모니카로 동요 몇 곡을 들려줬죠."

결과는 스님도 놀랐을 정도였다. 아이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피어났다. 스님은 그때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보다 감각적으로 불교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을 깨닫고 문화포교의 원력을 쌓아왔다.

스님은 2005년 불교전문밴드 '해조음'을 창단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연극에 매진하는 이들을 위한 후원도 해오고 있다. 단돈 몇 십만 원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향후 '신인희곡상'을 제정, 21세기의 대안이 될 불교를 현대적 언어로 각색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을 세웠다.

특히 28일 개원하는 100평 규모의 해인문화회관에는 다이나코드, JBL 등 최고의 명품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진 스님은 "앞으로 문화회관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열고 해인다도회 강습, 어린이 다도 학교, 시민선원 등을 열어 스스로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둔 문화 포교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8일 해인문화회관 개원, 문화포교 박차
불교전문밴드 창단하고 연극인 후원도

도심에서 불교 문화강좌를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강좌들이 도심속 사찰 · 박물관 · 신행단체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다도강좌는 대중화된 대표적인 케이스. 꽃꽂이, 사경, 춤, 서각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한다.



보은정사 다도강좌 모습

지역	사찰/박물관	강 좌	연락처
서울	불광사	꽃꽂이, 사경, 동양화	(02)417-2551
	봉은사	생활태극권, 다도, 웰다잉2기	(02)511-6070
	조계사	불화, 다도, 요가, 서예, 찬불가, 꽃꽂이	(02)732-2183
	수효사	컴퓨터, 퀼트, 요가, 성훈따주기, 찬불가	(02)313-5124
	전국비구니회	요가,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다도, 민화, 불화, 꽃꽂이, 서양화, 도자기, 사찰음식, 서예	(02)3411-8106
	불교문화센터	패션페인팅, 서예, 민화, 유화, 서양화, 사군자/문인화, 춤요가, 요가, 단청문화재 수리 기술자 과정, 단청, 불화, 불교무용, 사경, 한국무용, 생활꽃꽂이, 불교전통꽃꽂이, 노래, 생활풍수, 기문둔갑, 인상학	(02)703-010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화그리기, 도자기만들기	(02)2077-9000
경기	수원포교당	꽃꽂이, 서도, 다도, 불교문화학교	(031)245-9670
	신륵사	참선요가, 전통문화체험(다도, 연만들기, 발우공양 등)	(031)885-2505
대전 충청	만불선원	불교대학, 한문교실, 찬불가	(042)222-3315
	보은정사	다도, 서예, 펜글씨	(042)533-3909
광주 전남	원각사	다도, 서예, 요가, 참선	(062)223-3168
	광주자비신행회	다도	(062)234-2732
	증심사	다도	(062)226-0107
	국립광주박물관	서예/그림	(062)570-7014
	광주민속박물관	어린이민속체험 강좌	(062)525-8633
전북	전북불교회관	다도	(063)275-5575
	국립전주박물관	그림그리기	(063)223-5651
대구 경북	영남불교대학	사진, 국악관현악단, 무용, 요가 등 다수	(053)474-8228
	관오사	중국차	(053)472-6640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다도, 서예, 일본어, 풍물	(053)792-1181
	법광사	태극권, 중국무술	(053)761-6943
부산 경남	홍법사	숲속의 놀토, 사찰요리, 꽃꽂이, 문화유적답사, 가야금	(051)508-0345
	미타선원	한방건강강좌, 사찰요리	(051)253-8687
	통도사 성보박물관	단청, 불교회화, 서각, 다도	(055)382-1001
	삼광사	다도, 불무도	(051)808-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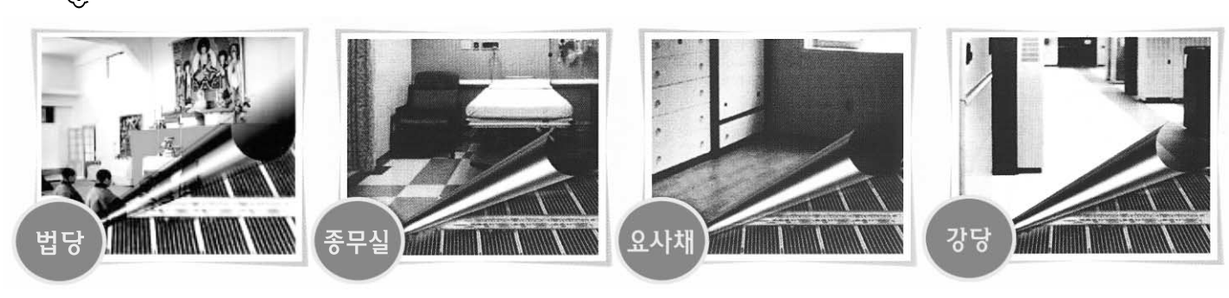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선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주)한국에너텍
'21C 난방의 선두주자'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제 기름의 1/3 가격으로 난방 끝!]

- 바닥이 온돌처럼 따뜻하다.
- 실내공기 순환작용으로 외풍이 없다.
- 보조난방이 필요없다.
- 자유로운시공, 비용절감(100평시공 1일)
- 저렴한 난방비 - 부분난방 가능
- 반영구적 시스템 - 이동설치가능
- 미국,유럽,전기 안전 승인
- 정통부 전자파 지정

● 평당 설치비 : 수입산(칼로리큐) 120,000
국내산(OEM생산) 100,000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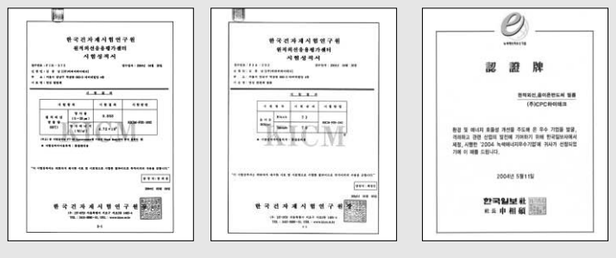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10²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 설치의뢰 080-017-0100 ■ 상담전화 043)275-6006

있어야 할 건 다 있다구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일대는 다양한 한국불교문화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불교문화 클러스터이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전통문화공연장과 박물관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 불교장례문화를 이끄는 연화회에 이르기까지, 행정 공연 문화재 등 불교문화를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불교문화 1번지'는 안국로터리에서부터 종각역으로 이어지는 우정국로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현대와 전통,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한국불교문화1번지', 그 안에 어떤 문화들이 살아 숨쉬는지 살펴보자.

불교중앙박물관
성보문화재 750점 보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3·4층에 전시실 290평, 수장고 130평 규모로 마련된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를 관리하는 조계종 차원의 첫 시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 이관된 '금동여래좌상' '수종사 부도 출토유물'(보물 제259호) 26점, 동국대박물관에서 온 '지정4년명 고려청동은향로'(보물 제321호) 등 총 750점이 내년 초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조계사 길상풍물원
불교계 풍물놀이의 선두주자
조계사 청년회가 직속으로 운영하는 풍물패 모임으로 1989년 처음 만들어졌다. 제등행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길상풍물원 식구들은 1991년 원각사지 탑돌이 공연을 비롯해, 불교 통일 문화공연, 군부대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2)735-3724

대불청 만해문화대학
개금, 불화, 단청 등 배울 곳
대한불교청년회가 운영하는 만해문화대학 불교공예학과에서는 개금 불화 단청 지공예를 배울 수 있다. 최근 만해문화대학 학생 30여명이 괘불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1학기의 완성작들을 모아 2학기에는 작은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02)738-1920

불교음악협회
4년제 불교음악학과 개설
작사가 반영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불교음악협회는 올해 초 명신대학교와 함께 불교계 최초로 4년제 불교음악학과를 개설했다. 불교계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활동을 불교음악협회가 적극 지원한다. (02)725-7527

법련사 불일미술관 · 서점
불교미술 흐름 한눈에
범주 스님 선묵 30년전, 우리시대 찻그릇전, 혜안 스님 서각전, 정현 스님 그림전시회 등 다채로운 미술 전시회를 열어온 법련사 불일미술관. 서울 사간동 초입에 위치한 법련사는 불일미술관 외에도 서점과 출판사 등을 운영하며 불교문화의 생산자로 우뚝 서 있다.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불일서점에서 책도 보고, 불교용품도 사고, 부처님께 인사드린 후 다양한 문화혜택을 맛볼 수 있다. (02)733-5322

보련각 · 경서원
반세기 지켜온 불교전문 서점
1968년 표구점 필방이 주를 차지했던 우정국로에 들어선 두 번째 불교점포 보련각(02-734-5496). 조계타운 지킴이라 불렸던 故 이봉수 거사가 40여년간 6백여종의 불서를 펴냈다.
1980년 출판사 등록을 한 경서원(02-733-3346)은 경전해설서를 주로 펴내고 있는 불교 전문 출판사이자 서점이다.

연화회
불교 장례문화 대중화에 앞장
1994년 10월 창립한 연화회는 일반 불자들의 장례대행은 물론 스님들의 다비식도 봉행하는 등 불교장례 전문기관이다. 다양한 '불교 장례문화'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 13개 지부가 활동중이다.
불교식 장례가 궁금할때 연화회로 문의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2)734-4444

좋은벗풍경소리
찬불동요의 산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는 찬불동요 제작과 보급에 앞장서온 단체다. 찬불동요 반주집도 3권 펴냈다. 테마가 있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도 꾸준히 기획하고 있다. 싸이월드, 엠파스, 야후, 네이트 등에 찬불동요 제공 서비스도 한다. (02)723-9836 강지연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공연장
도심 이점 살린 전문 공연장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1층에 위치한 전통문화공연장은 서울 도심 문화벨트(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인사동, 창경궁, 비원)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린 불교문화 전문 공연장이다.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의 제7회 평상시유 공연예술 축제를 개최하는 등 범패, 승무, 전통문화공연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02)2011-1744





초의차명상원
차 명상 강좌, 다도교육 등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우는 공간' 초의차명상원은 지난해 11월에 개원한 차명상교육원이다. 원장 지장 스님이 매주 두 차례 이론과 실습 상담을 진행하는 차명상 강의는 초·중·고급으로 나뉘어 1년간 진행된다. (02)733-7209

성종사
'국보 범종' 재현, 상설전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씨가 만든 범종을 보고 싶다면 성종사에 꼭 들려보자.주철장 원광식씨의 손에서 만들어진 범종 금고 등이 매장을 채우고 있다.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범종을 재현 제작한 것도 원광식 주철장이 해낸 일이다.
원광식 주철장이 명예관장으로 있는 진천종박물관에서는 성덕대왕신종, 상원사 종 등 실물에 가깝게 복원된 재현품들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02)733-6141

삼보불교음악협회
찬불가 반주기 개발 보급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이사장 운문스님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음악역사관을 건립하고 있다. 최근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구인사에서 개최하는등 불교음악 홍포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도용 찬불가를 관현악 반주로 담은 '찬불가 반주기'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앞으로 불교음악대학을 설립해 2년 동안 전문 찬불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불교음악포교사를 키울 계획이다. (02)723-0440

대불광
불교 목조각의 세계 한눈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허길량씨의 목조각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장 '대불광'은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각종 목각 불상과 동자상 등이 불국토를 구현해내고 있다.
허길량씨는 설악산 오세암 동자상, 33관음,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문수목각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조각의 세계를 선보여왔다. (02)738-1117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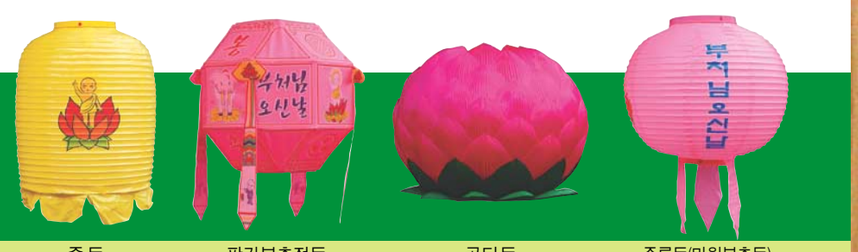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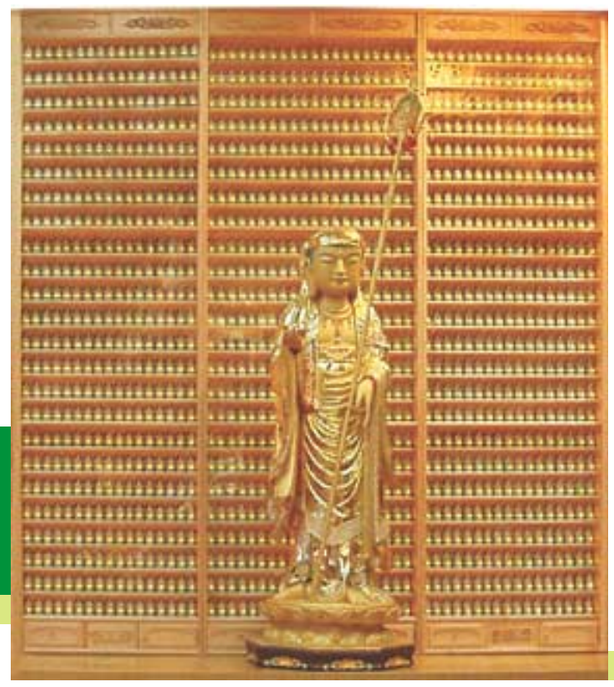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이번 역에는 불교가 있어요



서울 6호선 보문사역 내에 자리한 자율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비치된 책을 읽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망 지하철. 그 역사(驛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꼭 산사(山寺)에 가야만 불교문화를 만나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 노선표만 잘 살펴보면 도심에서도 고즈넉한 산사문화 체험에서부터 다양한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다. 서울 보문사역, 광주 증심사역, 부산 서면역, 대구 반월당역 등 주변은 불교문화 행사의 보고이기도 하다. 자~ 이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지하철역 주변을 찾아 가보자.

6호선 보문사역 – 도서관 운영, 전시회 등 열린 문화 공간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사역 지하철역사 안에는 2001년 보문사가 만든 자율 도서관 및 휴게실이 있다. 자율도서관에는 불서, 위인전, 교양서적 등 3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음료대는 물론 인조잔디와 조화로 꾸며 놓은 3평 남짓한 고즈넉하고 아담한 실내공원도 조성돼 있다. 보문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누구나는 자율도서관 원목 테이블에서 책을 읽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매년 3~4월에는 보문사역 입구에서 진달래 철쭉 개나리 등 봄꽃 10여종 100여 화분의 꽃을 전시한다. 가을에는 다양한 종의 국화를 선보여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매년 10월 중순 열리는 가을국화전시회는 보문사역의 자랑거리다. 보문사 합창단 · 청년회와 (사)풍경소리가 합동으로 국악 공연, 풍물놀이, 오케스트라연주 등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 일환으로 3년 전부터 동짓날(양력 12월 22일)이면 보문사역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팥죽 보시하고 있다.



서울 3호선 홍제역 부근에 있는 옥천암은 백불로 유명하다.

6호선 삼성역 – 봉은사 경내 산책로, 불교용품 클러스터 인기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800m 거리에 있는 봉은사. 황금측백과 소나무 숲길로 둘러싸여진 도심 속 전통사찰로 유명하다. 경내 1.2㎞의 산책로는 삼성동 일대 직장인들에게 단연 인기짱. 경내 중앙에 위치한 해수관음연못도 봉은사의 다크호스. 연못에는 한가롭게 비단잉어들이 유영하고 있고 해탈교로 연결된 연못 중앙에는 해수관음보살상이 모셔져있다. 경내 법왕루에 서면 삼성동 마천루 빌딩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비경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봉은사는 불서와 불교용품(액세서리, 경전 CD · 테이프)을 원스톱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불교용품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 서점 봉은서원과 찻집 산중다원 등은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 – 지하철법우회 법당…일반인도 이용 가능

서울지하철법우회는 2호선 종합운동장역과 1호선 용산역 내 서울철도차량정비창(다보사) 2곳에 지하철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합운동장역 내 지하철 법당은 법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재가불자 누구나 법당이용이 가능하다. 이곳 법당은 격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정기법회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참선,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3호선 홍제역 – 옥천암 '하얀' 부처님 · 영어법회 큰 인기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삼각산 방면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삼각산 옥천암은 보도각 백불(홍은동보도각마애보살좌상)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마애불은 남해 보리암과 양양 낙산사 홍련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4대 해수관음보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옥천암은 초중고생들의 포교일환과 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법회 프로그램을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초등부(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부(12시)의 영어법회는 옥천암만의 자랑거리다.



부산 남포역 미타선원 정문 용두불 앞에서 불자들이 참배하고 있다.



속세와 법계를 한 발 사이에 놓고 오갈 수 있는 도심사찰은 이제 도시인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직장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 내 불교용품 전문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외국인 불자.

광주 – 금남로4가역 · 도청역 사이 '예술의 거리' 불교문화 만끽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역 근처에 있는 원각사는 각종 법회와 불교교육,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도심 포교당으로 제몫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일서점은 광주를 대표하는 불교전문 서점으로 최근 들어 다양한 불교팬시용품이 보급되면서 불교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도청역에 자리한 '예술의 거리'도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장소다. 광주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한 '예술의 거리'에는 각종 문화관련 상가와 전통찻집, 갤러리가 자리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 때때로 불교관련 전시회가 열려 지역 불교문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부산 – 노포동역 인근 홍법사 수백종의 나무와 꽃들 장관 이뤄

부산 지하철 노포동역 인근의 홍법사는 수 백 종의 나무와 꽃들로 가꿔진 신장농원 내에 있어 자연경관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사찰이다.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 청소년들을 위한 놀토 프로그램도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다. 가족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연례행사로 열고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월별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녹차 만들기, 송편빚기, 연날리기 등 계절별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남포역에서 내려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도심 속의 선원 미타선원도 빼놓을 수 없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용두불 앞 공간에서 매월 한 두 차례 청소년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대구 – 반월당역 주변 불교용품점 밀집, 이용하기 안성맞춤

대구광역시 반월당역 인근에는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와 대구불교대학이 있고,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해 20여의 불교용품점과 승복사, 불교서점 등이 밀집해 있어 불자들이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역 5번 출구로 나가면 각종 전시와 문화공연이 상시 펼쳐지는 봉산문화거리와도 가까운데 가끔 불교 선서화전이나 전통 다구전시를 비롯한 불교문화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2호선 서문시장역 근처에는 원만사가 있고, 담티역 3번 출구 바로 앞에는 화엄불교대학, 불국정사가 있다. **특별취재팀=이준엽 · 천미희 · 배지선 · 노병철 기자**



대구 반월당역 봉산문화거리 내 불교용품점 '와 갤러리'에서는 불교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도청역 근처에 원각사와 '예술의 거리'는 광주의 불교문화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상도동 보문사 법당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및 9.9절 합동 천도재 9일 기도 안내

9.9절 합동천도재 9일 기도 안내

- 기도입재회향 : 음력 9월 1일(양 10. 22) - 음력 9월 9일(양 10. 30)
- 기 도 내 용 :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27독, 매일 금강경 3독, 매일 관음시식(제사) 봉행 (위패는 원하는대로 올릴 수 있음)
- 증 명 : 일오 대선사 (음력 9월 1일 초하루 법문)

법당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 일시 : 음력 9월 9일 (양 10. 30) 오전 10시
- 증명 : 혜정 대선사 (법주사)
- 법주 : 도성스님, 범해스님

심진스님 초청 작은 음악회

- 일시 : 음력 9월 9일 (양 10. 30) 낮 12시
- 출연 : 심진스님, 바이올린 김서진양, 피아노 이중희군, 보문사 합창단

대한불교조계종 상도동 보문사

문의 : 02)823-7443, 814-8793

청동 불상 조성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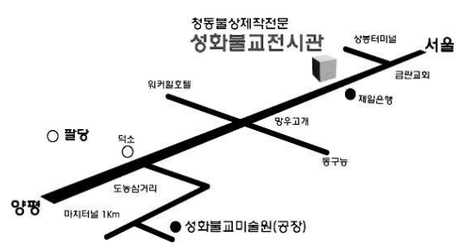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interview '한 · 중 · 일 문화코드 읽기…' 출간한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불교 상징"





이어령(前 문화부 장관 · 사진)씨가 한 · 중 · 일 세나라의 문화 코드를 읽는 작업의 일환으로 〈사군자와 세한삼우〉를 출간했다. 〈소나무〉 〈대나무〉 〈국화〉 〈난초〉 〈매화〉 등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한중일 3국이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대상물의 상징과 이미지를 비교해 그 차이와 공통점을 밝혀내고 있다. 10월 10일 중앙일보 고문실에서 만난 이어령씨는 "사군자(매란국죽 · 군자에 비교되는 네가지 식물)와 세한삼우(송죽매 · 겨울에도 푸른 식물)를 유교문화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잃어버린 불교상징을 찾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 · 중 · 일 문화코드 읽기〉는 동북아 세 나라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3000년 동안 함께 나눠 온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편향되고 왜곡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구체적인 대상물의 상징과 이미지를 종교, 사상, 미술, 공예, 민속, 생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세 나라의 문화 코드를 읽어냈다. 3국의 문화를 알아야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이 이뤄진다. 즉 영토분쟁등 서로 국익이 얽힐때 해결방법이 나온다는 말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문화라는 말인가?

–지구촌은 문명과 문화를 토대로한 다원적인 세계구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유럽이 초국가 형태의 유럽연합 탄생을 통해 문화의 공유와 그 정체성이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파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문화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동북 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화사상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같은 일국 중심의 지배 이론을 잘 파악한 뒤 3국의 문화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경제나 영토보다 시급한 것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다.

▲3국의 공통문화중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사군자 및 세한삼우와 불교와의 관계는?

–포용적인 불교가 있었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각 종교들이 얽히면서 문화가 강해졌다. 이런점에서 동아시아 3국 문화의 중심은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교를 상징하는 꽃은 매화이다. 그런데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논어〉 〈맹자〉에는 매화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리학의 이념이 문인화의 묵매(墨梅)로 표현됐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 묵매는 바로 선승인 중인 스님이

문화 정체성이 정치 · 경제 이끄는 '파워'로 3국 문화 알아야 동북아 평화 · 공존 이뤄져

창시했다. 선시와 선문답에는 매화가 자주 등장한다. 대나무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부처님 당시 사찰인 죽림정사가 대나무숲에 세워졌다. 또 수행을 상징하는 죽비가 됐고 고승들의 지팡이로 이용됐다. 이렇듯 따지고 들어가면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불교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 불교문화가 중요한가?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큰 파생력이 있다. 사군자와 세한삼우처럼 잃어버릴듯한 불교상징을 찾은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교적 이미지를 알아야 우리생활속에 깃든 불교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를 종교로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생각의 발상을 한다면 문화창조는 쉽다. 쥐를 생각할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귀엽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1990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종교간 화합등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불교계가 해야할 시대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영향으로 어린시절 불교를 접했다. 당시 지장보살의 중생구제 원력을 들으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불교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는 부처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불교내의 갈등을 접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상이나 문화는 세속의 제도와 다르다. 불교를 믿는 나하고 불교라는 종교의 이념이 일치하지 못하닌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각 종파들이 하나돼 '불교계'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가 누가봐도 보편적이고 신나는 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 연말부터 12간지에 나오는 동물과 해, 달, 구름, 냇물등 자연과 천체, 차, 종이등을 계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약 30권의 책을 예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월운 스님의 한글 '장아함경' 40년만에 새로 출간



1964년 동국역경원 발족과 함께 번역돼 출간된 〈장아함경1 · 2〉이 현대에 맞게 새로 발간됐다.

동국역경원 원장 월운 스님(사진)이 옮긴 〈장아함경〉은 각 경전마다 각주를 상세히 달아 독자의 이해를 쉽게 했으며, 인명 지명등 현대적 표기와 맞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쳤다. 또 빠알리본과 비교해 차이점 및 공통점을 실었다.

〈장아함경〉은 제1~4분 30경전으로 구성돼 있다.

대본경, 유행경, 전존경, 사니사경등이 수록된 제 1분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과거 7불의 탄생 · 출가 · 수도(修道) · 항마(降魔) · 성도(成道) · 전법륜(轉法輪) · 열반등을 설명한다.

제 2분에서는 4성(姓)의 평등, 미륵불의 출현, 6방(方)에 대한 예법 등을 소개 한다. 수록경전은 소연경, 전륜성왕수행경, 폐숙경, 산타나경, 중집경, 십상경, 증일경, 삼취경, 대연방편경, 석제환인문명, 아누이경, 선생경, 청정경, 자환희경, 대회경등.

제3분에서는 외도 바라문의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소개 경전은 아마주경 범동경 종덕경 구라단두경 견고경 나형범지경 삼명경 사문과경 포타바루경 노차경등이다.



장아함경 1 · 2
월운 스님 지음
동국역경원
각권 2만원

제 4분에서는 〈세기경〉이 들어있다. 내용은 남섬부주(南贍浮洲) · 전륜성왕 · 지 옥 · 아수라 · 4천왕(天王) · 3재(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아함경〉은 장아함(長阿含) · 중아함(中阿含) · 잡아함(雜阿含) · 증일아함(增一阿含) 등의 4아함 중에서 비교적 장편을 모은 것이다. 22권(券) 30경(經)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아함경〉은 범어로 된 본(本)을 불타야사와 축념불 스님이 후진(後秦) 홍시 15년(서기 413년)에 한역한 경전이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이 곧 부처** 해안스님, 밀알, 1만2000원
· **꽃을 들어 보여라** 금하광덕, 도피안사, 1만5000원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만원
·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하늘북, 1만2000원
· **내면으로의 여행** 산트타카르싱, 한국에디션나암, 1만18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꽃을 들어 보여라 (말로 할 수 없을 때)
반야의 종소리
금하 광덕 스님 지음 | 송암 엮음
도피안사 | 각권 1만5000원

광덕 스님이 들려주는 '지혜의 삶'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심을 증장시켜 주고,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비추어 보게 하여 초심을 일깨워 줄 책이 나왔다.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이 엮은 〈꽃을 들어 보여라〉 〈반야의 종소리〉는 금하당 광덕 스님(1927~1999)이 직접 팔만대장경에서 뽑은 요긴한 말씀과 주옥같은 법문이 실려있다.

〈꽃을 들어 보여라〉는 광덕 스님이 생전에 불자나 일반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가려내어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사랑 · 가정' '믿음과 공덕' '부처님을 진실로 알고 싶은가' '마음' '배움' '말과 진실' '지혜 · 자비' '생활' '수행' '파라미타'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반야의 종소리〉는 광덕 스님이 〈호법월보〉에 실었던 원고를, 상좌 송암 스님이 월보 인쇄 과정이나 보존중에 분절되었거나 탈락된 것을 저서에서 일일이 찾아 보충하는 등 중간항목을 만들어 읽기 편하도록 엮어서 펴냈다.

송암 스님은 "반야바라밀다의 빛을 열어 보인 광덕사상의 정본 교과서로 후학과 대중들의 훌륭한 새불교운동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 실린 주제는 '반야바라밀다' '중생 성숙 · 국토 성취' '기도' '감사와 은혜' '우리는 불자'등이다.

김원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현대불교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황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옥 천 범 음 대 학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옥천범음대학 교직원 일동

옥천범음대학 재학생 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옥천범음대학**
전화 02)392-3234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 장 조환우

총 재 김구해

영산재보존회 회원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 8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축 서 사

주 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축서사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www.chooksersa.org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고 문 위 원 정호스님, 무산스님, 도공스님, 진각스님, 법정스님, 성타스님, 종삼스님, 용주스님, 범여스님, 종상스님, 지명스님, 보광스님, 돈명스님, 제원스님

자 문 위 원 자승스님, 정만스님, 혜승스님

회 장 성직스님
부 회 장 정묵스님, 정념스님, 자제스님
총 무 정도스님
재 무 원경스님
대 변 인 법진스님
운영위원장 광조스님
운영위간사 덕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임원 및 회원 일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 601호
전화 02)515-9351 / 팩스 02)518-8998

현대불교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 악 사

주 지 도일

사부대중일동

룸비니유치원 운영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번지
TEL 054)655-1001

全僧聯 佛教學人大會
2550 NSCA BUDDHIST STUDIES
불기 2550 전국승가학인대회

귀의삼보 하옵고
전국승가학인연합회는 그동안 변화하는
현대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학인들의 화합과 승가의 청정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8회 전국승가확인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대회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두루 동참하시어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앙망하나이다

불기 2550(2006)년 10월

전국승가확인연합회 의장 법여 합장

- 일시 : **불기 2550(2006)년 10월 19일(목) ~ 20일(금)**
- 장소 : 토함산 불국사
- 주최 : 전국승가학인연합 • 주관: 불국사 승가대학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법주사. 수덕사. 쌍계사. 직지사. 통도사. 화엄사. 해인사. 중앙승가대학. 불교계 언론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 전 충 북 지 사

지사장 혜철 합장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TEL 043)732-5560 / 011-9422-8453
FAX 043)732-5520
이메일 ksson108@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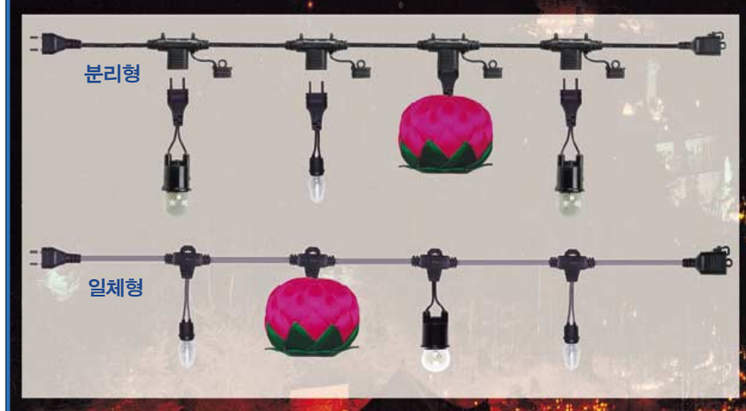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공익법인 韓國六壬學會
www.taotemple.net



총재 **효사** 外 2,000 정 회원 一同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한민족의 근원적 사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천지인동근(天地人同根)이요
천지인 일체(天地人 一體),즉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임과 함께
육임가(六壬家)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은 하늘,정사각형은 땅(지구), 가운데 직선은 인간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나타내며 예언자로서의 복(卜)과 예언을 청하는 뜻의 점(占)이 어우러져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 효사 활인천역집 ⅢCD 프로그램 (육임 · 사주 · 성명 · 월영도 · 주역 등 18종 종합)
■ 육임대계전서(활용서 전60권)
■ 효사 육임 강의록(학습서)
■ 길일 길시 태아 분만비법(활용서)
■ 육임풍수(활용서)

☎ 02)993-8680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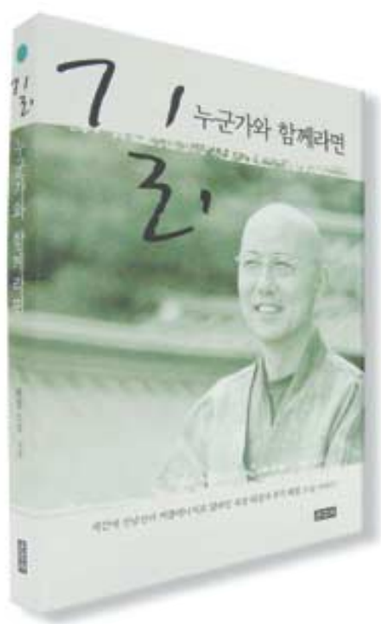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 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 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1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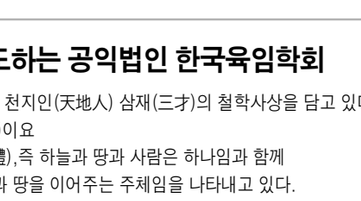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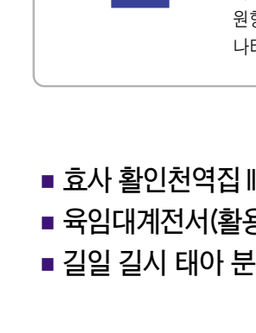
달마 관음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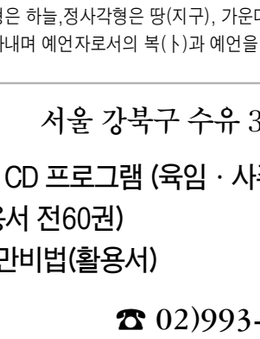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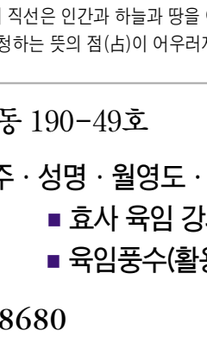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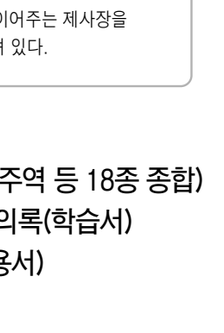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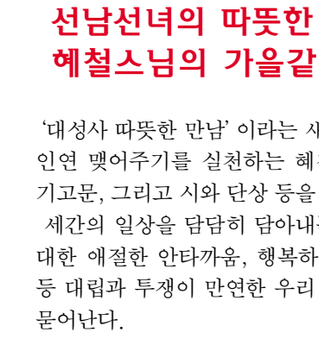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상표등록 : 614981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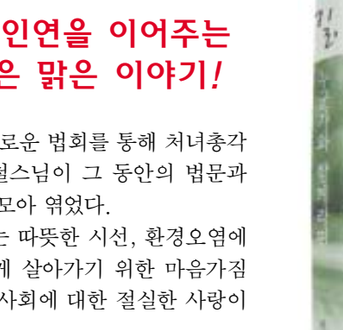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종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티베트의 성스러운 호수 중의 하나인 나무춰호수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칭짱철로. 기차는 낮게 드리운 흰 구름과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가르며 평균해발 4000m를 달려 나간다.

누구에게나 열린 신비의 땅



'하늘길'이라고 불리는 칭짱(青藏)철도가 개통된 지 3개월 남짓, 티베트는 라싸를 기점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늘어난 관광객으로 포탈라궁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공식적으로 100위안인 포탈라궁 입장료가 600위안으로 뒷거래되고 있다. 몰려드는 관광객 수만큼이나 한족들의 티베트 진출도 철로를 따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티베트의 중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티베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뚫린 하늘 길을 통해 들이닥친 변화의 바람 앞에 놓인 티베트를 9월 16일부터 열흘동안 직접 찾았다.



설산을 배경으로 야크를 키우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티베트 장족의 모습.

'하늘길'에서 보낸 2박3일

베이징 서역 9월 16일 밤 9시 30분. 하루에 한번 뿐인 라싸행 칭짱(青藏)열차가 출발했다.

라싸까지 평균 해발 4000m를 지나며 꼬박 48시간 동안 달리게 될 기차다. 4인 1실 2량, 6인 1실 7량, 3등석 6량으로 구성된 기차는 총 900명의 승객을 싣고 총 1956km를 달린다.

7월 1일 개통이후 칭짱철도를 이용해 라싸로 가려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기차는 늘 만원이다. 시안, 란주, 서령, 거얼무, 라곡 등 중간의 역에서 내려 다른 관광지를 경유하고 싶어도 그곳에서는 라싸행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늘빛 호수…끝없는 평원과 설산…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갑작스런 고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산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서히 고산에 적응하는 기차여행이 고산증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기차여행 선호의 이유가 된다. 또한 '불가능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평균 해발 4000m위에 놓인 '하늘길'을 달려보고 싶은 호기심이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칭짱열차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사는 고원을 가로지르는 열차에 앉아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평원의 절경이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그 위에서 풀을 뜯는 야크떼와 산양, 푸른 하늘의 한 조각이 깨어져 내린 듯한 호수와 설산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달려가는 기차를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풍경은 세계 최고 해발(5072m)에 위치한 기차역인 탕구라산역과 하늘보다 더 푸른 추나호(天湖)를 지나면서 절정을 이룬다. 추나호와 같은 절경에서 기차를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공사가 몇 군데서 진행 중이다.

칭짱열차에서 만난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풍경에 매료돼 지겨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첫날밤의 불편한 잠자리에서 깨어난 2일째 아침부터 고산증에 대한 불안도, 2박3일이라는 시간도 잊은 채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바쁘다.

기차는 3일째 새벽녘 거얼무역을 지나면서 고산용 기관차로 머리를 바꿔달았다. 이때부터 20%의 산소가 차내에 자동으로 공급된다. 역무원은 객실마다 산소호흡기를 지급하며 라싸역까지 금연하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호흡기 착용 방법을 전달한다.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두통 증상을 경미하게 호소하거나 고산증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미리 약을 복용할 뿐이었다. 마이애미에서 온 헬렌(73)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산증세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온 김인영(30)씨도 "고산증을 가장 걱정했는데 별다른 고통은 없다"고 웃어 보였다.

극심한 변화앞에 놓인 티베트인들

열차 개통으로 서장자치구의 관광객이 불과 3달만에 50% 이상 늘어난 반면, 화물운송비는 80% 이상 내려갔다. 운송비 때문에 외지에 내다 팔기 어려웠던 트베트의 광물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라싸에서 만난 한 노인은 "중국이 값싼 물건들을 티베트에 갖다 주고 티베트의 천연 광물을 빼낸다"며 철도 개통이 가져온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중국과 티베트 모두에게 칭짱열차가 경제발전을 가져다 줄 것은 명백하다.

중국의 티베트 지배가 티베트 인민의 해방으로 명명되었듯, 칭짱열차 개통으로 티베트인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도 경제 발전으로 포장될 것이다.

칭짱철도 개통이 티베트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티베트 여행을 현실로 만들었다. 기차에서 만난 중국인 왕티엔초(57)씨는 "늘 가보고 싶었던 티베트를 기차로 쉽게 갈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며 칭짱열차 개통이 가져온 변화를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칭짱열차가 중국인보다는 티베트인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칭짱열차 개통으로 가장 극심한 변화 앞에 놓인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이다. 이미 문명의 이기와 돈맛을 알아버린 이들이 많다. 자녀를 중국에 유학시키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씻어내고 운전기사가 되거나 여타 직업을 구해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있는 장족(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티베트에 일부가 살고 있다)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권을 한족들이 잡고 있는 라싸의 상황에서 보면 장족들의 삶이 한족

☞B11면으로 계속



베이징 서역을 출발한 기차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안역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을 받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기차다.



평원에서 야크와 산양을 기르는 티베트 원주민들의 천막집.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돌섬 밀 양
••• 유식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禪이다.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禪思想 釋明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중국서 불어온 자본물결에 '흔들'

☞B10면에서 계속

의 지배아래 놓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규모 자본과 정부의 지원아래 한족들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장족들은 한족의 부를 채워주기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티베트의 중국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객 석달만에 50%이상 증가

티베트가 칭짱열차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칭짱열차를 타고 티베트에 온 중국인들의 내면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중국은 본래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열차로 인해 티베트와 중국이 서로 왕래가 쉬워지면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실제로 북경에서 왔다는 김전룡(53) 씨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느낌이 새롭다"고 말했다.

하늘길로 이어진 티베트와 세상은 서로의 존재에 서로를 비춰가며 인연지어져 간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앞에 놓인 티베트는 거대한 인드라망에 매달린 하나의 구슬이다.

오체투지의 땅 '라싸'

성스러운 땅, 라싸는 윤회의 큰 원을 그리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시가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장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체투지를 하며 순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풍경이 돼 있었다. 라싸의 상징인 포탈라궁, 문성공주가 모셔왔다는 12살의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진 대소사, 티베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인 철방사(哲蚌寺) 어디를 가든 마니차를 돌리며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이 만드는 원형은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인간의 굴레를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그 굴레를 벗어나길 바라는 초월의 몸짓이기도 하다. 생사윤회의 끝없는 자맥질을 이어가는 그들이 꾸려가는 삶이란 풀잎 끝의 이슬 같은 환영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오체투지를 하며 라싸를 향한 순례를 하고,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절에 보시하고 거지처럼 걸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다. 티베트인들에게 이 생은 보다 나은 내 생을 위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포탈라궁 앞에서 보다 나은 내생을 기원하며 오체투지로 하루를 여는 티베트 불자들. 신심이 하늘보다 높아보인다.



라싸 시내 곳곳에 진짜 스님인지 가짜 스님인지 분간키 어려운 이들이 경을 외우며 앉아 있다. 여행객들은 환전소 대신 그들 앞에 놓인 소액권 지폐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 '거리의 환전소'로 통한다.

대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순례길인 바코르 광장에는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부터 고행을 떠나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남녀노소로 붐빈다. 라싸에서 270km 떨어진 낙추에서 왔다는 조모씨는 보름동안 라싸에 머물며 오체투지로 보다 나은 내생을 기원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라싸에 살고 있다는 60세가 넘은 또지씨는 6명의 가족들과 함께 바코르 광장을 돌고 있다. "아침에 11바퀴를 돌았고, 저녁에는 20바퀴를 돌 예정"이라며 "6살 때부터 돌기 시작했으니 바코르 광장을 도는 일은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내 생활의 일부"라고 말했다.

삶과 죽음조차 단절이 아닌 순환임을 굳게 믿는 절대적 믿음위에 세워진 티베트 불교의 중심에는 달라이라마가 있다. 그러나 인도 망명정부에서 돌아올 수 없게 된 달라이 라마의 현실은 급격한 변화 앞에 떠밀려진 티베트의 현실과 닮아 있다.

주인 잃은 달라이라마의 겨울 궁전인 포탈라궁과 여름 궁전 노브린카는 날로 늘어가는 관광객들이 주인 대신 차지하고 있다. 총 13층인 포탈라궁은 중국 정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주인 없이 죽어 있는 공간이 돼 버렸다.

라싸의 불교는 겉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각 사찰마다 정부가 임명한 스님들이 관리인처럼 절을 지키고 있을 뿐, 수행하는 스님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절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 하면 돈을 요구하고, 버젓이 영수증까지 발행하는 곳도 있다.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사람도 사진을 찍고 나면 어김없이 손을 내민다. 돈을 달라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손을 내미는 아이들과 돈을 요구하는 스님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티베트 라싸 소소사 대중들이 불기를 닦고 있다.

사진 찍고 돈 요구…개방않는 절 많아

그러나 현지 가이드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에겐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돈을 주세요. 그들은 전 재산을 절에 보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는 스님들은 일부입니다. 변해가는 티베트의 일면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이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티베트의 변해가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티베트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곳의 문이 닫혔다. 티베트박물관이 일반에 개방되지 않고 총 13층의 포탈라궁도 맨 꼭대기의 세 개 층 일부 법당만 공개된다. 그 마저도 사진 촬영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감시카메라까지 동원된 중국 정부의 보호책은 티베트의 신비로움을 만나고픈 사람들을 가로막는다.

앞으로 점점 티베트 불교의 신비를 상징하는 법당이나 불상들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현대화, 물질화 되어가는 라싸시의 풍경 속에서 티베트의 정신과 핵인 불심과 오랜 전통을 이어 내려온 자연친화적인 삶의 알맹이가 빠져버리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티베트를 만나야 하는 이유다.

바코르 순례길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 떠오른다.

"티베트를 아느냐? 라싸만 보고 티베트를 전부 판단하지는 말라."

철로가 개통되고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못마땅한 그 노인의 말은 티베트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과 환상을 지우고 여실히 티베트의 현재를 바라보라는 주문처럼 마음을 울렸다.

글 · 사진/티베트=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 · 율 · 론 묻고 답하며 공부 점검…관광객 눈길 잡아

색랍사 스님들 싸우세요?

색랍사에 가면 출가 후 3년 이상 공부한 스님 중에 대웅전에 들어가 예불을 볼 수 있는 스님만이 참여하는 공부의 장이 있다. 쫑가바 대사가 황교를 창시할 당시부터 스님들의 공부를 점검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었던 이 토론의 장은 5대 경, 율, 론에 대해 배운 것을 스님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티베트의 여러 사찰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공부법이지만 색랍사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스님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공부를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싸움을 하는 듯도 하고 춤을 추는 듯도 해 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다.

어쩐지 보여주기 위한 해프닝 같아 진지함이 덜하지만 싸움을 하듯 서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공부법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티베트 불교의 숨은 생명력을 발견하게 된다.



색랍사의 스님들이 토론의 정원에서 경율론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고 있다.

협찬 명문여행 명문여행사 (051)852-1231

interview

700여 대중 이끄는 철방사 주지 토미룸부치 스님



"그 전에는 만 명이 머물렀을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지금은 700명이 공부중입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수행해야 합니다."

9월 20일 라싸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만난 철방사 주지 토미룸부치(65 · 사진) 스님은 "윤회는 티베트불교의 특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보리도차제론을 교본삼아 계정혜를 실천하고 자비심을 키워 스스로 생사윤회에서 초월하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행 뿐입니다"

5세에 출가한 스님은 7년 전부터 철방사 주지를 맡아 대중을 이끌고 있다. 스님의 방은 700명을 대중을 이끄는 주지스님의 방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대중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힘든 점은 없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스스로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하는 일이 없다"며 웃어 보였다. 티베트에서는 주지스님이라고 따로 대중을 위한 법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 법문을 해도 스스로에게는 물론 대중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율론을 모두 배워 자격을 갖춘 법사 스님만이 법문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음력 7월 15일에는 주지스님도 불경책 한권을 외워서 대중들을 위해 독송해야 한다.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부단한 공부를 강조할 뿐 말을 아끼던 토미룸부치 스님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국 불자들을 위한 축원을 잊지 않았다.

"뜻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건강하고 평화스러우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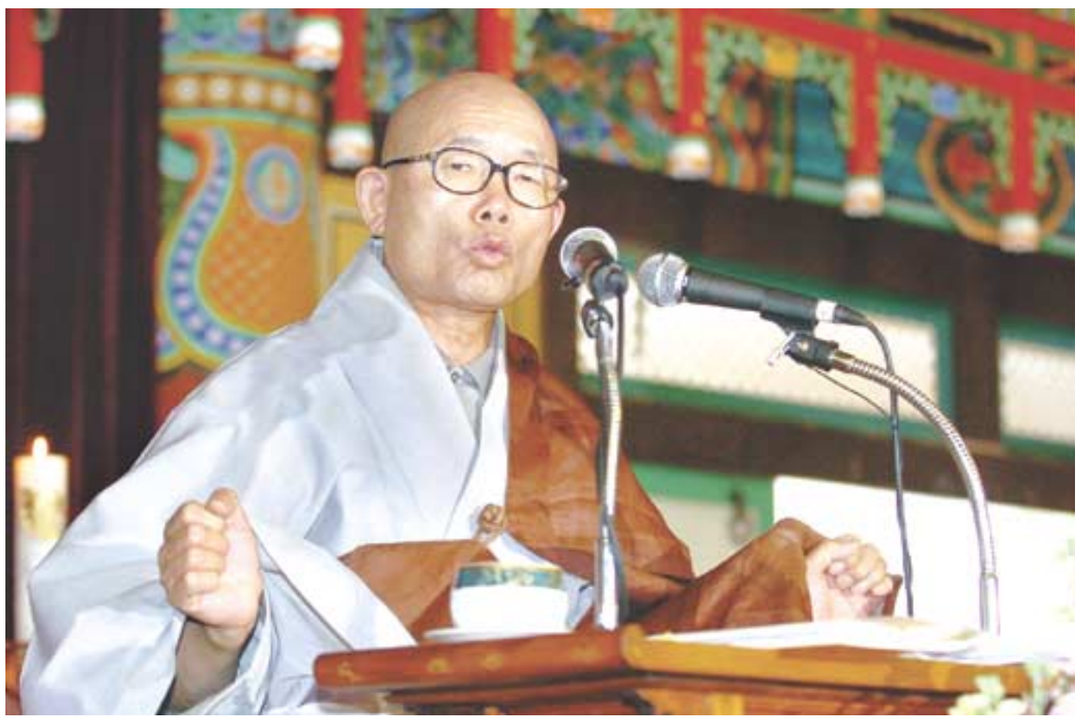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3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前 강주) / 화엄경(9월 30일)



혜남 스님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원, 대비, 대지를 일으켜야 보현보살의 원력을 원만성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믿고 알고 행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자

오늘 법회의 주제인 <화엄경>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경전의 성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때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몇 마디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슬픔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데, 늦게 출가한 한 늙은 비구가 나서 '잔소리꾼 부처님이 죽었으니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고 망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섭이 한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結集)' 할 뜻을 품게 된 것이 불교경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왕사성 칠엽굴에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문제일 아난은 가섭에 의해 결집장에서 쫓겨납니다. 깨닫지 못한 이가 아라한들이 모인 결집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아난이 대분심을 일으켜 7일을 용맹 정진, 도를 얻어 결집장에 나타납니다. 이때 이미 가섭은 아난이 깨달음 얻을 것을 알고 아난이 앉을 법좌를 마련합니다. 아난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라며 말문을 엽니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금강경>의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如是我聞 一時 佛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俱)은 때와 장소 등장인물을 밝히는 6성취(成就)의 서문으로 바른 믿음을 성취케 하는 법문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6성취란 것은 첫째, 신(信)성취이니 '이와 같은 법문' 이란 뜻을 가진 '여시(如是)'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문(聞)성취이니 내가 들었다는, 아문(我聞)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이와 같은 법문을 내가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라는 부분이 믿음(信)과 들음(聞)의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時)성취이니 일시(一時)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주(主)성취이니 경전을 설하신 불(佛)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경전을 설하신 장소를 나타낸 처(處)성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재사위국(在舍衛國)을 말합니다. 여섯째, 중(衆)성취는 누가 법문을 들었는지를 밝히는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구(與大比丘衆 千二白五十人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이 <화엄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경전을 직접 설법하는 '설주(說主)' 와 가르침의 주인이 되는 '교주(敎主)' 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대개의 경전처럼 부처님이 직접 설한 내용만을 기록한 경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칭찬하는 경전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 39품 중에서 부처님이 설주로 등장하는 것은 오직 2품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수 · 보현 보살 등 수많은 설주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화엄경>의 정행품(淨行品)에 나오는 대승불교의 이타적 정신에서 중생제도를 서원하는 삼귀의례를 올릴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귀의불 당원중생 소융불종(체해대도) 발무상의(自歸依佛 當願衆生 紹隆佛種(體解大道) 發無上意)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삼보의 종을 이어받아(큰 도를 체득하여 알아서) 위없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게 하옵소서.

자귀의법 당원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自歸依法 當願衆生 深入經藏 智慧如海)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깊이 경장(經藏)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하옵소서.

자귀의승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애(自歸依僧 當願衆生 統理大衆 一切無碍)

스스로 승가에 귀의 하옵나니 마땅히 중생들이 대중을 통리하여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게 하옵소서.

<화엄경>의 갖추어진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 하는데 '대' 는 온 우주 법계를 모두 다 덮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방' 은 법답고 바르다, '광' 은 끝없이 넓다, '불(佛)' 은 위에서 설명한 대방광(大方廣)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 '화' 는 아름다운 연꽃보다 더 좋은 사람의 보살만행 꽃을 상징합니다. '엄' 은 당연히 보살만행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경(經)' 이란 것은 '대방광불화엄' 의 도리를 언어와 문자에 실어서 먼 지방과

> 보현행원품 십행은 최고 수행법
> 큰 원·큰 자비심·큰 지혜 구하고
>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후세에까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줄여 <화엄경>이라 말합니다.

이 <화엄경>에는 유식과 연기, 여래장사상 등 온갖 불교의 사상은 물론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이 전부 다 들어 있다는 뜻으로 <잡화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은 신도님들에게도 가장 좋은 수행법으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보현행원품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자' 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경전 성립사적으로는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십지품의 별행본인 <십지경(十地經)>등이 단편적으로 유행하던 경전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 1세기 혹은 2세기 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리됩니다. 이 <십지경>은 입법계품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범본으로 된 원본이 남아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화엄경>의 완본(完本)은 불타발타라가 418~420년 사이에 번역한 60권본과 실차난타가 695~699년 사이에 번역한 80권본인데 모두 입법계품(入法界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입법계품 하나를 확대하여 놓은 것이 반야삼장이 796년부터 798년 사이에 번역한 40권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제40권은 60권본이나 80권본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으로 이것을 별행본 <보현행원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학술적 추정과는 달리 고대 중국 불교의 특색인 교판사적(교리의 체계적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갈래 짓는 일)으로 볼 때는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1주일 혹은 2주일 동안 스스로 성도의 기쁨을 즐기다가 2주일 혹은 3주일째에 자신이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법하신 경전이라고 합니다.

교판의 성립배경은 중국 남북조시대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소 · 대승불교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설법이고 어떤 것이 방편설인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교판사적 교리체계의 분석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교판사적 시각에서는 부처님이 성도 후 21일 동안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있는 그대로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고 이것을 중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경전인 <아함경>부터 시작하여 점점 차원이 깊은 경전으로 법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불교의 거장인 천태지자대사의 교판이라고 불리는 천태오시교(天台五時敎)의 내용에 맞추어 설명하면 먼저 알기 쉬운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여 중생의 근기가 조금 수승하여지자 대승경전인 <유마경> <승만경> <능가경> 등 <방등부>경전을 8년, <반야경>은 21년간 설하여 큰 법문을 들을 정도로 근기가 수승하여지자 일승(一乘)도리인 <법화경>을 8년간 설하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본래의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열반경>을 하룻밤에 설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열반도리를 설했다고 분류합니다.

또 가상대사(嘉祥大師) 길장(吉藏)은 <화엄경>을 근본법륜(根本法輪), 나머지 경전을 지말법륜(枝末法輪). 마지막 <법화경>을 섭말귀본법륜(攝末歸本法輪)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설한 일체경전의 근본이 <화엄경>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경전은 모두 '지말(枝末)' 이며 <법화경>이 지말을 거두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은 '화엄의 도리로 돌아가게 한 것' 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엄경>의 교학적 지위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화엄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찰진심념가수지(刹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大海中水可飮盡)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全六券 90,000원

明光文化院 www.mkmunhwa.com

-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2-9 / 전화 043)222-2257
- 서울영업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롯데미도파 광화문빌딩 204호) 전화 02)720-0826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3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前 강주) / 화엄경(9월 30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허공가량풍가계(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불공덕(無能盡說佛功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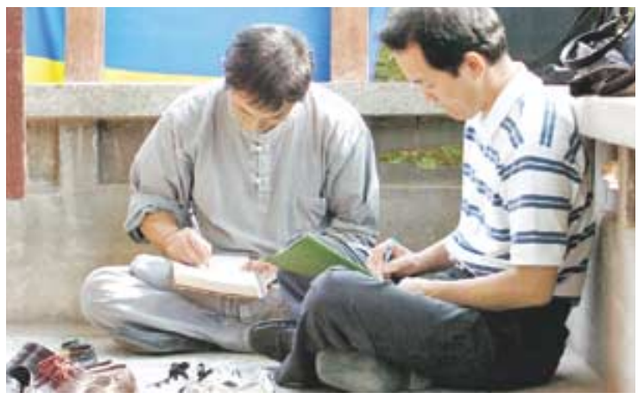
약유문사공덕해(若有聞斯功德海)
이생환희신해심(而生歡喜信解心)
여소칭양실당획(如所稱揚悉當獲)
신물어차생의염(愼勿於此生疑念)

중생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만든 만큼인데, 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의 크기를 다 헤아리고, 바람을 꿰맬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공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기뻐하고 믿는 마음을 낸다면 자기가 칭송한대로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삼가 부처님의 공덕을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 게송은 80권본 <화엄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십종대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광대한 서원을 닦을 것을 권유하시면서 1.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존경할 것(禮敬諸佛願) 2.모든 부처님을 널리 칭찬할 것(稱讚如來願) 3.널리 공양을 닦을 것(廣修供養願) 4.업장을 참회하여 없앨 것(懺除業障願) 5.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할 것(隨喜功德願) 6.설법하여 주기를 요청할 것(請傳法輪願) 7.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할 것(請佛住世願) 8.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常隨佛學願) 9.항상 중생을 수순할 것(恒順衆生願) 10.널리 다 회향할 것(普皆廻向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가 "어떤 것이 예경이며 내지 회향이냐"고 질문함으로부터 <보현행원품>의 법문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제일 먼저 시방삼세에 가득한 수많은 부처님을 모두 존경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법신(法身)이 육도를 유전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든 중생들의 참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의 모든 이가 부처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처님의 화현을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듯 모든 이들 칭찬하고 예배하며 공양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가운데 제일 수승한 것이 법공양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공양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고 나아가 남이 지은 업장까지도 참회해야 합니다.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공덕은 물론 성문(聲聞), 연각(緣覺) 더 나아가서 일체중생의 공덕을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참회하여야 합니다.



교리에 통달해 교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능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 혜남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수희(隨喜)라는 것은 남의 공덕을 덩달아 좋아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공덕을 위시하여 성문 연각 일체중생의 좋은 점 잘한 일은 덩달아 좋아하여야 합니다. 대승불교의 최고의 덕목이 수희와 회향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문을 청하는 것도 빼어난 공덕인데, 오늘 봉선사 스님이 대중들을 위해 법사를 불러 설법장을 만들어 주신 것도 이와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아난이 부처님 열반 후 대중공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기를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사신족(四神足)을 닦은 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1겁이나 그 이상도 세상에 머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중생을 수순하여야 합니다.

보리심에는 대원(大願) 대비(大悲) 대지(大智)가 따라야 합니다. 중생을 수순해서 큰 원과, 큰 자비심, 큰 지혜를 가져야만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회를 마치거나 기도를 끝내면 '회향'이라고 하는데, 회향의 참 의미는 중생을 위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회향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다는 생각까지 뛰어 넘은 실제적 진리를 향해 방향을 돌리겠다는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열 가지 행원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원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를 따라 수행하면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보현보살의 원력을 원만 성취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 의지해 수행하는 열 가지 방법은 1.서사(書寫 · 사경하고 따라 베껴 씀) 2.공양(供養 · 항상 경을 찬탄함) 3.전시(轉施 · 경전의 내용을 전하여 읽게 함) 4.청문(聽聞 · 법회에 나가 법문을 들음) 5.피독(披讀 · 경전을 항상 읽음) 6.수지(受持 · 늘 몸과 마음에 받들어 지님) 7.개시(開示 · 스스로 의미를 통달하고 항시 설법을 해서 남에게 알리는 것) 8.풍송(諷誦 · 항상 노래 부르듯 경전을 외움) 9.사유(思惟 ·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해) 10.수습(修習 · 스스로 교리를 통달하고 법을 의지해 수행하는 것) 등 입니다. 이렇게 교법을 수지하면 올바른 수행의 방편이 됩니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질의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찾아 보세요



성관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 여래선원장)

[질문1] 중생이 실질적으로 경전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혜남 스님] 북위시대 낙양의 사찰들에 관해 양현지가 쓴 <낙양가람기>에는 숭진사(崇眞寺) 혜응 스님이 죽었다가 7일 만에 살아나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5명의 스님이 같이 염라대왕의 재판을 받는데 좌선수행과 경전독경을 한 스님은 천당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만 법회를 열어 대중을 이끌고, 가람을 짓는 일에만 매달린 스님은 흑문(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말해주듯 독경을 하나의 수행방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나라 혜교 스님의 <고승전>에서는 다음의 10과 중에 하나만 수승해도 큰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1.역경(譯經), 경율론에 통달해 역경을 잘하는 스님. 2.의해(義解),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스님을 큰 스님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3.신이(神異), 의술이나 신통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스님 4.습선(習禪), 참선하는 스님 5.명률(明律), 계율에 밝은 스님 6.망신(亡身), 몸을 돌보지 않고 불법을 지키는 스님 7.송경(誦經), 경을 잘 외우는 스님 8.흥복(興福), 공덕을 많이 쌓은 스님 9.경사(經師), 범패를 잘하는 스님 10.도사(導師), 염불 잘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속고승전>도 이와 비슷한 10과로 고승을 구분하는데 역경, 의해를 앞에 놓는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사경하고 해설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큰 원, 큰 자비심, 큰 지혜를 낼 수 있는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 주십시오.

[혜남 스님] 보리심의 3가지(대원 대비 대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탐진치 3독심에 얽매여 뜻대로 안된다고 화내는 마음을 버리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버리기만 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도 원을 세워야 합니다. 탐심과 원은 뭐가 다르냐? '탐심'은 있는 것을 남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기 위해 경쟁심에서 억지로 취하려는 욕심입니다.

반면, '원'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혜로운 마음을 계발하는 겁니다. 포악한 마음을 대비심으로, 탐심을 대원심으로, 눈앞의 이익을 취하려 어리석음을 행하려는 마음을 대지혜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구절이,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다 이뤄지도록 해야하지만, 내가 바라는 나쁜 소원은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발원하라'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선행 많이 한다해도 보리심 없으면 헛일



권탄준(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질문1] <화엄경>에서처럼 믿음이 충만하면 부처를 이룬다는, 보살도수행과 단순한 수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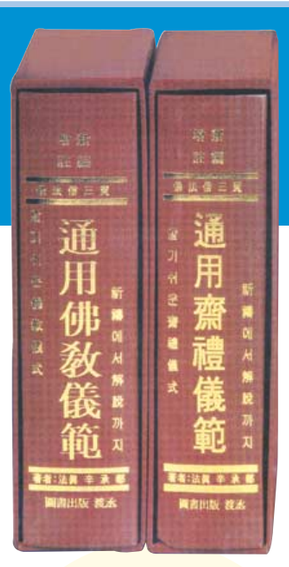
[혜남 스님] 믿음이라는 말은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야말로 도에 이르는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며 일체 공덕을 키워내는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잃으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마구니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진정한 육바라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배고픈 이, 집 없는 이, 병든 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시인 것과 마찬가집니다. 내가 인욕바라밀을 한다고 해서 남이 죄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여인을 보고서도 계율을 지키려 구하지 않는 수행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보리심 없는 수행은 어리석기만 합니다.

[질문2] <화엄경>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행 실천으로 누구나 쉽게 깨달음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혜남 스님]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律)은 부처님의 행동이니 모두 부처님의 것이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서산대사는 선교일치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행법을 다 하나의 것으로 보면서 조선 말기에는 염불과 선을 합친 염불선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선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이라면 참선 염불 주력 독경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에 이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석가모니

만화로 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꾸민 것입니다.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다 열반하셨습니다.

이 책은 삶 자체가 가르침인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어린이들이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글구성 · 그림 이범기/4×6배변형판/320쪽/값9,600원
도서출판 능인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법상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지는 말라. 마음이 부유한 참된 부자가 되라. 못 사는 부자가 되지는 말라. 돈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부자, 부유함이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아는 부자, 깨어 있는 부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가 되라.

법상 지음/신국판/279쪽/값9,500원
도솔



만화로보는
진본서유기 1-6권

동양의 판타지 고전 문학 <서유기>를 진본 그대로 만화로 재구성한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

<서유기>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목적과 신념만 있다면 번뇌를 극복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감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제시한다.

이 책은 동양 최고의 판타지 고전 「서유기」를 진본 그대로 만화로 엮었다. 위대한 고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는 법. 이 작품은 어려운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오승은 원작 조태호 그림/신국판/각권 222쪽 내외/각권 값 9,800원
맑은소리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창간 12주년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02) 737-0695

현대불교신문 및 책방여시아문 12주년 기념이벤트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2만원이상 구매고객 : 불교평론 합본 CD (총 200개)
- 3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CD (총 100개)
- 10만원이상 구매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총 50세트)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산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서른세분의 스님 이야기

내가 만난 스님들은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융통성과 재주와 재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홀가분함, 앞뒤 재지 않는 무대책,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옮기지 않고 꼿꼿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다. 그래서 통쾌하고 시원했다.

이연정 지음/신국판/320쪽/값 12,000원
민족사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알기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 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



1.경봉(鏡峰) 큰스님 14,000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2.경산(京山) 큰스님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청담(靑潭) 큰스님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구산(九山) 큰스님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혜암(慧庵) 큰스님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해안(海眼) 큰스님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청화(靑華) 큰스님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관응(觀應) 큰스님 9,000원
화엄의 바다

9.묵담(默潭) 큰스님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도서출판 밀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개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방거사 어록 강설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神通幷妙用)? 물 긷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運水與搬柴)".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방거사.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스님이 「서장(書狀)」에서 방거사의 임종게 「臨終偈」를 극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임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불교에서 왜 1,200년 동안 「방거사어록」을 통해 한번도 간행하지 못했을까?

이책에서 강설을 맡은 혜담지상 스님은 「방거사어록」을 통해 방거사와 당시의 선풍이 우리시대와 한국불교사에 올바로 조명되기를 조명하였다.



혜담지상스님지음/신국판/양장본 328쪽/값15,000원
불광출판부
www.bulkwang.org



까말라씰라의 수습차제 연구

-쌈예(bSam yas)의 논쟁 연구-

인도의 고승 까말라씰라가 대승불교의 아름답고 심오한 길을 자상히 들려준 법어를 모은 수습차제를 연구한 책으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티베트불교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다.

이 책은 티베트에 인도불교가 전해진 과정, 티베트에서 중국의 선불교가 자취를 감추게 된 쌈예의 논쟁, 중국의 선불교에 대한 티베트 스님들의 비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까말라씰라의 불교수행관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수습차제를 상세한 주석을 곁들여 번역, 소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선불교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를 하는 책이다.

중암 지음/신국판/516쪽/값20,000원
불교시대사



의상대사이야기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한 세계적 고승이다. 신라 화랑의 최고 지도자인 안함스님에게 출가하여 자장율사에게 계를 받았으며, 원효스님과 함께 낭지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당나라에 머무르면서 지엄으로부터 화엄을 공부한 것은 8년 동안의 일이며, 의상이 터득한 화엄사상은 넓고도 깊이 있는 것이었다. 674년 경주의 황복사에서 표훈 · 진정 등의 제자들에게 <화엄일승법계도>를 가르쳤고 이후 우리나라에 화엄사상이 전개되어 있었지만, 화엄사상이 크게 유포되기 시작 한 것은 의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현고추천 · 근일 감수 · 활안 편저/신국판/284쪽/값 10,000원
불교정신문화원



불일 보조국사와 조계산 송광사

이 책은 크게 두 편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제2편에서는 송광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여 중근세 한국불교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은 고려 중기 승려로 한국 선종의 중흥조이다. 8세 때 종휘에게 나아가 승려가 된 뒤로 당시의 종파대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이에게서 배운다는 트인 자세로 정진하였다.

1182년(명종 12) 승과에 급제하였고, 90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모아 정혜결사를 맺고 취지문을 선포하였다.

현고 · 활안 편저/신국판/449쪽/값 12,000원
불교정신문화원



관세음보살의 기도

12세기 초부터 세상에 소개된 관세음보살 성도기

중국의 흥림국 묘장왕의 셋째 딸이 왕의 반대에도, 불법을 믿고 수행하다가 마침내 왕궁을 떠나 출가하여 향산에서 관세음보살로 성불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비와 전설에 둘러싸인 비전으로만 전해지다가 12세기 초부터 세상에 소개된 이 이야기의 원전은 <관세음보살본행경>, 혹은 <향상보권>으로 불린다.

관세음보살이 인간으로 현신하였다가 갖은 고통과 박해를 견뎌내고 향산에서 자비의 보살로 성불한다는 성도기다.

"계율을 닦아야만 삼악도(三惡道)를 벗어나며, 선정을 닦아야만 여섯 가지의 욕심(六欲)을 벗어나고,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만 삼계를 자재하니라"

정찬주 편역/신국판변형/164쪽/값9,800원
솔과학



생각이 열리는 지혜의 샘
만화 백유경

이솝우화보다 재미있는 부처님 말씀 60가지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 오는 98가지 이야기를 엮은 <백유경>에서 60가지 이야기를 선별해 만화로 구성한 책. <백유경>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교리에 비유를 곁들여 구성한 책으로, 비유문학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 책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또한 불교의 사상을 은연 중에 알게 하는 해학적이고 해박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김장열 글 그림/4×6배판변형/249쪽/값10,000원
솔바람



마음 탓 이다

홀로 깨치고 더불어 나누는 지수 스님의 마음공부

당신 안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책!
마음속 화는 태워버리고
마음속 미움은 흘려보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눈 멀지 말고, 진정 오늘을 살아라. 아, 그대 마음이여.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건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더불어 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 마음, 마음이여, 마음 탓이로다.....

지수 스님 지음/신국판/258쪽/값9,500원
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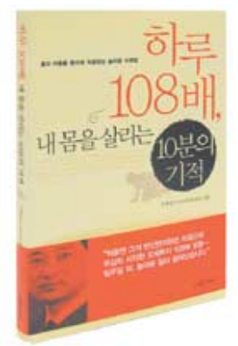
새 벽 향 기

영혼을 정화하는 맑은 차 향기 같은 글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군대에 전한 『새벽 향기』. 전라남도 장성 상무대 무각사 주지 스님인 저자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군인들에게 메일을 보낸다. 낯설기만 한 군대에서 자칫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는 군인들과 삶의 의미는 물론, 정서의 풍요로움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저자가 군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새벽마다 보낸 메일을 모은 것으로, 군인들 뿐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기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화두를 넌지시 던지고 있다. 또한 매일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정우 지음/4×6판 양장본/269쪽/9,500원
씨앗을 뿌리는 사람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기적의 수련법!

이 책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을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소개하고 있다. 막역한 친구가 당뇨로 쓰러진 후 108배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한의사로서 '절'이 가진 운동의 효과와 의학적 치료성에 주목한다. 108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여분. 이 10분이 병든 몸과 마음에 끼치는 기적 같은 힘을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저자는 절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운동법으로서 가장 좋은 절 동작을 연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절에 108배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김재성지음/신국판/237쪽/값10,000원
아름미디어



법/성/게/강/의

신라의 의상스님은 「60화엄경」의 골수 내용을 뽑아 「법성게」라는 2백 자의 간단한 문구 속에 심오한 진리를 요약하여 담아, 불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므로 해서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를 일상 속에서 쉽게 기억하게 하였다.

화엄경에 대한 강의나 해설에 대한 책들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다. 하지만 법성게란 단일 제목으로된 강의나 해설은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희소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성철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에 대한 저자의 일갈은 단순한 알음알이로 강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더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석우스님 지음/신국판/424쪽/값13,000원
여래출판사



승산 큰 스님의 웃음과 삶과 가르침

입적 이래 최초로 펴내는 승산 큰스님 전기 『삶의 나침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승산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의 참모습을 쉽고도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

2004년 11월 화계사에서 입적한 승산 큰스님은 생전에 한국 불교 종단의 주류자리를 버리고 미국에 건너가 관음선종(Kwan Um School of Zen)을 창시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불교를 포교하여 외국인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생각의 전복과 마음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서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었다.

"마음이 힘든가?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게"

허문명 글/국판/1권 209쪽, 2권202쪽/각권 9,500원
열림원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 성공한다!

이 책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치게 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을 뽑아,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수십 년간 교육현장에서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고 부대낀 풍부한 현장경험에 각종 교육이론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시켰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 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지침서!

민병직 지음 / 국판/288쪽/값 9,800원
운주사
www.buddhabook.co.kr



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참선 수행자의 어깨를 후려치는 무이스님의 죽비

무이스님의 참선경어는 간결한 문체로 요점만을 타당하게 서술함으로써 참선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 철저하게 규명한 글이다. 여기에서 공부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가장 요긴한 것으로서, 참선하는 남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다.

무려 120여 가지 경우를 예로 든 무이스님의 설명을 참구하다 보면 어느 새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무이스님 지음/국판/240쪽/
값8,900원/장경각
장경각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02)3672-7188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02-737-0695)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절 수행입문 (불교수행입문 제2권)

'절 수행'은 몸을 통해 마음의 부질없는 집착들을 비워나가는 수행법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안을 실현하고 세상과의 갈등을 푸는 데 탁월하다.

이 책은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절 수행'의 의미, 방법, 공덕 등을 짚어보고, 현재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 수행'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무거울 때,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절 수행'은 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행법이다.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변형신국판/134쪽/값6,000원
조계종출판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지낸 20년



이 책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축국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면서
히말라야 설산들과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의 성지를 순례한 〈신왕오천축국전〉이다.
스승에게서 배운 〈큰 자비심〉을 가슴에 품고 수행하면서
여름 한철은 오지인 라닥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수행자의 맑은 기록이 당신의 가슴에 큰 감동을 전해 줄 것이다.

청전 지음 / 신국판 반양장 / 360쪽 / 값 13,500원
도서출판 지영사/전화 02-747-6333



한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역동성의 대한민국(Dynamic Korea)은 무엇이며, 나아가 인간과 사회라는 주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한사상과 한철학뿐이다.

한겨레 공동체를 특징지는 역동성에 대해 엄정한 이론으로서의 한철학과 우리에게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한사상으로 설명한 책이다.이 책은 살아 있는 역동적인 한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7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의 고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열하였다. 제1장에서는 경영과 행정, 제2장에서는 문화, 제3장에서는 교육과 국가경영, 제4장에서는 사회, 제5장에서는 산업기술, 제6장에서는 생명과학, 제7장에서는 일반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최동환지음/신국판/462쪽/값18,000원
지혜의나무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배가 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잠잔다"

생활이 곧 불교요 자연의 모든 사물이 곧 스승이라 말하는 황명찬 교수의 생활불교와 그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작은 불교수행을 수상록으로 엮어낸 책.
선지식과 경전을 인용한 불교 이야기들이 제목처럼 신선하게 평범한 현실에서 깨달음을 도와줄 것이다.

황명찬 지음/신국판/256쪽/값 9,800원
지혜의나무



야생화 쉽게 찾기
1,180종의 야생화를 1,3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야생화를 찾을 수 있다.
송기엽 ·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08면 | 값 33,000원

나무 쉽게 찾기
612종의 나무를 3,7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나무를 찾을 수 있다.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88면 | 값 36,000원

곤충 쉽게 찾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998종의 곤충들을 2,0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쉽게 곤충을 찾을 수 있다.
김정환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40면 | 값 33,000원

구름 쉽게 찾기
10종의 기본 운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름과 하늘의 모습을 600여 컷의 사진에 담았다.
이대암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352면 | 값 27,000원

02-720-5990 ※전국 유명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한 자재인생 실현을 위해!

유마처럼 살자

유마는 선(禪)을 실천하고 깨달은 수행자(修行者)요
유마는 선(禪)으로 생활하고 소요한 자재인(自在人)이며
유마는 선(禪)이 사회의 지혜등불이 되도록 한 선지식(善知識)이다.

지은이: 정암, 480면, 양장본, 값 22,000원

이 책은 중국의 茶 문화를 생각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으로 중국茶문화의 모든 각도에서 기초지식을 정리한 것이다. 차의 기원, 제다법, 다기, 차와 건강, 다예, 차의 역사, 음용사, 차와 의례, 다시와 다련, 차 제품에 대한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차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격조높은 책이다.

지은이: 다나하시 고오호오(棚橋篁峰), 380면, 무선제본, 값 25,000원

도서출판 **하늘북**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139-1번지 TEL 02-722-7484 FAX 02-730-2646



숫타니파타

불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선 인류의 위대한 영혼의 양식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원형 부처님의 原音 가르침

이 숫타니파타는 체계화되기 이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이 경전이 전개한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은 새로운 지평의 조화로운 윤리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전재성 역주/신국판 /564쪽/값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www.kptso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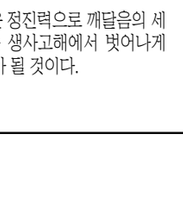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 권으로 읽는 쌍윳따니까야

이 책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쌍윳따니까야 전집의 2889개 경에서 발췌한 180개 경전을 모은 것이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수행과 교리와 관련된 58개 경전을 추가하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신국판/ 665쪽 / 30,000원

看話正路
간화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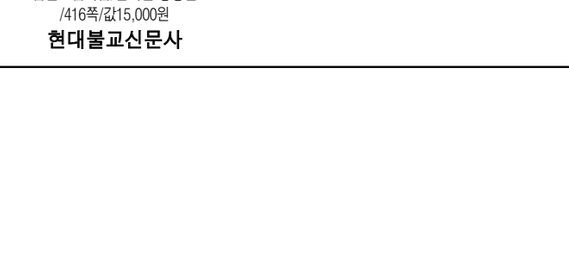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좋은기획 좋은디자인 좋은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현대북스

알기 쉽게 새로 쓴 현암사 경전 시리즈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전화 02-365-5051 www.hyeonamsa.com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6인 설법집
선지식1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책을 펼쳐라"

- 昔珠 큰스님
- 月山 큰스님
- 九山 큰스님
- 月下 큰스님
- 西翁 큰스님
- 京山 큰스님

한평생 청정수행과 정진력으로 悟道의 세계를 펼친 고승들의 감로법문은 불교의 진수를 알게하고 현실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吉祥편/신국판/509쪽 최고급 양장본/
값25,000원
홍법원



"불교와禪이 어렵다면 이 책을 펼쳐라"
선지식2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 6인 설법집

- 西庵 큰스님
- 慧菴 큰스님
- 崇山 큰스님
- 日陀 큰스님
- 光德 큰스님
- 聲準 큰스님

한평생 청정한 수행과 무서운 정진력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한 큰스님의 법어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신활로가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吉祥편/신국판/518쪽 최고급 양장본/
값25,000원
홍법원



옛거울 밝히니 해와달이 빛을 잃네

임제선원장_ 法玄스님_ 법어집

생사의 분별심은 옛거울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법현스님지음/신국판 양장본
/416쪽/값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문가 박상혜씨에게 배워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 대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야만 내 몸과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마음의 병' 스트레스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기도와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고요한 나만의 공간에서 향을 피우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기도를 합니다. 하루 십 분이고 삼십 분이고, 마음속의 미움과 사악함이 사라질 때까지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받은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를 다시 일상이나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녹이는 것이지요.

나물 · 풀뿌리 · 버섯 등
하찮아 보이는 재료들
비타민 · 무기질 공급
독소 빼주고 불안증 없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절하다 보면 피로도, 마음의 불안도, 가슴 두근거림도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찰음식입니다. 전 사찰음식 강의를 할 때 마다 회원님들에게 "집에 있는 부처님께 잘해주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부처님, 즉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 생각해보라는 뜻에서입니다.

사찰음식의 재료는 나물과 두부, 풀뿌리, 버섯 등입니다. 언뜻 하찮은 재료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엉과 연근은 우리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버섯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대추나 감자 등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불안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이전에 과음과 흡연 같은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지나친 경쟁심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일도 삼가야겠지요. 더불어 휴식과 충분한 영양섭취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 '필수 영양공급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수행과 사찰음식 섭취 등으로 그때그때 풀어준다면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찰음식연구가

마음의 병 훌훌~ 에너지 쑤~욱

에피타이저





감자 시금치 샐러드

감자는 혈액을 맑게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해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키는 부신피질호르몬의 생성을 돕는다. 시금치의 염산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재료: 감자1개, 시금치 3뿌리, 포도씨 기름, 소스(포도씨 기름 3큰술, 식초 2큰술, 다진 양파 1작은술, 다진 청 • 홍고추 1/2개분씩, 죽염 약간)

① 시금치는 씻어 한입크기로 썬다.
② 감자는 원형으로 얄팍하게 썬 뒤 냉수에 헹궈 전분기를 빼준다.
③ 물기를 뺀 감자에 포도씨 기름을 뿌려 프라이팬에 굽는다.
④ 분량의 재료로 소스를 만든다.
⑤ 접시에 시금치와 감자를 담고 소스를 뿌려 낸다.

대추 수삼말이

대추는 긴장을 풀어 주고 흥분을 가라앉혀 주므로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갱년기 우울증 · 히스테리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다. 수삼의 사포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재료: 대추 16개, 인삼 2뿌리, 설탕 1작은술, 시럽(꿀 1/2컵, 생강 1조각, 설탕 1큰술)

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분리한다.
② 수삼은 3cm길이로 곱게 채 썰어 설탕물에 담근다.
③ 분량의 재료로 시럽을 만든다.
④ 채 썬 수삼의 물기를 뺀 후 대추에 소를 채워 돌돌 말아준다.
⑤ 만들어진 시럽으로 수삼대추말이를 재워둔 후 채로 걸러 완성한다.





메인





우엉 연근 죽

우엉과 연근에는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 독소배출에 아주 효과적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을 한다.

재료: 연근 1/3쪽, 우엉 10cm, 불린 쌀 1/2컵, 식초 약간, 참기름 약간, 채수 4컵(물5컵+마른표고버섯+다시마5x5cm를 끓인 물), 대추 약간

① 우엉과 연근은 껍질을 벗긴 뒤 식촛물에 담가둔다.
② 우엉은 다지고 연근은 강판에 간다.
③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은 뒤 우엉을 넣고 함께 볶는다.
④ 우엉과 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연근과 채수 2컵을 넣어 한번 끓인다.
⑤ 한번 더 나머지 채수를 넣고 끓인다.
⑥ 대추를 고명으로 얹어 완성한다.

표고버섯 파프리카 탕수

파프리카 속에 들어있는 비티민C는 무기질이 풍부한 버섯과 만나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현저히 감소시켜준다.

재료: 말린 표고버섯채 2줌, 청색 피망 1개, 노란 피망 1개, 노란색 파프리카 1개, 양파 1/2개, 식용유 약간, 소스(오렌지주스 1/2컵, 설탕 2큰술, 전분물 적당량, 생강즙 약간, 죽염 약간), 반죽(밀가루 4큰술+전분가루 3큰술+물 1/2컵+간장 1작은술)

① 표고버섯채는 물에 불려 물기를 짠다.
② 청피망, 홍피망, 노란 파프리카, 양파는 작은 사각형으로 썬다.
③ 분량의 재료로 소스를 만든다.
④ 불린 표고버섯채와 반죽 재료를 섞은 후 180℃의 기름에 두 번 튀겨낸다.
⑤ 튀겨낸 표고버섯을 소스에 버무려 완성한다.





디저트





토마토 두부 카나페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에 영양이 듬뿍 든 두부를 이용해 만든 간식이다. 열량이 낮아 수험생 간식으로 좋다.

재료: 두부 1/2개, 토마토 4개, 치커리 약간, 포도씨 기름 약간, 소스(플레인요구르트 1개, 김밥용 단무지 2줄, 옥수수 캔 1큰술,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포도씨 기름 1큰술, 산초가루 1/3작은술)

① 두부는 0.5cm 두께로 잘라서 기름에 지져낸 후 기름기를 제거한다.
② 토마토는 원형으로 자른다.
③ 치커리는 한입 크기로 자른다.
④ 청 • 홍고추와 단무지를 곱게 다진 후 모든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⑤ 토마토와 치커리, 두부를 순서대로 올린 후 소스를 뿌려 마무리 한다

샐러리 사과 주스

샐러리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몸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준다. 흥분을 잘하거나 사소한 일로도 얼굴을 잘 붉히는 사람은 평소에 샐러리를 자주 먹으면 좋다.

사과는 샐러리의 쓴맛을 감소시켜주므로 함께 섭취하면 좋다. 사과는 갈아두면 색이 쉽게 변하므로 먹기 직전에 믹서에 갈아서 낸다.

재료: 샐러리 1대, 사과 1/2개, 꿀 약간, 콩가루 1작은술

① 샐러리는 파릇한 것으로 골라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한입 크기로 잘라준다.
② 사과도 작게 자른다.
③ 샐러리와 사과를 믹서에 간다.
④ 먹기 전에 꿀과 콩가루를 넣어준다.






태중(낙태,유산) 지장보살님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10월 21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8월 3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1일 (음, 8월 30일)
● 3재 : 양력 11월 4일(음, 9월 1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2일 (음, 10월 1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스트레스 쌓여 못 살겠다구요?

'마음 다스리기' 어렵지 않아요

스트레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 말이다. 하지만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도, 입시에 짓눌린 학생도, 가사에 지친 주부도,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지난 한해 국내 사망원인의 약 25%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자살 등 스트레스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질병이 차지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26.7%)과 비슷한 수치다.('통계청' 2005 사망원인 통계결과)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수 십 만원이 넘는 건강용품을 구입하고 각종 강좌를 찾아간다. 진정 스트레스는 '해소'됐을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풀리기를 반복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인도의 명의(名醫) 기바는 "나는 육체병의 왕이요, 부처님은 마음병의 왕"이라고 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 스트레스를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욕구 좌절 · 위협이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간단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정신적 · 신체적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아름다운 인연)를 펴낸 김정호 교수(덕성여대 심리학과)는 "욕구좌절과 욕구위협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지만 욕구좌절과 욕구위협(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의 가능성 또한 늘어나는 데 이것이 곧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대한스트레스학회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지만, 자신이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 신체 · 정신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보면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집착'이다. <현겁경>에서는 "마음에는 네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탐심과 음욕, 둘째는 성냄과 미움, 셋째는 어리석음, 넷째는 '나'라는 생각이다"고 전한다. <법구경>은 "만족해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이르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착을 버려야 하고,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마음 다스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명상과 참선 등 불교 수행법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김정호 교수는 "욕구좌절이나 욕구위협의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욕구, 즉 '마음 다스리기 욕구' 혹은 '자기성장의 욕구'를 갖는다면 스트레스를 '웰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참선 · 명상 효능 속속 드러나

명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어 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교수는 1967년 수행이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명상이 혈압을 낮추고 일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근 미국 홉킨스대학과 캐나다 토론토대학은 공동연구 결과 인간 노화 가속화의 주원인은 스트레스이며,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엔돌핀 ·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노화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처럼 명상의 심리 · 의학적 효능이 속속 밝혀지자 서양의학계에서는 명상을 질병치료에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명상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다. 최훈동 한별심리분석연구소장이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이 불교적 명상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주자들이다.

전현수 원장은 "명상프로그램이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를 현격히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좌선과 명상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있게 되고, 이로 인해 외부 자극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선 수행의 의학적 효능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방송된 MBC 프로그램 '선 수행, 나를 깨치다'에서는 선 수행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베타 엔돌핀의 분비량을 촉진시켜 심리적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골프나 양궁, 야구 등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경기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참선을 꼽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명상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주시하는 것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화가 난 원인을 반추해보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조계종 교육원이 펴낸 <간화선 입문>에서는 처음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잡념이나 망상이 생길 때 심호흡을 해볼 것을 권한다. '이뭣고' 화두를 들 경우 '이'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뭣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식이다. 걷거나 움직일 때, 청소 · 설거지를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화두를 들거나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면 의식이 맑아지면서 초조 · 불안 · 근심이 줄어든다.

단, 수행으로서의 참선이나 위빠사나 수행을 익히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집착'
'내게 맞는 수행' '다도' 등 지속할 때 극복
"자신의 부족한 점 인정할 때 마음 가벼워져"

▮수행의 '생활화' 노력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명상이나 참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요가나 절, 사경 등 불교의 수행법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절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절을 하면 뜨거운 기운은 발로 오게 되고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효과를 얻는다"며 "이렇게 되면 뇌파가 안정되어 편안한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절을 할 때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향을 피울 수 있으면 향을 피우며 마음가짐을 다진다. 절을 한 후에는 15분 가량 좌선에 들어 호흡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은 내 마음 또한 부처님처럼 바뀌게 되어 성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이다. 염불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려울 일에 닥쳤을 때나 즐겁고 기쁠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염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염불을 할 때는 불보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一心)으로 명호를 외야 한다. 입으로만 명호를 부를 뿐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진정한 염불이라 할 수 없다.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독경은 단순히 경전의 자구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반추해 보는 수행법이다. <선가귀감>에서는 "경을 보되 자기의 마음속을 향해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만 권의 장경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독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는 경전을 곁에 두고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반듯한 자세로 앉아 경전을 읽는다. 규칙적인 호흡과 리듬에 맞춰 독경을 하다보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경전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요가 등의 선체조나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 꾸준히 생활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차 한잔에서 느끼는 '고요'

'차 한 잔의 여유'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짧지만 편안한 휴식을 준다. 꼭 복잡한 '다법(茶法)'에 따르지 않더라도 간단한 다구를 준비하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한 지장 스님은 차와 명상을 결합한 '차 명상법'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차 명상법'은 사념처(思念處)와 팔정도(八正道) 수행을 기반으로, 차 마시는 행위를 통해 자각력과 집중력,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장 스님은 "자신의 부족한 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며 "차 수행을 통해 몸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올바로 알아 참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고 말한다.

차 명상은 비싼 차나 차도구를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찻잔이나 머그컵 등에 따른다. 편안하게 앉아 찻잔을 한쪽 손바닥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 감싸 쥔다. 차를 마시며 찻잔의 질감과 온도, 차향을 음미한다.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차가 입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처음에는 몸의 느낌에 집중하기 쉽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집중력이 강화된다.

지장 스님은 "차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면 걷고 움직이는 일상 모두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순간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집중하다보면 스트레스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 여가지의 茶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탈종공고

• 사찰명 : 법화사
• 주 지 : 희복(김용복)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 4가 207

상기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11. 1부터 (월 · 화, 수 · 목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고도의 참수행
(명상(참선), 호흡) (율정 지음)
참수행법 7기 기초수행자, 지도자과정 모집
끝없이 이어지는 나의 삶(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참수행법
참호흡법과 정신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 1,2,3권을 정진하여 내 마음속의 불행,고통으로 흐를 수 있는 온갖 잡념과 번뇌 망상을 수행 향상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멸시키는 공부입니다. 또한 나의 끝이 없는 윤회인 틀(구속)에서 벗어나고, 수행중 참행복을 수행자 자신이 실제 체험으로 느껴나가는 수행법입니다.
수행 중 온갖 잡념망상이 사라지고 몸이 강건해지며 자신감과 활력이 넘친다.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및 우울증 극복, 신경성두통(편두통), 상기병(상열병) 요통및 만성피로,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알레르기), 고혈압과 당뇨병, 소화장애및 간장병,요실금과 방광염, 생리통과 폐경기 증후군, 불감증과 성기능 저하, 변비와 과민성대장 증후군, 성격변화 및 인간관계 개선, 리더십 향상, 부부 및 가족관계 회목, 깊은 명상을 통한 참자아발견.
• 평일반: 오후 2:00~3:30 저녁 7:00~8:30
• 주말반: 토요일 오후1:00~3:30
• 접 수 : 전화, 방문 신청
다음 카페 참사모(참수행을 사랑하는 모임)
한글 인터넷주소 "참사모"
대각 선원(수행전문도량)
전화 : 02)2269-0813 , 011-785-8813 덕정스님
지하철 1호선 - 종로5가역 6번출구 앞 건물(501호)

인연을 짓다 (중)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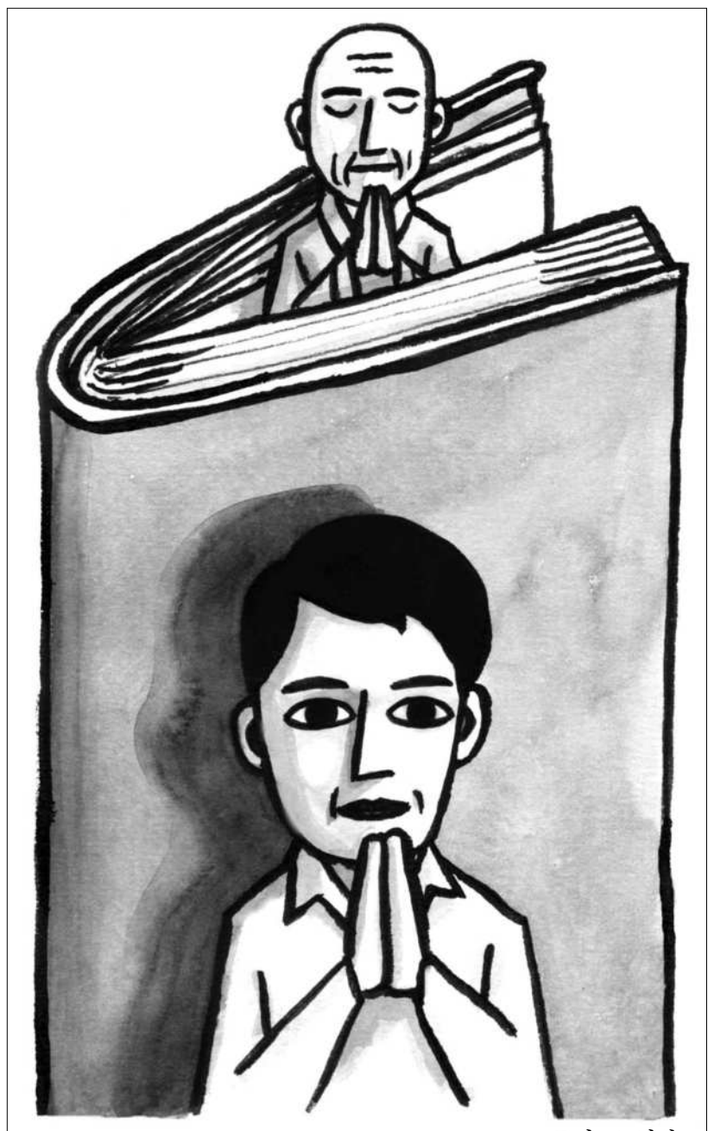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주머니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는 도중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혹시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별 일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두 아주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이지 않았다. 응급실에 계신 아주머니는, 자기는 발목에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는데 다른 아주머니는 의식이 없어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했다.

순간 겁이 덜컥 났다. 큰 병원으로 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이송됐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엔 모범 운전자 복장을 한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사고 낸 사람이야?" 하고 소리를 쳤다.

"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 사람아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사람 다 죽게 생겼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마치 큰 죄를 짓고 끌려온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나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니 내 책임이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머리에 피가 고여 뇌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잠시 후 아주머니의 남편이 나를 밖으로 불렀다. 의사는 장담을 할 수 없으며, 일단 수술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일단 돌아가라"고 했다. 그 남편이라는 분의 태도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 침착했다. 내 멱살을 쥐고 흔들어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내가 낸 사고로 인해 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은 잘 됐으니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수술이 잘 되길 기도했다.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지만 아주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뒤로 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내일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

사고 후 죄책감 · 불안한 마음으로 불면증
'주인공에 맡겨보자' 생각하니 편안해져
"아주머니 위해 정성껏 기도하리라" 다짐

오는 차 안에서도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런 나를 보며 선배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니까 자책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죄인처럼 그러지 마. 보험 들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힘내 임마!"

하지만 그런 위로의 말도 내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였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TV에서나 보았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그동안 누구에게 악하게 한 적도 없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사고 순간이 떠올라 눈을 감기가 겁이 났다. 아내는 다 잊어버리고 그만 자라고 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가 않았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집에서 조금만 더 일찍 나섰다면? 아니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리곤 이내 '그런데 그 아줌마들은 비도 오는데 왜 길 한가운데를 무단횡단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하는 원망까지 생겨났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주머니들의 경솔함이 원망스러웠고 분한 감정까지 생겨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흥분된 마음으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물을 마시러 책상으로 갔다. 그 때 책상 위에 놓여진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대행 스님이 미소 띤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순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따스함이 느껴졌다. 매달리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스님!"하고 외쳤다.

스님에 매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 전 까지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웃은 나 자신의 터무니없는 오만함이 떠올랐다.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 흘리며 스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스치듯 한 생각이 지나갔다. '그래! 기도하자. 마음의 주인공에게 맡기고 지켜보자. 지극하게 믿고 맡겨보자.'

대행 스님의 가르침대로 하자고 결심한 순간 머리 속이 환해짐을 느꼈다. 몇 번을 되풀이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주인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주인공에게 맡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짐이 느껴졌다. 방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지옥과도 같았던 마음이 생각 하나를 달리하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신기했다.

스님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침대에 누우니 이내 스르르 눈이 감기며 잠이 밀려왔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난 어느 절에 와 있었다. 처마의 단청이 너무 아름다워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단청 위로 인자한 모습의 대행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난 "스님" 하며 합장을 했다.

햇살이 눈부셨다. 얼마를 잤는지 벌써 해가 중천이었다. 꿈속에서 스님을 만나서인지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말렸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아주머니가 쾌차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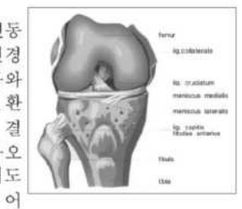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현대불교신문
창간12주년을 축하합니다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진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불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수요로 인해 불법이 생긴 것입니다.
- 당대 불법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금보리 상사님의 말씀

보리법문의 창시자 금보리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청장고원(青藏高原)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8년의 고수고행(苦修苦行) 끝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원만한 자비와 수승한 법력(法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원을 발원하여 세간(世間)에서 포교를 하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리상사님은 자신의 수행과 득도한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수행과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들을 창시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7일간의 실증실수(實證實修)를 통해 보리법문만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적당한(應機) 수행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상사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리수행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분들이 큰 성취를 얻으셨습니다. 이생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不可不修). 여러분이 "금보리(金菩提)" 세 글자를 들으시고 희열과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보내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7일간의 수행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한국보리법문
■문의전화 : 02)3471-9183 / 02)586-6176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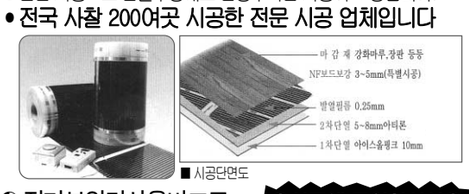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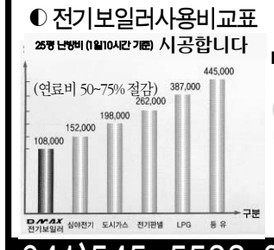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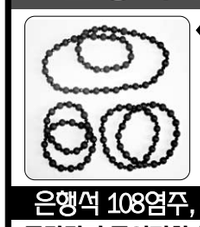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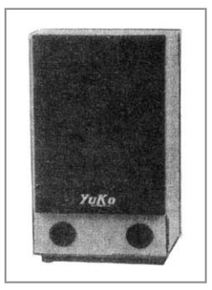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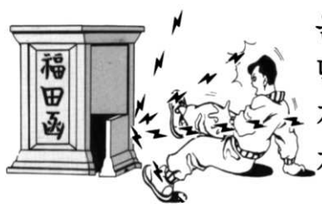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아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최고가 아니면 하지않습니다”

한국불교건축공예는 법당 평수에 따라 주문하시는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판매합니다

성형제작과정



포작성형양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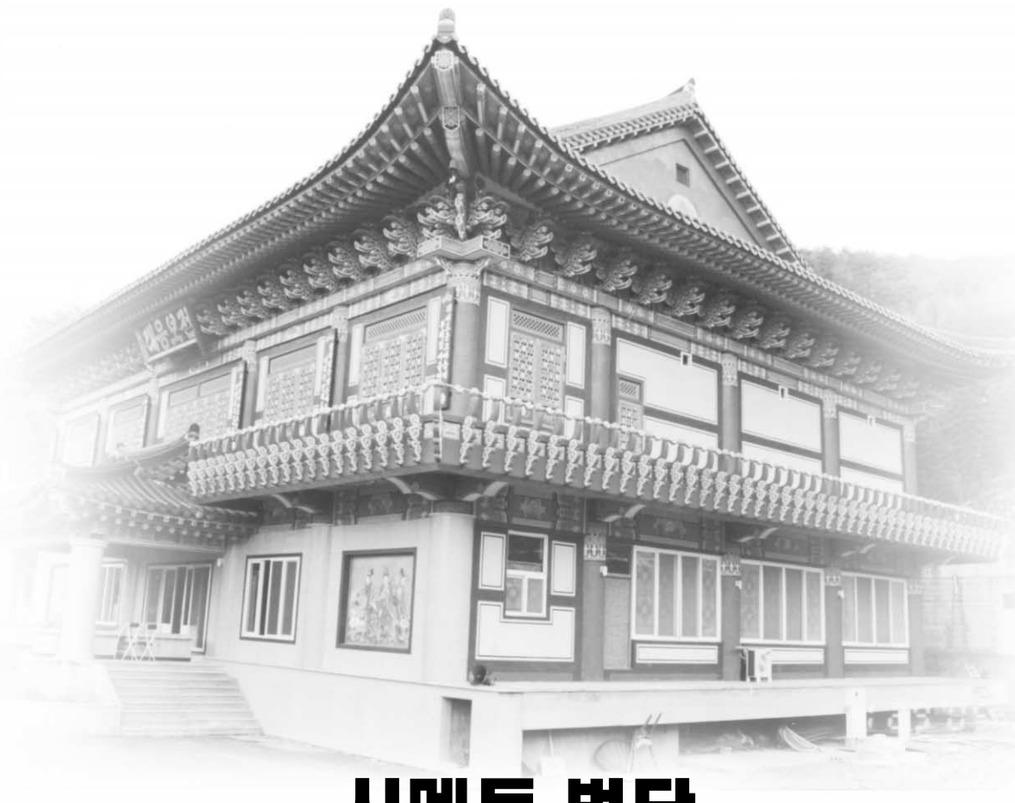
부연성형양생과정



포착설치과정



서가래양생과정



시멘트 법당

설계에서 시공까지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
섬세합니다 우아합니다

● **사업안내**
콘크리트 법당 목조사찰건축 요사채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 **생산품목**
서개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자각, 외삼포작, 외삼포 / 내오포작, 외오포, 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시공된 사찰









한국불교건축공예
(고건축사업부)

■ **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86-4대웅빌딩 2층
서울대표전화 : 02)494-4890~1 상담직통 : 011-9228-6814
영남(대구) : 053)983-0357 상담전화 : 011-9582-4689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99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0월 15일(음력 8월 24일) 일요일
법공양 페이지
B21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부산의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더불어 신도님들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서툴러서 실례가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 자유를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걸림이 많은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진의를 완전히 터득해서 알아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불교(佛敎)가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목탁 치고 염불 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또는 뜻과 뜻으로 통하고 말과 말로 통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교(敎)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요.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듯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 진리가 불교입니다. 우리가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어떠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불(佛)이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불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가 끊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은 직결이 됐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 없는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요. 소가 가다가 언덕을 보고서 비비니까 언덕이 하는 소리가 "허허! 언덕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나한테 와서 비비는구나!" 했답니다. 그래서 소의 탓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오계향(五戒香)이, 다섯 가지 계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향(戒香) 할 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겁니다. 물질세계에서 겉으로만 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써 채찍을 삼고 모든 권속들하고도, 사형 사제들하고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 간다면, 그리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마음의 계향이 되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마음의 자세가 슬기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나 아닌 나로부터 가야지 나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나를 빼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데 바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 쓸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충만하고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 자체가 업식이 돼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입력을 해서 쓰지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오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속을 아는 것이며,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며, 심안으로 보는 것이며,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며,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아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숙명통과 더불어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된 데다 다시 놓지를 않아서 다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데다가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간 대로 새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데다 되놓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 모두를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얽매여서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고의 테두리에서, 또는 업의 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팔자 운명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요, 또는 세균성이 와도 영계성이 와도 업보성이 와도 유전성이 와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온 데다가 되놔라, 나온 데다가 믿고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무변하면서도 그렇게 엉뚱하게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업 선업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각자 몸뚱이 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혼합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키고 싶어서 어느 부부의 정자 난자를, 몸을 빌립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를 그렇게 형성을 시켜서 바로 자기 모습을 앞장세워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자 바로 불성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뿌리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무뿌리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나무는 자기 뿌리가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빌고 온통 야단법석이니 그렇게 해서는 자유스럽게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시켜서 같이 중용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무 살자고 남의 뿌리에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의 나무를 쳐다보고 남의 나무뿌리를 쳐다보고 내 나무를 키워 달라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부터 보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으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 가는 줄 아십시오. 차가 가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운전수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바로 양면을 다 움켜잡고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로 육신과 영원한 근본인 뿌리와, 즉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을 내는 법,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지금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살이가 바로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걸음을 걸어올 때나 일을 할 때나 고정되게 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그렇게 엄청나고 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딴 종교에서는 마귀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앉아서 그냥 귀신 놀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서나 앉으나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에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눈을 감았으나 떴으나 똥을 눌 때나 먹을 때나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천수만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수화풍도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쳐지니까, 화목하게 합쳐지니까 밝은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밝은 세상이 오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못 믿겠거든 우리의 몸속을 한번 보십시오.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어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이 돼서야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만날 각자 내가 살고 내가 줬고 내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즉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요 관리인입니다. 이 몸뚱이는 바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또 사대 성인들께서도, 많은 조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얘,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가는데 중생들이 배 안에 잔뜩 탔으니 선장이 노를 똑바로 잘 저어서 나가야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수보살이 유마힐 거사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겠노라." 한 뜻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의 자생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죠!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중생들을, 내 몸속의 중생들 병이 다 나아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깁니다.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평등공법 봉에 모두가 한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직결돼 있고 한도량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력이나 금속이 어디든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통해서 바로 몸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천백억의 보살로 화해서, 바로 천차만별의 응신으로 나투면서 천차만별의 중생들한테 자동적으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백억이라면 바로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묻지 마세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놔야만 합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

☞B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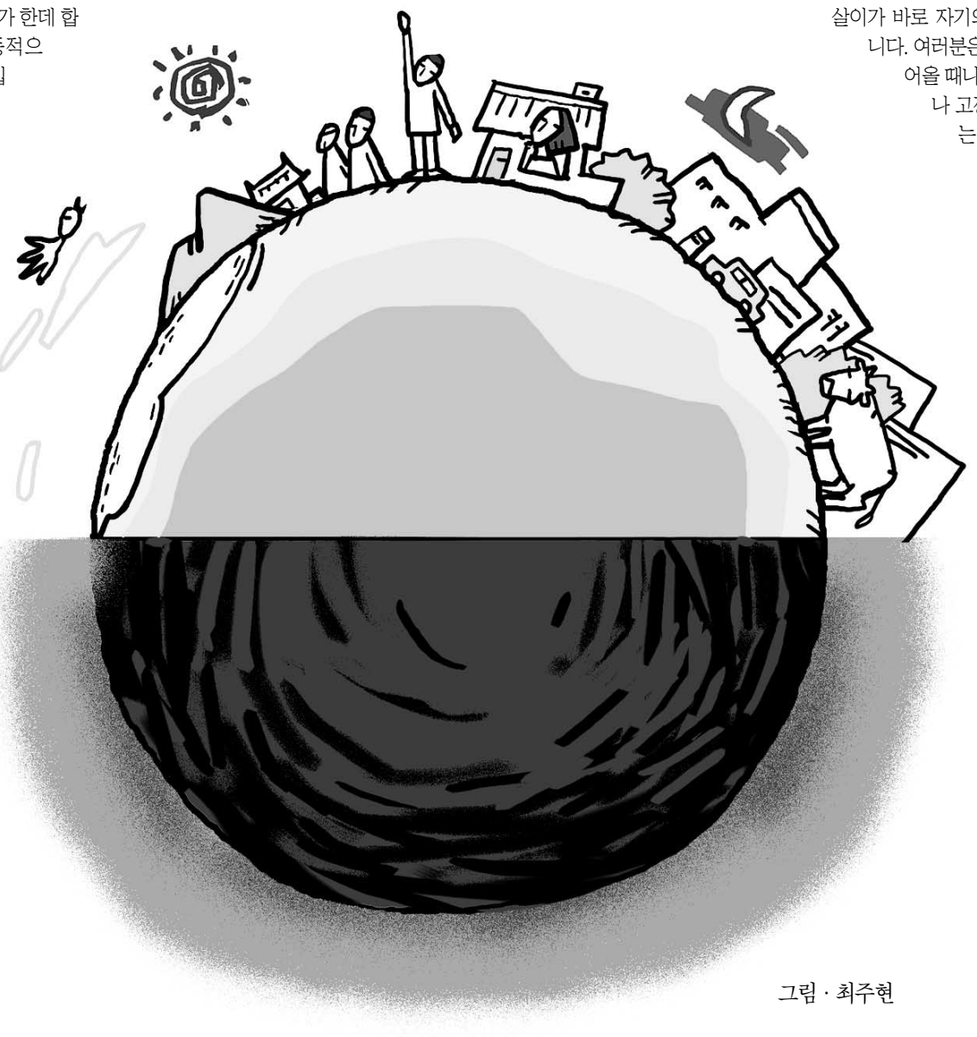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한 치도 에누리 없는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

☞B21면에서 계속

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듣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중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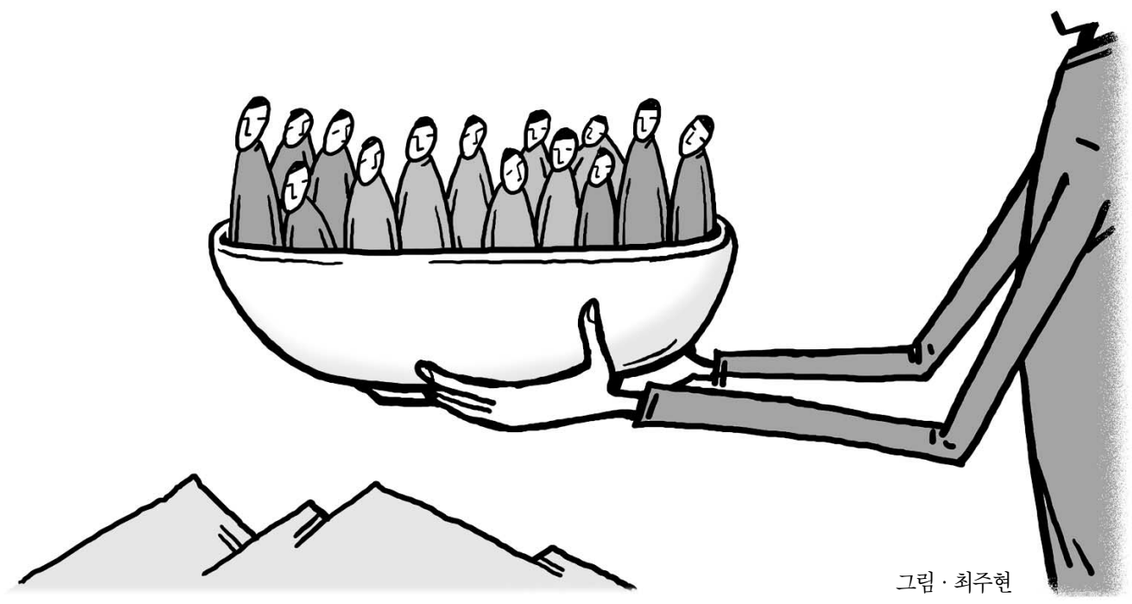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 나라는 걸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다가 외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바로 서로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얽히고설켜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마음으로 잡아야지 말로 몸을 잡으려고 한다면 몸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죽거리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죽거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바로 몸이 움죽거리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병이 나거나 일가친척이 병이 나거나 내 식구들이 병이 났어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 거를 알고 내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그게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마는 병이 나서 아팠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찰나찰나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십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가 병이 나서 주인공에다 맡겨 놨을 때는 여기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통신처입니다, 통신처.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듯이,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되듯이, 내 주인공의 뜻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거기다 맡겼을 때는 바로 한 찰나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이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인공! 당신만 이것을 대치해서 해 나갈 수 있잖아!' 했을 때는 관세음이 되시고 '아이구, 명이 짧아서 어쩌나!'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칠성이 돼 주시고, 또는 '아이구,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인공에 맡겼을 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또 마음에 물리가 터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동방의 아촉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둘 아니게 지켜볼 수 있는 관법을 잘 알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미타가 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는 기묘한 법이 그렇게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여러분이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감을 알아

지금 금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지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못 믿겠거든 한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그 뜻을 아시죠? 그리고 또 유마힐 거사가 내 중생부터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말, 그것은 내면의 여러분 생명들이 다 나아야, 병이 들지 않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며 화목하다 이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판단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도 화목해지고 모든 게 다 화목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아십시오. (대중 박수)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부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탑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는 평생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悔 淨 宗議會議長 惠 印

教育院長 敬 淨 查監院長 惠 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재)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홍파

사서 문호명

종회의장 정법륜
부의장 김경철 부의장 강백제

부원장 황법명

호법원장 김경철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이효천 역경부장 이대광
역경국장 한진각

포교원장 김지섭
포교부장 황혜광 조직부장 임법경
포교국장 김법경 조직국장 정도명

총무부장 김대홍 총무국장 신성법
교무부장 권종일 교무국장 신도중
재무부장 박지열 재무국장 박지성
사회부장 조법호 사회국장 이도각
감찰부장 이의선 감찰국장 임현묵
서부경남종무원장 박송월 경기종무원장 이혜담
종무위원 장법능 종무위원 박명진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02)763-0054 팩스 (02) 763-5851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경원 종 정 붕해 대종사 총무원장 지공 종사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상임이사 혜광 장로부의장 명종
이사 혜운 장로위원 수암
이사 도기 원경
이사 지공 청송
이사 화엄 송은
이사 일명 원각
이사 법광 혜운
이사 담화
감사 혜천 고시위원장 청송
감사 혜원

종회의장 화엄
종회부의장 경원
사무처장 도안
종회의원 덕봉
법정 삼주
진송 지운
법재 용주
법안 인오
덕산 남혜
보광 법상
법경 청표
호암 성각
도정 고봉
선행

호계원장 용암
교육원장 원각
감사원장 법성
포교원장 정수
사서실장 혜천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호계초심위원 영명
용주
도혜
지성
동청
영우

총무부원장 혜천
총무부장 영명
교육부장 법해
재무부장 유정
재무국장 일명
교무부장 지언
사회국장 영우
규정부장 지성
포교부장 혜공
홍보부장 대호

서울교구 응천
부산교구 대우
대전교구 도안
인천교구 유정
울산교구 도현
대구교구 석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윤봉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정수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충남교구 영명
충북교구 총무원직할
제주교구 경운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 엄지빌딩 4층
전화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http://www.ilbung.org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 事 長 釋解愚
副 總 理 釋 大 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摩 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 淨 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 可 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 心 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 解 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 팩스 496-3950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제4대 총무원장 대현스님 취임 축하

종정 일송 장로원장 용주 종회의장 현공

총무수석부원장 원 광 총무차석부원장 해 법

총무부장 수 암 교무부장 태 산 재무부장 현 우
포교부장 해 주 호법부장 혜 상 사회부장 수 암
국제부장 법 안 문화부장 일 월

장로부원장 지 선 종회부의장 혜 원

교육원장 법 운 포교원장 청 광 호법원장 원 진
의전원장 승 선 법계원장 법 정 역경원장 수 혜
문화원장 관 도 복지원장 용 화 국제원장 용 화
수선원장 서 연 비구니원장 해 광 호법부원장 월 산

총무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13번지
전화 031)217-2170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사부대중 일동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1 원흥사
TEL 031)585-2090


3년 연속 한경주거문화대상 수상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
vivaldi
한라비발디
한라비발디에서 오늘도
그녀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감도는 그녀의 공간 –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곳 –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 한라비발디
HALLA
한라건설
www.hallaapt.co.kr